

이카호중앙교회(일본) 홍성필 목사  
[ikahochurch@gmail.com](mailto:ikahochurch@gmail.com) <http://www.ikahochurch.com>  
일본 복음화를 위한 선교후원 : KB국민은행 079-21-0736-251

성경소설

요셉의 재회

The reunion of Joseph

2020.02.13 수정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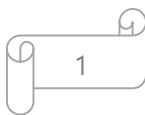


홍성필 목사

일본 군마현 이카호중앙교회

[ikahochurch@gmail.com](mailto:ikahochurch@g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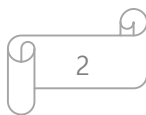
<http://www.ikahochurch.com>



이카호중앙교회(일본) 홍성필 목사

[ikahochurch@gmail.com](mailto:ikahochurch@gmail.com) <http://www.ikahochurch.com>

일본 복음화를 위한 선교후원 : KB국민은행 079-21-0736-251



이카호중앙교회(일본) 홍성필 목사  
[ikahochurch@gmail.com](mailto:ikahochurch@gmail.com) <http://www.ikahochurch.com>  
일본 복음화를 위한 선교후원 : KB국민은행 079-21-0736-251

## 【알리는 말씀】

1994 년부터 현재까지 저희 교회는 일본 군마현에서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주님께 영광이라는 기치 아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사명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주님과 함께 걸어왔습니다.

현재 저희 교회는 재정적으로 미자립 상태에 있으며, 여러분의 기도와 선교후원이 큰 힘이 되어 왔습니다.

이번에 성경소설 <요셉의 재회>를 완성하고 이를 출판하고자 추진을 해왔으나, 시급한 자금 마련을 위하여 여러분께 모든 원고를 공개하기로 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선교후원을 당부 드립니다.

이카호중앙교회(일본) 홍성필 목사  
[ikahochurch@gmail.com](mailto:ikahochurch@gmail.com) <http://www.ikahochurch.com>  
일본 복음화를 위한 선교후원 : KB국민은행 079-21-0736-2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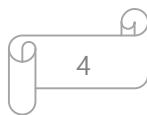
여러분의 손길이 일본 선교의 등불이 됩니다.

일본 선교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섬김은  
일본 복음화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귀한 밑거  
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후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축복과 넘치는 은혜가 함께 하시  
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카호중앙교회 홍성필 목사 올림  
KB 국민은행 : 079-21-0736-251 홍성필  
群馬銀行 : 店番号 190 口座番号 1992256  
ホンソンプール



## 【성경소설 〈요셉의 재회〉 작품소개】

### The reunion of Joseph

1. 제목 : 요셉의 재회
2. 부제 : 이집트 지배자까지 오른 야곱의 아들 ‘요셉’이 형제들과 숙명의 재회를 맞이할 때, 그 뒤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가. 교차하는 수수께끼와 숨은 진실은.
3. 장르 : 소설 · 희곡
4. 기획취지 : 형들에 의해 노예로서 이집트로 팔려간 ‘요셉’이 그의 형제들과 재회를 맞이한다는 것



이카호중앙교회(일본) 홍성필 목사  
[ikahochurch@gmail.com](mailto:ikahochurch@gmail.com) <http://www.ikahochurch.com>  
일본 복음화를 위한 선교후원 : KB국민은행 079-21-0736-251

은 구약성경 창세기에 등장하는 유명한 이야기이나, 목사나 신학자들에 의한 기존의 해석을 적용하면 부자연스러운 점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는 등장인물의 심리를 오해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심리를 여러 측면에서 본질적으로 접근하고자 시도하였습니다. 내용은 본래 성경 내용을 자의적으로 왜곡하려는 것이 아닌, 보다 진실에 다가서기 위한 책이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은 4 개의 의문에서 시작하였습니다.

— 4 개의 의문

- ① 왜 요셉은 형들을 첩자라고 단정하였는가.
- ② 왜 요셉은 시므온을 인질로 선택하였는가.
- ③ 왜 요셉은 베냐민 집 속에 은잔을 넣도록 지시하였는가.
- ④ 왜 요셉은 세 번 울었는가.

5. 독자 계층 : 기독교인 뿐만이 아닌 일반소설 ·  
희곡에 관심이 있는 독자 전반

6. 주된 구성 : 제 1 장부터 제 6 장까지로 구성.  
각 장은 독백 · 방백형식과 대화형식으로 구분됩니다.

7. 차별화 : 새로운 해석 · 성경에 충실한 해석  
기존 해석에 의하면 이집트 지배자가 된 요셉이 형제들과 재회를 맞이할 때, 여러 가지 일을 한 이유는 형들을 용서할지 여부를 시험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해석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해석을 할 경우, 이야기 흐름이 대단히 부자연스럽게 되고 맙니다. 이에 대해 본서는 새로운 해석, 보다 진실에 가까우리라 여겨지는 해석을 시도하였습니다. 이 책을 통하여 많은 분들이 한 번이라도 더 성경을 펼쳐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카호중앙교회(일본) 홍성필 목사  
[ikahochurch@gmail.com](mailto:ikahochurch@gmail.com) <http://www.ikahochurch.com>  
일본 복음화를 위한 선교후원 : KB국민은행 079-21-0736-251

성경소설

요셉의 재회

The reunion of Josep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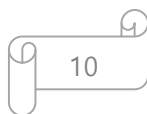
홍성필 목사

일본 군마현 이카호중앙교회

[ikahochurch@gmail.com](mailto:ikahochurch@gmail.com)

<http://www.ikahochurch.com>

이카호중앙교회(일본) 홍성필 목사  
[ikahochurch@gmail.com](mailto:ikahochurch@gmail.com) <http://www.ikahochurch.com>  
일본 복음화를 위한 선교후원 : KB국민은행 079-21-0736-251



이카호중앙교회(일본) 홍성필 목사  
[ikahochurch@gmail.com](mailto:ikahochurch@gmail.com) <http://www.ikahochurch.com>  
일본 복음화를 위한 선교후원 : KB국민은행 079-21-0736-251

## 요셉의 재회

### 목차

#### 인물소개

- 제 1 장 결단 --- 재회를 앞둔 요셉의 결단
- 제 2 장 갈등 --- 열 한 형제들의 갈등
- 제 3 장 고뇌 --- 야곱의 고뇌
- 제 4 장 의문 --- 열 한 형제들의 의문
- 제 5 장 추궁 --- 추궁 당하는 요셉
- 제 6 장 순종 --- 요셉의 순종

이카호중앙교회(일본) 홍성필 목사  
[ikahochurch@gmail.com](mailto:ikahochurch@gmail.com) <http://www.ikahochurch.com>  
일본 복음화를 위한 선교후원 : KB국민은행 079-21-0736-251

## 인물소개

★표 : '요셉의 재회' 등장인물

아브라함 : 믿음의 조상이라 여겨지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가나안 땅으로 향했다.

사라 : 아브라함의 아내

하갈 : 사라의 여종

이스마엘 : 아브라함과 하갈의 아들

이삭 : 아브라함과 사라의 아들

리브가 : 라반의 여동생, 이삭의 아내

라반 : 리브가의 오라버니

★야곱 : 이삭과 리브가의 아들

레아 : 라반의 장녀, 야곱의 아내

라헬 : 라반의 차녀, 야곱의 아내

실바 : 레아의 여종

빌하 : 라헬의 여종

야곱과 레아의 자녀 :

★르우벤①, ★시므온②, ★레위③, ★유다④,

★잇사갈⑨, ★스블론⑩, 디나(딸)⑪

야곱과 라헬의 아들 : ★요셉⑫, ★베냐민⑬

야곱과 실바의 아들 : ★갓⑦, ★아셀⑧

야곱과 빌하의 아들 : ★단⑤, ★납달리⑥

※숫자는 항렬

★사브낫·바네아(요셉과 동일 인물) : 이집트 총리

★아스낫 : 요셉의 아내

★통역

★경비병 1, 2, 3

★총리의 청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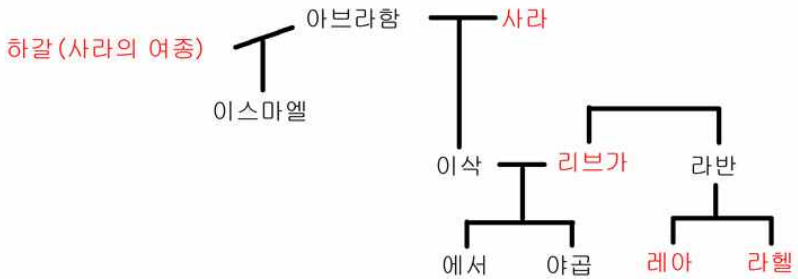
★병사 1, 2, 3

(통역과 총리의 청지기는 일인이역 가능)

(경비병 1, 2, 3 과 병사 1, 2, 3 은 일인이역 가능)

## 아브라함 · 이삭 · 야곱의 계보

(붉은 색은 여성)





이카호중앙교회(일본) 홍성필 목사  
[ikahochurch@gmail.com](mailto:ikahochurch@gmail.com) <http://www.ikahochurch.com>  
일본 복음화를 위한 선교후원 : KB국민은행 079-21-0736-251

## 제1장 결단

### - 재회를 앞둔 요셉의 결단

등장인물 :

사브낫·바네아(요셉) : 이집트 총리

장소 :

이집트 총리 집무실

안 만나겠소. 안 만나겠소이다. 안 만난다 하지 않았소. 내가 왜 그들을 만나야 한단 말이오. 이 보시게 아스낫. 당신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 하시겠는가. 내가 그들을 만나서 무슨 말을 하라는 것이오. 단돈 몇 푼 받고 식량을 나누어주기라도 하라는 말이오? 나는 그리 할 수 없소이다. 내가 저들한테 어떠한 수모를 당했는지, 당신도 알지 않소이까.

내 고향 가나안. 내가 생을 얻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을 받으며 살았던 그리운 내 고향. 내게는 어머니가 넷이 있었네. 레아와 그의 시녀 실바, 라헬과 그의 시녀 빌하. 계보 상으로는 모두 내 어머니이고 그 분들이 낳은 자식들은 모두 내 형제인 셈이지. 하지만 나를 낳아주신 진정한 어머니는 라헬 한 분뿐. 너무나도 아름답고 지혜로운 분이셨네.

이는 내 어머니라서 하는 말이 아닐세. 지금까지 몇 번이고 말해오지 않았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어머니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할 수 있었네. 아무리 레아 어머니님이 우리 어머니의 형님이라 해도, 그 누구도 내 어머니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을 방해하지는 못했네. 아버지 야곱과 어머니 라헬과의 사랑은 이 세상에서 가장 신성하고 아름다운 사랑이었지. 저 하늘 위의 천사라 하더라도 어찌 그 사랑을 막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레아, 실바, 하물며 빌하 어머니님이 자식을 모두 열한 명이나 낳으시는 동안, 가엾게도 내 어머니는 자식을 얻지 못했었지. 이런 것을 두고 하늘이 평등하다고 누가 말한다면, 나는 그 입에 저주를 퍼붓고 싶었을 걸세. 평등? 그런 말은 그리 쉽게 입에

답는 법이 아닐세. 자신의 시녀까지 아들을 얻었건만, 아무리 아버님의 사랑을 독차지했다 하더라도 아이를 가질 수 없다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어머니는 나를 잉태하시고 낳으셨네. 얼마나 기뻐하셨겠는가. 아버지에게는 많은 자식들이 있었으나, 나는 모든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살았네. 온 천하가 다 내 것이었지. 아침에 눈을 뜨고 밤에 잠들 때까지, 나는 먹는 것 입는 것 모두가 아버지의 사랑과 어머니의 기쁨으로 흠뻑 젖어있었다네.

십여 년 후, 어머니는 다시 아이를 가지셨지. 어머니가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부터 아버지도 너무나 기뻐하셨네. 황공하옵게도 폐하께서 하사해주신 내 이름은 ‘사브낏·바네아’이지만, 내 어

머니가 붙여주신 이름은 요셉일세. 요셉, 요셉…….  
이는 ‘더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이름일세. 하나님께서 아들을 더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라네.

어머니는 나를 낳으시고도 만족을 못하셨지. 그도 그럴 것이, 레아 어머니는 자식이 일곱이고, 실바 어머니와 빌하 어머니도 자식이 둘 인데, 우리 어머니가 나 하나로 만족하실 리가 없지 않겠는가. 그리고 십여 년이 흐른 후에 마침내 다시 아이를 가진 것일세. 내 이름에 담겨진 기도가 드디어 성취되는 순간이 온 것이외다. 이제 아버지도 기력이 쇠하셔서 마지막 기회였다는 것을 분명 아셨겠지.

그런데 어찌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그러나 세 겹에서 헤브론으로 가는 그 길에서 아이를 낳으실

때에 내 어머니는 비명에 돌아가시고 말았네. 아아!  
그토록 바라셨던 내 아우를 제대로 한 번 안아보지  
도 못한 채 눈을 감아야 했던 그 심정을, 그 원통함  
을 누가 알아주겠는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 어머니에게로 향했던  
아버지의 사랑은 나와 내 동생 베냐민에게로 향하  
게 되었네. 아버지가 나와 내 동생 베냐민에게 주시  
는 눈빛과 말씀의 끝에는 항상 어머니가 계셨지. 나  
는 그런 아버지에게 보답하려고 최선을 다했다네.  
아니, 그것은 단지 아버지 사랑에 부응하고자 한다  
는 그런 아름답고 낭만적인 것만은 아니었소. 나이  
어린 내게 있어서는 부모님과도 같은, 아니 오히려  
더 큰 권위로 군림하는 형님들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한 내 생존전략이었네. 레아 어머님한테서 태어난

형제들, 실바로부터 태어난 것과 아셀, 빌하로부터 태어난 단과 납달리, 그들은 어딜 가든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그들의 어머니들이 지켜주고, 형제들도 서로를 위하고 의지하지만, 내게는 지켜줄 어머니 안 계시지 않는가. 나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오직 나 자신이었소. 어디 그 뿐인가. 나는 나뿐만이 아니라 나이 어린 베냐민까지도 지켜야 했네. 이 상황에서 내가 의지할 곳이 아버지를 제외하면 누가 있겠는가. 나는 아버지의 눈밖에 나지 않기 위해 무엇이든 다 했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다 했었네. 오죽하면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일러바치기까지 했지 뭐냐. 치기 어린 짓이었지만, 나는 사활을 걸고 하루하루를 살았소.

그래, 그것은 어머니가 살아계셨을 때와는 정반대

의, 말하자면 아침에 눈을 뜬 순간부터 밤에 눈을 감을 때까지 나는 살기 위해 발버둥을 쳤고 베냐민을 지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소. 아버지의 사랑을 갈망했고 애걸했소. 눈밖에 나지 않기 위해 몸부림을 칠 수밖에 없었던 말ियो.

하루는 내가 꿈을 꾸었네. 내가 형들과 함께 밭에서 곡식 단을 묶고 있었더니, 내 단이 높이 들리고 형님들의 단이 내 단을 보고 둘러서서 절을 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또 하루는, 꿈속에서 하늘에 떠 있는 해와 달과 열한 개의 별들이 나한테 절을 하더군. 그 꿈들이 너무도 신기해서 내가 그만 아버지와 형님들에게 말을 하고 말았다네. 생각이 짧은 짓이었다는 사실을 당시는 알아차리지 못했었지.

사랑하는 나의 아스낫이여. 이런 나를 교만했었다



고, 어리석었다고 당신은 원망할 텐가? 고맙소. 나는 당신의 그와 같은 자비로운 마음에 위로를 받습니다. 의지할 곳도 사람도 없는 객지에서, 폐하의 하해와 같은 은혜와 당신의 아름다운 마음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오.

하지만 나와 피를 나누었다는 형님들은 그와 같은 인정도 사정도 없었던 것 같소. 내가 열일곱 되던 해, 그 날도 나는 아버지와 함께 있다가, 형들이 잘 있는지를 보고 와서 알려달라는 청을 듣고 집을 나서게 되었네.

그들이 멀리 보일 때쯤, 나를 목격한 형님들의 말 소리가 들려 오더군. 내용인즉 무언가를 구덩이에 던진다는 것이오. 그게 설마 나를 두고 하는 말인 줄 내가 어떻게 알았겠소. 내가 다가가자 갑자기 내

가 입고 있던 채색옷을 벗기고는 구덩이에 던져버리지 않았겠소. 아아, 그 옷은 아버지의 사랑 그 자체였소. 사랑의 징표였단 말이오. 나는 알아차릴 수 있었소. 그 옷이 벗겨지는 순간, 내 아버지의 사랑이 떠나가는 것을 나는 느낄 수 있었소. 더 이상 아버지가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말이오.

내가 모든 것을 포기했을 때 유다 형님 목소리가 들려왔네. 나를 살려주는 대신 노예상인한테 팔아버리겠다는 것이 아닌가. 나는 도대체 일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었네. 구덩이에서 나를 끌어올리더니만 내가 입을 뿔 새도 없이 강제로 낙타에 실려 어디론지 끌려가고 말았소.

그리고 나는 어딘가로 팔려갔네. 그곳이 황제폐하

의 친위대장 보디발 장군 댁이었지. 나는 겁에 질렸  
있소. 이집트 말도 모르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지도 몰랐으니 말ियो. 그러나 보디발 장군은 자비  
로우셨네. 열일곱밖에 안 되는 어리고 비천한 노예  
에 불과한 나를 홀대하지 않으셨소. 아니, 홀대는커  
녕 얼마 뒤에는 집안 일을 모두 내가 관리하도록  
해주셨다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그 은혜에  
보답해드리기 위해서라도 나는 열심히 일했소. 넓은  
저택을 정비하고, 가족 분들을 보살피기 위해 식량  
창고 관리와 청소, 빨래, 요리에 자금관리까지 모든  
것을 내게 일임하셨소. 나는 새벽에 눈을 뜨고부터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열심히 일했네. 지금 생각  
해보면 어떻게 그리도 열심히 일했는지 모를 정도  
라오. 노예신분에 지나지 않았던 나한테는 꿈도 희

망도 없었소. 다만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여호와 하나님만을 생각했네.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시오. 내가 무슨 천성이 선하거나 신실해서가 아니오. 이국땅으로 끌려온 내가, 어머니는 이미 세상을 떠나고 아버지는 생사조차 모르는 내가, 피붙이 형제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노예로 팔려갔던 내가 의지할 것이 무엇이였겠소.

야곱의 하나님, 나를 사랑해주셨던 아버지가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던 이유를 묻는다면, 그것은 내가 아버지를 믿고 의지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오. 나를 그토록 아꼈던 아버지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 리가 없지 않겠는가. 물론 아무런 근거도 눈에 보이는 표적도 없었네만, 나는 내 아버지 야곱의 하

나님이 없다면 단 하루도 버티지 못했을 것이네.

기쁨? 행복? 평안? 그렇지. 그런 것을 바랄 틈도 없었소. 그저 먹을 걱정 없고 비바람을 피할 수단 있었다면 그것으로 나는 족했었소. 장군이 내게 베풀어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전부였지.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내 기쁨과 내 행복과 내 평안을 얻는 길이라고 생각했소. 그런데 어찌 그런 말도 안 되는 봉변이 일어난단 말이오.

다름아닌 보디발 부인 말이외다. 입에 담기조차 민망하오. 생각해보시게. 비천한 나를 믿고 내게 기쁨과 행복과 평안을 누리게 해주신 자비로운 장군을 내가 어찌 실망시켜드릴 수가 있겠소. 보디발 부인이 나를 침실로 유혹했을 때 그 손을 뿌리치고

나왔으나, 나를 미워한 부인은 결국 어이없는 거짓으로 장군의 화를 불러오고, 나는 감옥에 갇히고 말게 되었소. 내가 잠시 누렸던 평화는 고작 10년도 가지 못했네. 이럴 수가 있겠는가.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단 말인가. 내가 주인의 재산을 단 한 푼이라도 속인 적이 있는가. 주인의 재물을 탐내기라도 한 적이 있었는가 말시오. 그렇다면 내가 내 이웃을 해한 적이 있었던가. 내가 죄를 지은 적이 있었느냐는 말시오. 나는 내 아버지 야곱의 하나님 이름을 걸고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네. 추해도 그런 적이 없소. 그러나 그게 다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그 동안 노예신분으로 있으면서 조금씩 쌓아왔던 나에게 대한 믿음과 신뢰가 한 순간에 무너지고 말았소. 내가 무슨 큰 것을 바랬는가. 그런 나를 감옥에

던져 넣는 것이 야곱의 하나님이란 말인가. 그런 허황된 하나님을 내 사랑하는 아버지가 섬겼다는 말인가. 나는 혼란스러웠소. 그러나 혼란스러움을 달랠 겨를이 없더군. 나는 인간이 아닌 짐 꾸러미처럼 무참히 감옥 속으로 던져졌네. 참으로 웃기지 않는가. 장군 댁에 살면서, 그것도 노예로 살아가면서 나는 정말 작은 것만을 바랬네. 내 몸뚱이 하나 부지할 것만을 바라면서 충실하게 살아가려고 했었지. 그런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그것마저도 빼앗아가시는가. 그 때는 마치 미천한 내가 가지고 있던 보잘것없는 빵 한 조각마저 빼앗긴 심정이었소. 몇 년 동안 내 힘으로 이루어왔던 그나마 작은 노력이 보상은커녕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순간이었네. 암담하기 이를 데가 없었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루

어놓은 내 노력이 허사가 돼 버린 마당에, 이제 더 이상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몇 날 며칠을 나는 감옥 담장을 바라보며 실성한 인간처럼 살았었소.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은 채 그저 하라는 노동만을 하면서, 누군가가 나를 때리면 아무런 생각 없이 맞곤 했었네. 더 이상 나는 내 삶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었지요. 도대체 무슨 기력이 있겠소이까. 내가 나와 내 동생을 지키기 위해 아버지의 사랑을 갈구하였으나 형님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 노예로 팔려버리고 말았소. 이제 명백해지지 않았는가. 내 아버지가 섬기던 신이 있다면 그는 바로 내 불행을 바라는 이요, 내 앞길을 가로막는 방해자요, 내 노력을 짓밟아버리는 무자비한 신이라고 확신했네. 나는 어머니를 잃고 아버지



도 잃었으며 형님들도 잃었고, 마지막 희망으로 남  
있던 내 아버지가 섬기던 신 여호와 하나님도 잃었  
네. 그런 내가 살아있는들 무슨 소용이요 죽은들 무  
슨 상관이겠는가. 나는 오로지 죽는 날을 고대하게  
되었었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두 가지 생각이 떠올랐소.  
하나는 내 꿈이요. 형님들의 곡식 단이 내 곡식 단  
을 향해 절을 하고, 해와 달과 열한 개의 별들이 나  
에게 절을 하던 꿈 말일세.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은  
헛된 꿈이 아니요. 반드시 성사될 꿈, 그러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꿈이었다는 마음이 들었네. 하나님께서  
나를 증오하셔서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한다고는 믿  
을 수가 없었소. 생각해보시오. 만약 나를 증오한다  
면 먼지보다도 벌레보다도 못한 나를 죽이는 일은

이 세상 그 어떤 일보다 쉬운 일일 것ियो. 그렇잖  
소? 나를 죽이기로 작정했다면 보디발 장군의 손에,  
아니, 이집트에까지 오기도 전에, 그 잔악무도한 형  
님들의 손에 의해 벌써 옛날에 죽고 말았을 것ियो.  
그런데도 아직까지 몇 번이고 고비를 넘어가며 살  
아 있는 것을 보면, 이것 또한 신의 뜻이 아닐까 하  
는, 나를 인하여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뜻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소. 그렇게 한 번  
마음을 먹고 보니 보이는 세상도, 나를 대하는 주변  
환경들도 조금씩 변하더군. 보디발 장군이 나를 정  
말로 증오했다면 벌레보다도 못한 노예인데 언제든  
죽일 수도 있는 노릇 아닌가. 허나, 나를 죽이지 않  
았다네. 나를 아껴주고 있다는 사실을 조금씩 알게  
된 걸세.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하는 말이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보고 싶어하는 이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소. 그게 누구겠는가. 그렇소, 바로 베냐민이오. 아아, 베냐민! 지금 이 날까지 한 번도 잊지 못한 내 사랑하는 동생 베냐민! 나를 없이하려고까지 할만큼 증오했던 그들이 베냐민을 또 어떻게 했을지! 아아, 생각만해도 끔찍합니다! 살아나 있는지, 아니면 이미 그들의 흥포에 찢기고 말았는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어머니의 아들. 이 세상에서 가장 진한 피와 살로 묶인 형제,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아아, 베냐민! 나는 너를 지켜야 하거늘, 내 삶의 이유는 오직 너를 지키는 것이었거늘, 이 못나고 죄 많은 너의 형은 이곳 떠나면 타향에 있으면서 너의 소식조차 듣지 못하고 있구나. 베냐민! 나를 용서해다오! 살아 있느냐! 얼마

나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겠느냐! 베냐민! 베냐민!

나는 또다시 소망을 갖기로 했소. 어떻게 해서든 살아서 베냐민을 다시 한 번 만나보고 싶었소. 설령 꿈이 허튼 것이라 해도 좋았소. 한 번만 더 베냐민만 만날 수 있다면, 베냐민의 손을 잡을 수만 있다면, 베냐민을 이 품으로 꼭 안아볼 수만 있다면, 나는 이 감옥생활도 견딜 수 있을 것만 같았소. 그러기 위해서는 이대로 있을 수 없소. 무엇보다도 감옥에서 나가야만 했네. 하지만 그게 언제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 아버지 야곱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언제나 항상 나와 함께 해주신 것 같네. 아니, 그렇다고 밖에는 할 수 없지 않는가. 내가 미

천한 노예로 팔려왔을 때에도 보디발 장군 댁에 있으면서 내가 하는 일을 모두 형통하게 해주셨네. 그리고 하물며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간수장이 내게 모든 업무를 맡겨준 덕분에 나중에는 다른 수감자들보다도 많은 자유를 누릴 수가 있었소. 어디 그 뿐인가. 내가 있던 감옥은 특별했소. 보디발 장군 저택 안에 있는 그 감옥은 왕의 죄수들이 수감되는 곳이었기에, 그들로부터 언어와 문화, 지식 등 오히려 보디발 장군댁에 있을 때보다도 폭넓은 지식을 쌓을 수가 있었다네.

내가 예전에 말을 하지 않았었나? 하루는 매우 흥미로운 일이 있었는데 말이오. 내가 있는 감옥에 두 관리가 수감되었는데, 그 분들이 들어오던 날에 장군께서 내게 직접 지시하시기를, 그 두 분을 나더

러 보살펴드리라는 걸세. 그 양반들은 하나는 폐하의 술 담당관이고 또 하나는 폐하의 요리 담당관이었소. 당신도 아시다시피 두 사람 모두 폐하를 가까이에서 모시는 분이기에 평소라면 얼굴조차도 보기 힘든 분들이지 않나. 하지만 지금은 죄수 신분이고, 이곳 감옥은 나를 믿어주는 간수장 덕분에 내가 모두 관리하고 있었으니, 머지않아 그들과는 아주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네.

나야 노예로 팔려와서 온 것만도 모자라 감옥에 갇힌 신세이지만, 그 분들은 최고관리였음에도 불구하고 갇힌 분들이니 얼마나 고달프셨겠는가. 이는 나중에 알게 되었으나, 죄목이 대역죄라 하지 않던가. 그야말로 목숨이 경각에 달렸다는 것은 본인들도 잘 알고 계셨을 것이요. 내가 돌봐드리면서도 참

딱하기 짝이 없더군. 볼 때마다 말없이 어두운 표정으로 죽는 날만 기다리니 무슨 낙이 있었겠는가. 당연하다면 당연한 노릇이겠지. 희망이 없는 세월이었을 것이요. 허기사 희망이 없다고 하면, 그 때 당시나 또한 마찬가지였지만 말일세.

그러던 어느 날 아침에 그 분들 옥에 들어가 보니 수심이 가득하고 둘 모두 얼굴색이 잿빛이 아니었겠소. 나는 좀 의아했네. 만에 하나 형 집행 소식이 있다면 여기를 맡고 있는 내가 먼저 알았을 터인데, 전혀 그런 말도 없었는데도 두 분이 그러고 계시니 묘하지 않았겠소. 하도 이상하기에 그 분들께 여쭙봤더니, 간밤에 두 분이 비슷한 꿈을 꾸셨는데 그게 도무지 무슨 꿈인지 모르겠다는 것이요. 하지만 나에게는 그 때 확신이 있었소. 내가 어렸을

때 쯤 꿈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라면, 이 분들이 쯤 꿈 또한 하나님이 보여주셨을 것이라는 확신 말ियो. 그래서 내가 그 분들에게, 꿈 해석은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그러자 술 담당관께서 하시는 말이, 눈 앞에 포도 나무가 보이는데, 그 포도나무에 나뭇가지 세 개가 있고, 그 가지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그리고 포도 송이가 탐스럽게 열려있었다는군. 그런데 자기 손을 보니 폐하의 술잔을 들고 있었기에 그 포도열매를 따서 그 잔에 즙을 짜고는 폐하께 바쳤다는 꿈이라고 하더이다.

내가 그 꿈을 들으니, 이는 분명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라는 마음이 들었다네. 나는 해몽이라는 것에 대해 배운 것이 없고 들은 바도 없지만, 그 꿈을 듣



는 순간 모든 것을 알 수 있었소.

술 담당관이 꿈은 틀림없이 회복을 의미하는 꿈이었소. 자유를 회복하는 꿈이었지. 솔직히 말하자면 나는 망설였네. 만일 내가 해 드린 꿈 해석대로 되지 않고 일이 안 좋게 되면 큰 일이 아니잖소.

그러나 주저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네. 술 담당관의 수심에 가득 찬 얼굴, 나를 믿고 꿈을 말해주신 그 신뢰를 저버릴 수는 없지. 그리고 무엇보다 내 마음 속에 끓어오르는 확고한 자신감이 내 입을 열어버리고 말았네.

그 분이 보았다는 나뭇가지 세 개는 3일을 상징하는 것이니 3일 안에 당신은 누명을 벗고 복직될 것이라고 말씀 드렸네.

그러자 불안감에 사로잡혔던 술 담당관의 얼굴이

조금씩 펴지기 시작하더군. 그럴 만도 하지. 자신이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나의 확신에 찬 말은 큰 힘이 되었을 걸세.

나는 그 분에게 부탁하는 것도 잊지 않았네.

“제가 말씀 드린 대로 3일 내에 이곳에서 석방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완전히 회복되고 권위와 영화도 되찾게 되십니다.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신 후에는 저를 떠올려 주십시오. 이 요셉은 그저 히브리 땅에서부터 끌려온 노예일 따름이옵니다. 보디발 장군을 섬기고 있을 때에도 단연코 옥에 갇힐만한 일을 저지른 적이 없습니다. 여기서 나가게 되신 날에는, 저에 대해서 폐하께 진언을 해주셔서 부디 나갈 수 있게만 해주셨으면 하옵니다.”

내가 얼마나 간곡히 부탁을 했는지 상상이 가는  
가. 그야말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열과 성을 다해  
서 당부를 했네.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이지 않는가.  
내가 형님들로부터 꾸지람을 당할 만한 짓을 했  
나. 목숨을 빼앗길 만한 악한 짓을 했냐 말일세.  
노예로 팔려가야 할 만한 짓을 무엇 하나 한 적이  
없지 않는가. 보디발 장군님을 섬길 때도 마찬가지  
네. 나는 사모님에 대해서 음탕한 마음을 품은 단  
한 번도 없소. 이는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알고 계  
실 것이오. 이 세상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께서서는 적어도 내 가슴 속을 알고 계실 것이  
외다.

되돌아보면 제 삶은 온통 누명이었소. 참으로 불  
행하기 짝이 없는 인생이지. 계획했던 일들은 그 무

엇 하나 된 적이 없었네. 그 누가 이처럼 노예로 팔려갔습니까. 그것도 피를 나는 형제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간 자가 어디 있단 말인가.

그것도 부족하여 이제는 또다시 누명을 쓰고 이처럼 옥에 갇힌 신세이네. 한심하기 짝이 없소. 내 인생 중에서 행복은 17세 되던 날까지 아버님의 사랑을 받던 것으로 끝이 난 것인 줄 알았소.

하지만 이 요셉. 그럴 수는 없지 않는가. 거기서 인생을 끝낼 수는 없지 않았느냐 말일세.

나는 술 담당관에게 매달렸네. 소망을 걸었지. 제발 나를 기억해달라고, 제발 나를 잊지 말아 달라고, 제발 나를 나가게 해달라고, 제발 나를, 제발 나를.....

그런 절박한 제 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술 담당

관은 제 꿈의 해석이 좋은 것을 듣고는, 알았다, 알았다며 싱글벙글 웃고만 있었네. 참으로 야속하기 이를 데가 없더군.

그러자 이 말을 옆에서 듣고 있던 요리 담당관도 자신이 꾸는 꿈을 들어달라는 게 아닌가. 아마도 술 담당관의 해석이 좋았기 때문에 자신도 마음이 들떴는지도 모르지. 그런데 그의 꿈이 술 담당관이 꾸는 꿈과 비교해보면 참으로 묘하더군. 아니, 묘하다는 표현은 옳지 않소. 지극히 흥측한 느낌이었소. 요리 담당관 말에 의하면, 그의 꿈속에서도 마찬가지로 ‘3’이 등장했네. 자기 머리에 위에는 세 바구니가 올려져 있는데, 가장 위에 있는 바구니에는 폐하를 위해 만들어진 여러 음식물들이 들어 있어, 새들이 날아와 자신의 머리 위에 있는 바구니에서 그것들을

쫓아먹더라는 것이요. 나는 이 말을 듣고 자칫 쓰러질 뻔하였소. 어쩌면 이리도 끔찍한 꿈일 수가 있겠는가.

나는 절망했소. 만약 술 담당관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면 요리 담당관에게 부탁하려 했던 내 실낱같은 소망은 허무하게 사라져버린 것이요. 술 담당관의 꿈이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요리 담당관의 꿈은 파멸이었기 때문이요. 온몸이 떨려오더군. 바로 눈앞에 있는 사람에게 죽음과 절망과 파멸을 전해야 했으니 말이요.

이를 그대로 전해야 할지 어떻게 할지 망설였으나, 그런 생각을 할 겨를도 없이 내 입에서는 꿈의 해석이 나오고 있었다네.

당신 머리에 있었다고 하는 세 바구니는 역시 3

일을 가리킵니다. 지금부터 3일 안에 당신은 나무에 달리게 되고, 새들은 당신의 살을 쪼아먹을 것입니다.

아아, 참으로 끔찍하더군. 온몸에 소름이 돋아오지 않는가.

나는 말을 마치고 당황했네. 내 힘으로는 그를 구해줄 수도, 하물며 3일이라고 하는 고통의 나날을 짧게 해줄 수도 없었으니 말ियो. 나는 곧 후회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지. 녀를 잃고 있는 그 양반을 바라보고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나는 도망치듯 거기서 빠져 나오고 말았소. 좋은 소식을 기대하고 벌어진 입이 일그러지기 시작하더니 절망의 밑바닥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어두운 눈빛을 본 것이 그날요리 담당관을 본 마지막 모습이었네.

그리고 3일이 지났소. 감옥에 갇히고 난 후, 아니, 이집트로 끌려온 이후 그 3일은 대단히 특별했소. 그렇지. ‘기다림’이라는 것을 내가 처음으로 맛본 날이라네. 아마도 태어나서 처음으로 ‘기다림’이라는 경험을 해본 날이었는지도 모르겠더군.

철이 든 이후 나 자신의 인생은 거기에 없었소. 노예라는 신분인 내게 무슨 힘이 있었겠소. 아무런 결정권도 아무런 선택지도 없었지.

자유를 배우기 전 복종을 배웠소. 웃음을 배우기 전 주인 안색을 살피는 것부터 배웠네. 입 열기를 배우기 전 입을 다물고 귀 열기를 배웠소. 내 주장을 하기보다도 뒤로 물러서는 것부터 배웠던 것일세. 모든 것은 강제로 시작해서 강제로 끝났지. 나 자신을 생각하기에 앞서 내 주인님을 위해 움직여



야 했었기에 말이오.

그런 나에게 ‘기다림’이란 사치였네. 내일이 있을 지도 모르는 마당에 어찌 내일을 꿈꿀 수가 있었겠는가.

‘기다림’이란 미래를 뜻하는 것.

‘기다림’이란 소망을 뜻하는 것.

‘기다림’이란 자유를 뜻하는 것.

그러나 미래도 소망도 자유도 없던 나는 기다림이 용납되지 않는 삶, 기다림을 잊었던 삶이었지. 그러나 술 담당관의 꿈을 듣고 3일 동안은 ‘기다림’이라는 쾌감을 맛볼 수 있었던 귀중한 시간이었네.

기다린 이유를 말하자면, 내 꿈의 해석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확인하고 싶어서였소. 어렸을 때 꿈은 아직 달성되지 않았네. 어떻게 달성될 것인지,

언제 성취될 것인지도 알 수 없소. 당시는 솔직히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꿈인지, 그것이 아니라면 그저 이슬이나 안개처럼 사라질 부질없는 신기루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었네.

그러나 이번에는 아닐세. 3일이란 말이오. 술 담당관의 꿈도 요리 담당관의 꿈도 모두 ‘3’을 가리키고 있었소. 그 꿈의 해석에 대해서는 물론 확신이 있었지만, 실제로 어떻게 되는가를 지켜보고 싶었던 것이외다.

이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닐세. 이번 꿈이 해석대로 성취된다면 나는 다시 한 번 ‘기다림’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오. 술 담당관의 꿈 해석이 진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라면, 먼 옛날, 히브리 땅에서 아버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꾸었던 꿈도 하

나님이 주신 꿈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있게 되네.

아아, 또다시 기다릴 수 있소. 그렇지. 기다릴 수 있소. 기다릴 수 있게 되단 말이오. 미래를, 소망을, 그리고 자유를 얻을 길이 열리는 것이라네.

내가 기다린 또 하나의 이유는 술 담당관과 맺었던 약속 때문이오. 내 해석대로 그 분들의 운명이 결정된다면 ‘기다림’은 현실이 되네. 이 두 눈으로 보고 이 손으로 만질 수 있는 현실이 되다는 게 아닌가. 요리 담당관에게는 죄송한 말이지만, 나는 그가 어떻게 되더라도 관심이 없었네.

물론 그 분이 석방된다면 영터리해석을 했다면서 불쾌해하겠으나, 나는 이미 감옥에 갇힌 신세이오. 이 이상 어떻게 할 수도 없으시겠지.

문제는 술 담당관이오 그 분은 나를 버리지 않으

리라 믿고 있었네.

내 해석대로 3일 후에 이 곳을 나갈 수 있다면,  
그리고 예전처럼 폐하 곁에서 모실 수가 있게 되다  
면, 그 분은 틀림없이 나를 내보내주실 것일세.

나는 믿었지. 그런 마음으로 3일을 기다렸소. 한  
편으로는 두렵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기대에  
잠을 설치기도 했었다네.

그리고 드디어 그 날이 왔네. 평소와 다름 없는  
아침이었지. 간수장으로부터 신임을 얻고 있던 나는  
어느 정도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대신, 청소나 식사,  
그리고 여러 업무 등을 모두 처리할 필요가 있었네.  
그 날 이후 두 분들과는 가급적 얼굴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했었소.

수감된 분들은 대부분이 고급관료였지. 비록 지금

은 갇혀있는 몸이지만 무죄가 판정된다면 언제든지 높은 관직으로 회복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진 분들 이오.

그래. 그 분들은 소망을 가지고 있었네. 아무리 내가 석방된다 하더라도 일개 노예에 지나지 않소. 말하자면 석방된 노예에 불과한 신분이지만, 그 분들은 달라. 무죄 판결을 받아내기만 하면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게 되는 것이오. 그들은 입버릇처럼 말 하더이다. 내가 여기서 나가만 하면. 여기서 나가기만 하면.....

그러나 나는 알고 있었소. 그들은 반드시 언젠가는 여기서 나가게 되오. 단, 나간 다음에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보장은 없네. 밖으로 나간 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사람도 셀 수없이 봐왔지.

그날 저녁, 폐하께서 잔치를 벌이신다는 소식이 들어왔네. 아무 일도 없이 하루가 지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뇌리를 스쳤을 때, 감옥 바깥이 소란스러워졌소. 간수장이 갑자기 불러나가더니 재빨리 돌아와서 내게 말을 했네. 폐하가 술 담당관과 요리 담당관을 데려오라는 명을 내리셨다고 말이오.

드디어 그 때가 온 것이오. 나는 서둘러 둘이 갇혀 있는 방으로 향했지. 감옥 문을 열고 그 앞에 서서 조용히 말했네.

“폐하가 두 분을 부르십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두 담당관의 표정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구려. 기대에 찬 술 담당관과 두려움에 몸서리치는 요리 담당관이 나를 보고 있었지. 내가 그 분들에게 했던 말, 이 말은 똑같은 말이라 하

더라도 한 사람한테는 석방을 알리는 말이었겠으나, 다른 한 사람한테는 사형집행 명령으로 들렸을 것이니 말이오.

두 사람을 데리고 나와서는, 출입문 앞에 서서 대기하고 있던 병사에게 인계하고 난 다음, 나는 그들의 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고 있었네.

결과는 통쾌하리만큼 제 해석대로 되었소. 들은 바에 의하면 많은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술 담당관은 혐의가 풀리고 예전 벼슬로 복직할 수 있었으나, 반면에 요리 담당관은 이번 사건에 대한 주범으로 밝혀졌다고 하더군. 나무에 달리게 될 때에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모르겠네. 다만 최후의 모습은 내가 해석했던 바와 똑같았다는 말만 전해 들었을 뿐이었소.

처형당한 요리 담당관은 딱했으나, 나는 술 담당관이 석방된 것이 더욱 기뻐소. 내가 그토록 신신 당부했으니, 이제 그가 나를 풀어주지 않겠냐 말일세. 그가 나가는 날에도 나를 잊지 말아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했었네. 그날 이후의 내 심정을 이해할 수 있었겠나? 이제 정말로 희망이 생긴 걸세. 어느 세월에도 나갈지도 알지 못했던 이 어두컴컴한 감옥에서 드디어 풀려날 수 있는 길이 열렸던 말이오. 나는 정말로 기뻐소. 이제 내 마음은 그 술 담당관이 석방되기 전과 석방되고 난 후를 두고 보면 완전히 달라졌네. 생각해보시게. 그저 죽지 않고 하루 하루 겨우 살아가는 것이 다였던 인생이오. 그게 바뀌었다는 게 아닌가. 내 인생 속에 ‘기다림’이 또다시 생겨난 것이오. 그래, 머지않아 술 담당관이 나



이카호중앙교회(일본) 홍성필 목사  
[ikahochurch@gmail.com](mailto:ikahochurch@gmail.com) <http://www.ikahochurch.com>  
일본 복음화를 위한 선교후원 : KB국민은행 079-21-0736-251

를 석방시켜줄 것이네. 희미하지만 여기서 나갈 수 있다는 한줄기 빛이 보였다는 말일세.

물론 그 후의 일은 알 수 없었지. 그 부인이 집에 그대로 있는 한 보디발 장군님 댁에 다시 들어갈 수야 없다고 생각은 했었네. 아마도 술 담당관이 어떻게든 해주시겠지. 분명 그 분이 어떻게든 해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는 걸세.

나는 그날부터 꿈을 꾸기 시작했네. 아니, 그것은 잠을 잘 때 꾸는 꿈과 비할 수가 없소. 내가 감옥에 서부터 나온 다음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꿈이오. 나는 우선 내 고향 가나안으로 돌아갈 결심을 했네. 나를 낳아준 가나안 땅으로, 나를 사랑해준 아버지 곁으로 가고 싶었소. 베냐민을 만나러 가고 싶었소. 솔직히 말하자면 나는 지금까지 내버려둔 아버지에

대한 사랑도 가나안 땅에 대한 미련도 없었네. 그저 내 속에 있었던 것은 베냐민에 대한 사랑이었소. 한 번이라도 좋으니 베냐민을 이 두 팔로 부둥켜 안아 주고 싶었던 말이오.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멀리서부터 바라볼 수만 있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좋소. 그것도 안 된다면 건강한지 어떤지 만이라도 알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기쁠까 생각했었다네.

술 담당관이 나가고 난 후, 나는 희망이 없는 무기수에서 희망이 있는 유기수로, 석방을 기다리는 신분으로 변했소. 나는 매일 술 담당관이 내보내줄 날만을 학수고대했네. 굳게 닫힌 저 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에 이제 더 이상 떨 필요가 없어졌소. 그 발걸음은 나를 나무에 매달기 위한 것이

아닌, 나에게 자유를 전해주는 발자국일지도 모를 일이 아닌가. 아아, 내 주위를 돌아보아도 전혀 바뀐 것이 없었으나, 희망을 갖게 되면 이토록 달리 보일까 하며 놀라곤 했네. 나는 하루하루가 즐거웠소.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즐기게 되었던 말일세. 잃고 있던 웃음이 되돌아왔소. 간혹 들르시는 보디발 장군님도 내 표정이 변했다고 말씀해주셨을 정도였소.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술 담당관으로부터의 소식도, 석방을 알리는 통고도 없이 시간만이 허망하게 지나가고 있었네. ‘기다림’이란 사람을 행복하게도 만들지만 가슴을 타 들어가게 만들기도 하니 이상하지 않은가. 아무리 기다려도 정적만이 있을 뿐. 나는 또다시 구덩이 속, 가나안 땅에서 내가 던져진

그 어두운 구덩이보다도 더욱 어두운 구덩이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만 같았소.

도대체 나를 이 어두컴컴한 감옥 안에 언제까지 가둬둘 작정이신가. 내게 꿈을 해석하게 하신 하나님은, 어쩌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한 하나님, 나무에 매달린 요리 담당관은 그렇다 치더라도, 술 담당관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신가 할 정도였다네. 안 그런가. 그들의 꿈에 대한 해석을 주신 분은 틀림없이 하나님이셨소. 이는 내가 단언할 수 있소. 하지만 나로서는 그저 해석을 해준 것으로 끝이라면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일하셨다는 말인가. 내 머리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을 찾을 수는 없었네.

한 마디, 단 한 마디라도 좋으니 술 담당관께 말

씀을 드리고 싶었소. 이 요셉을 잊으셨느냐고, 이 요셉을 진정 잊으셨느냐고 한 마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었소.

하지만 방법이 없었지. 속수무책이요. 여기에 계실 때에는 내 도움을 필요로 하고 계셨으나, 지금은 폐하를 바로 곁에서 모시는 지체 높으신 분이시고, 반면에 나는 모시고 있던 주인의 부인을 검탈하려 했다는 누명을 쓴 채로 투옥된 노예신분이지. 죄인인 나로서는 구름 위에 계시는 듯한 분을 뵈는 방법이 없었기에 그저 기도할 뿐이었소. 몇 번이고 몇 번이고 기도를 드리곤 했지. 그러나 현실 속에서도 꿈 속에서도 아무런 답도 보이지 않았네.

미래도 희망도 자유도 없소. ‘기다림’이라는 것은 아픔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는 나날

이였소. 나는 그저 ‘기다림’이라고 하는 아픔을 참아 내고 있었지. 마치 형들로부터 던져진 구덩이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을 때 느꼈던 무력감이 되살아났소.

그래도 죽으라는 법은 없더군. 기다림이라는 것이 고통이라면 이를 치료하는 약을 찾아낼 수가 있었소. 그것은 ‘망각’이오. 잊어버리는 것. 그래, 술 담당관도, 그 분과 맺은 약속도 모두 꿈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소. 술 담당관이 나를 잊으셨다면, 나도 잊을 수밖에 없지 않소이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오.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면 나도 잊으면 그만일세. 안 그런가. 망각은 언젠가 나를 평안하게 해주리라 믿기로 했네.

시간은 흘러가고 계절은 변해갔네. 감옥에는 술

이카호중앙교회(일본) 홍성필 목사  
[ikahochurch@gmail.com](mailto:ikahochurch@gmail.com) <http://www.ikahochurch.com>  
일본 복음화를 위한 선교후원 : KB국민은행 079-21-0736-251

담당관이나 요리 담당관 이후에도 수많은 사람들 들어오고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나갔소. 술 담당관처럼 회복된 사람들도 있었으나 요리 담당관처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네.

내 앞에는 반복되는 시간, 반복되는 계절, 반복되는 일상이 있을 뿐이었소. 하나님은, 그래, 하나님은 침묵을 지키고 계셨네. 그 침묵은 칠흑과도 같은 감옥의 어둠보다도 깊게만 느껴졌소.

그러나 운명의 날, 그 날은 갑자기 찾아왔소. 간수장이 서둘러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네. 감옥 안에 그가 외치는 소리가 울려 퍼졌소. 놀랍게도 폐하께서 나를 부르신다는 것이 아닌가. 이 요셉을 찾고 계시다는 말일세. 나는 상상도 할 수 없었소.

내가 기뻐했을 것 같은가. 아니네. 처음에는 얼마

나 두려웠는지 모르오. 당연하지 않은가. 술 담당관이 나를 살려주신다면 그 분께서 부르시지 않겠는가. 만일 술 담당관께서 내 억울함을 폐하게 아뢰어 주셔서 내가 석방된다 하더라도 폐하게오서 직접 나를 부르실 리가 없소. 그렇지 않았다면 보디발 장군께서 명령이 내려왔을 수도 있었겠지.

그런데 갑자기 폐하게오서 직접 나를 찾으신다니 어떻게 된 영문이지 몰랐었네. 뜻하지 않은 전개에 나는 놀랐소. 하지만 그렇다고 거역할 수는 없지 않은가. 나는 이미 기다림도 소망도 잃어버린 상태였소. 내가 어떻게 생각하든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망각에 의해 나는 기쁨이나 공포마저도 모두 잃어버린 것만 같았소. 거기서 나온 후 내가 요리 담당관이나 다른 비극적인



관료들처럼 나무에 달려서 새들이 내 몸을 뜯어 먹는다 하더라도 상관없소. 이 세상에 이름 없이 왔다가 이름 없이 떠나가는 영혼이 얼마나 많겠는가. 나도 어차피 그 중 하나에 불과한 작은 영혼일 뿐. 이 땅에 작은 흔적 하나 남기지 못한 채 사라지는 먼지와도 같은 존재처럼, 그저 이 땅 위에 있었던 작은 목숨이니 조용히 왔다가 쓸쓸히 사라져갈 따름이오. 피를 나눈 형제들에게 버림 받고 노예로서 팔려왔다가 수치스러운 누명을 쓰고 죽어간다 하더라도 무엇 하나 두려울 것 없네. 어찌되었든 더 이상 내 힘으로는 어쩔 도리가 없는 일이잖소.

미래가 영광으로 이어지는 길이든 형장으로 이어지는 길이든 간에 나는 그저 아무런 생각 없이 따르기로 했네.

몇 년 만에 장벽 바깥으로 나온 것 같았소. 감옥 안에서 바라보았던 하늘과는 분명히 달랐소. 같은 하늘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색깔이 달랐었소.

나는 폐하가 보내신 사자들 따라 가서는 거기서 알현을 위한 준비를 갖추었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묻지도 않았네. 물어서 뭘 하겠는가. 알아서 뭘 하겠는가. 내 힘으로 하나님의 입을 열 수도 없는 것처럼 내 힘으로 인생을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조금은 알게 된 것 같더이다.

처음으로 발을 들여놓은 왕궁은 눈이 부셨소. 신하들이 입고 있는 옷들은 태양보다도 빛나 보였네. 바닥도 벽도 반짝이고 있었소. 아무리 감정이 메말라있었다고는 하나 내 앞에 펼쳐지는 복도 위를 걷

고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움이었소. 이처럼 빛나는 바닥 위를 밟아도 되다는 사실이 믿을 수가 없었을 정도였소.

광활한 호화로운 복도를 지나자 큰 문이 보여왔소. 천천히 문이 열리고는 그대로 따라 들어가자, 거기에는 위대한 위엄이 기다리고 계셨네. 그렇소. 폐하였소. 이집트를 통치하는 바로 왕, 세계를 움직이는 황제폐하였던 것이오.

왕좌 앞에 나아가 예를 갖추자, 이집트로 끌려온 히브리 인이 왕궁 법도를 안다는 사실에 조금 놀랐다고 말씀해주셨소. 폐하는 말씀을 이어가셨네.

너는 꿈 해석을 잘 한다고 하지 않은가. 내 꿈을 해석해보라.

나는 놀라서 주위를 돌아보자 폐하 곁에 술 담당

관계서 계시지 않는가. 나를 바라보시는 눈빛이 기  
뻐하는 것인지 미안해하는 것인지 잘 알아볼 수 없  
었네.

아마도 2년은 지났을 것이오. 많은 일들이 내 눈  
앞을, 그래, 그 순간 내 눈앞에 여러 일들이 지나가  
는 것만 같았소.

폐하의 노여움을 사서 요리 담당관과 함께 끌려  
왔던 첫날의 기억. 감옥생활의 고통을 호소하던 때  
의 모습, 꿈 해석을 듣고는 기뻐하시던 모습, 그리  
고 그 날, 폐하의 부름을 받아 나가시던 뒷모습.

곧바로 달려가서는 왜 지금까지 아무런 소식도  
없으셨느냐고 다그치고 싶었으나, 그 표정을 보고  
모든 것을 용서하기로 했네. 야속함보다는 반가움이  
넘쳐 나왔소. 당장이라도 손을 마주잡고 싶었으나,

그 때는 그저 웃음으로 인사를 나눌 수 밖에는 없었소. 그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 누구를 탓할 수 있겠는가.

처음으로 뵈는 폐하의 얼굴은 대단히 야위어 보였소. 말씀에 의하면 꿈을 꾸셨으나 아무도 해석할 수가 없다고 하시네. 그 꿈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것이었소.

꿈 속에서 폐하께서는 나일 강가에 서 계셨는데. 아름답고 살찐 암소 일곱 마리가 강가에서 올라와 풀을 뜯어먹고 있었더니, 그 뒤에서 흉측하고 바싹 마른 암소 일곱 마리가 강가에서 올라오자, 앞서 있던 암소 일곱 마리를 잡아먹었다고 하셨네. 폐하께서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드셨는데, 이번에는 한 굶은 줄기에 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더니, 그 뒤를 이어

가느다란 일곱 이삭이 나와서는 앞서 있던 실한 일곱 이삭을 삼켜버렸다는 걸세.

폐하께로부터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나는 확신했소. 이것은 내 짐작이나 억측이 아니오. 내가 스스로 고민하거나 생각할 틈도 없이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허락하셨네. 어찌 그 해석을 의심할 수가 있겠소. 의문의 여지가 없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소. 그것은, 하나님께서 폐하께 두 번이나 꿈을 보이셨다는 점일세. 이는 분명히 이루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이오.

이토록 명쾌한 뜻을 이토록 총명하고 박학다식한 분들에게서 풀지 못했다는 사실이 이상할 정도였소.

내가 서 있던 자리가 어디인가. 위대한 폐하 안전이네. 입을 잘못 놀리면 그 자리에서 목이 달아나는

상황이었네만, 주저할 틈도 없이 내 입이 먼저 움직이고 있었소.

“이 꿈은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옵니다. 앞서 나타난 살찐 일곱 마리 암소와 실한 일곱 이삭은 7년 풍년을 나타내고, 뒤이어 나타난 바싹 마른 암소 일곱 마리와 가느다란 일곱 이삭은 7년 흉년이온데, 뒤에 나타난 바싹 마른 암소 일곱 마리가 살찐 일곱 마리 암소를 집어삼키고, 가느다란 일곱 이삭이 실한 일곱 이삭을 집어삼켰다는 것은, 뒤에 올 흉년이 앞서 있던 풍년을 능가한다는 뜻이옵니다. 그러니, 폐하께서는 지혜 있는 자를 택하시어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고, 7년간의 풍년 동안 땅에서 거두어들이는 곡물 중 5분의 1을 수매하셔서 7년 뒤에 올 흉년을 대비하게 하시면 이집트가 망하지는 않을

것이옵니다.”

단숨에 말씀을 드리고 나니 내 등줄기는 식은땀이 흐르고 호흡은 가빠졌으나, 나를 도우시는 이가 분명히 계시다는 것을 나는 확실히 알 수가 있었네. 이렇게 폐하께 아뢰고 나니 믿지 못할 일이 일어났소. 황공하옵게도 폐하께서 나를 이집트 총리로 임명하신다는 것이 아닌가.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는가 하는 말일세. 그 뿐만이 아니라 폐하께서는 친히 그 인장반지까지를 빼서 나를 주셨다는 말이오.

내가 누구인가. 가나안 외지에서 태어난 양치기 아들 아닌가.

내가 누구인가. 형들의 미움을 받은 못난 동생이 아닌가.



내가 누구인가. 머나먼 이집트로 팔려온 형편없는 노예가 아닌가.

내가 누구인가. 보디발 장군 댁에서 일하던 종 아닌가.

내가 누구인가. 몇 년이나 옥에 갇혔던 죄수가 아닌가.

그런 나를 하나님은 단번에 높이셨네. 얼마만큼 높이셨나. 그렇소. 하늘만큼일세.

아아, 하나님. 이 먼지와도 같은 내가 총리 자리에 앉게 되다니요. 형들로부터는 미움을 받고, 열일곱 나이에 아버지가 주신 채색 옷마저도 빼앗기고 팔려온 이 요셉이, 나머지 13년간을 노예와 감옥생활 밖에 해온 적이 없는 이 요셉이, 이름 없이 살다가 이름 없이 사라져갈 목숨이라 생각했던 이 요셉

이, 태어나고 자란 히브리 땅도 아닌 이집트에서 총리가 되다니요.

나는 폐하로부터 명예와 이름도, 그리고 아름다운 아스낫도 얻을 수가 있었소. 노예이자 죄인이었던 요셉이 이집트의 지배자이자 대제사장의 사위이자 당신 남편인 사브낫·바네아가 된 것이요. 이것이야말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소.

이제 당신도 아는 바와 같이, 나는 7년 동안 모든 곡식을 저장할 수 있었소. 그 풍년은 실로 대단하지 않았는가. 무게를 달고 개수를 세어도 기록할 곳이 없을 정도로 놀라운 수확량이었소. 그러나 7년이 지나자 하나님께서 주신 해석처럼 옥토는 광야로 변

해버리고 큰 열매를 심어도 작은 열매를 심어도 땅  
들은 곡식을 내는 모든 입을 닫아버렸네. 이제 이  
주변에는 이집트를 당해낼 나라가 없어지지 않았는  
가. 국내에 있는 모든 백성들의 재산은 폐하 손에  
들어가고 그 대가로 백성들은 배불리 먹을 수 있게  
되었네. 당신도 주변국으로부터 들어오는 금은보화  
를 보지 않았는가. 이집트는 이제 더욱 커질 걸세.  
대제국이 되어 온 천하를 지배하게 될 것이오.

얼마 전에 본궁으로 돌아오자 두 분의 손님이 기  
다리고 계시더군. 한 분은 술 담당관이셨고, 또 한  
분은 천위대장 보디발 장군님이셨소. 내가 집무실에  
들어서자 두 분이 무릎을 꿇으시려 하기에 황급히  
만류했었지요. 아무리 폐하의 총애를 받고 있다고는  
하나, 예전에 신세를 많이 진 분들이오. 술 담당관

님은 2년이나 나를 잊고 있었다는 것을 거듭 사과 하였고, 보디발 장군님은 자신도 진실을 알고는 있었으나 어찌할 수가 없으셨다며 용서를 구하셨네.

나는 우선 술 담당관계 말씀 드렸소.

“2년간 하루도 빠짐 없이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낮이나 밤이나 담당관님께서 부르신다는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담당관님께서 저에 대하여 곧바로 폐하게 말씀 드려주셨더라면, 조금은 더 일찍 석방되었을지는 모르나 저는 여전히 노예였을 것입니다. 단지 죄 있는 노예가 죄 없는 노예로 변했을 뿐이었겠지요. 아무런 미래도 소망도 자유도 없이 예전처럼 하루하루 살아가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2년 후에 저를 기억해주신 덕분에 지금의 영광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주관하

신 하나님께 감사를 돌립니다.”

한편, 보디발 장군과 이야기를 나눌 때에는 다소 난처했소. 노예로서 장군님과 그 가족을 위해 섬길 당시에도, 사실 그 부인에 대한 여러 소문은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입밖에 낼 수야 없는 노릇 아니겠는가. 장군께서도 겉으로는 화를 내시긴 하였으나 옥에 갇혀있을 동안에도 많은 배려를 해주시곤 했네. 그 부인 밑에서 일할 바에야 감옥살이가 차라리 편했을지도 모르는 일일세. 하하하.

나는 잔치를 배설하고 두 분과 즐거운 자리를 함께할 수가 있었소. 참으로 따뜻한 만남이었네. 모두가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 모두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나를 이곳까지 이끌어주셨네. 모든 영광을 하

나님께 돌리겠소.

그러나, 아스낫. 나는 기억하고 있네. 열 명의 피를 나눈 형들을 잊을 리가 있겠는가. 저들이 내게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잊을 리가 없지 않겠는가. 그런 저들과의 재회가 즐거울 리도 없고 따듯할 리 만무할 것이요. 그들과 만난다니 당치도 않소. 나는 그 정도로 한가하지 않단 말이요!

흴.....

(잠시 생각하며 실내를 천천히 배회한다)

(점차 수상쩍은 표정을 지으며 웃기 시작한다)

후후..... 하지만 재미있을지도 모르겠군.

(큰 소리로 웃는다)

좋소이다. 자신들의 질투와 증오로 나와 아버지 사이를 찢어놓고, 나와 베냐민 사이를 찢어놓은 그

이카호중앙교회(일본) 홍성필 목사  
[ikahochurch@gmail.com](mailto:ikahochurch@gmail.com) <http://www.ikahochurch.com>  
일본 복음화를 위한 선교후원 : KB국민은행 079-21-0736-251

들이 왔다고 했다. 좋소이다. 만납시다. 한 번 만나  
봅시다.

여봐라! 게 누구 없느냐!

(퇴장)

제1장 막.

이카호중앙교회(일본) 홍성필 목사  
[ikahochurch@gmail.com](mailto:ikahochurch@gmail.com) <http://www.ikahochurch.com>  
일본 복음화를 위한 선교후원 : KB국민은행 079-21-0736-251



이카호중앙교회(일본) 홍성필 목사  
[ikahochurch@gmail.com](mailto:ikahochurch@gmail.com) <http://www.ikahochurch.com>  
일본 복음화를 위한 선교후원 : KB국민은행 079-21-0736-251

## 제2장 갈등

### - 열 한 형제들의 갈등

등장인물 :

사브낫·바네아(요셉) : 이집트 총리

통역관

경비병 1, 2, 3

요셉의 형들 :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잇사갈, 스블론

장소 :

이집트 총리 알현실

- 조용한 음악이 잔잔하게 울린다
- 막이 열리면 좌측에 높은 곳에 의자가 놓여 있고 그 앞 부근에 통역관과 경비병 2~3명이 서 있다. 우측에서부터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잇사갈, 스블론 순서로 주변을 기웃거리면서 등장한다.

납달리 : (단을 보고) 여기가 이집트 총리가 사는 궁이야? 정말 훌륭하군. 눈이 부셔서 어쩔 줄을 모르겠어. 아니, 저것 봐. 저기 있는 조각도 보라구. 이렇게 멋진 곳은 처음이야!

단 : 조용히 해! 목소리가 너무 커! 여기가 너 어디인 줄 알고 까불어? 넌 어딜 가나

그게 탈이야. 좀 가만히 있으라구. 여기서 잘못했다가는 그 자리에서 목이 달아날 수도 있단 말이야!

납달리 : (단을 보고) 그런데 도대체 총리라는 사람이 우리를 왜 보겠다는 거야? 여기 곡식을 사러 오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다 만나는 거야? 이집트 총리라는 사람이 그렇게 한가해?

단 : 그래, 나도 사실 그게 마음에 걸린단 말이야. 다른 사람들은 곳간에서 돈을 내고 식량을 사갔잖아? 그런데 갑자기 왜 우리들만 불러가냐 말아야. 야, 납달리! 너 또 무슨 허튼 짓 한 거 아냐? 솔직히 말해!

납달리 : 무슨 소리아, 형. 그럴 리가 있겠어?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네.

단 : (유다한테) 유다 형님, 이거 괜찮은 거겠  
죠? 아무 일 없는 거겠죠?

유다 : 글썄다. 나도 사실 마음에 걸리는구나. 무  
엇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도무지 알아야  
말이지. 우리를 어떻게 하려는 거라면 그  
저 잡아 넣으면 될 일일 텐데 친히 총리  
께서 보잔다고 하니, 큰 일이야 있겠는가  
하는데…….

르우벤 : (유다를 보고) 그렇지? 유다야, 그렇지? 별  
일 없겠지? 우리 무사히 집에 돌아갈 수  
있는 거겠지?

- 납달리, 단, 르우벤이 못 마땅하다는 뜻이 혀를 차며 르우벤과 반대쪽를 본다.

유다 : 예, 르우벤 형님. 괜찮을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시므온 : (르우벤을 보고) 어허, 형님. 우리가 여기 있잖아요. 걱정하지 마시라니까. 무슨 일이 있어봐야 지네들이 어찌겠어요? 까짓 거 여차하면 나 시므온과 여기, 레위가 있잖아요. 마음 폭 놓고 그냥 우리 뒤만 졸졸졸졸~ 따라오시면 됩니다. (레위 쪽을 본다) 안 그러냐, 아우야?

레위 : 시므온 형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른 애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만 믿으시라니까요.

이카호중앙교회(일본) 홍성필 목사  
[ikahochurch@gmail.com](mailto:ikahochurch@gmail.com) <http://www.ikahochurch.com>  
일본 복음화를 위한 선교후원 : KB국민은행 079-21-0736-251

흐흐흐.

르우벤 : (시므온을 보고) 그, 그래……내 너희들만  
믿을게……. 근데 아까 분명히 오줌을 누  
고 왔는데 또 마렵네…….

시므온 : 아이, 참, 형님도……. 아, 그 총리인지 뭔  
지 하는 양반이 우리에게 할 말이 뭐가  
 많겠어요? 어차피 금방 끝날 거니까 좀  
만 참으쇼.

경비병 1 : 모두 조용히! 사브낫·바네아 총리 각하  
납신다. 예를 갖추라!

- 요셉의 형들, 좌측 의자를 향해 그 자리에 무  
릎 꿇고 절을 한다.

- 웅장한 음악이 울리고, 화려하고 권위 있는 예

복을 차려 입은 요셉이 좌측 의자 뒤에서 입장하고  
자리에 앉는다.

요셉 : (통역관에게 말을 한다)

통역관 : 고개를 들라 하신다.

- 형들, 두려워하며 천천히 고개를 든다.

요셉 : (통역관에게 말을 한다)

통역관 : 너희들은 어디에서 왔고, 이 나라에 온 이  
유가 무엇인지 하문하신다.

르우벤 : (큰 소리로) 시, 신들은 곡식을 사기 위해  
가나안 땅에서 왔사옵니다.

통역관 : (요셉에게 말을 전한다)

이카호중앙교회(일본) 홍성필 목사  
[ikahochurch@gmail.com](mailto:ikahochurch@gmail.com) <http://www.ikahochurch.com>  
일본 복음화를 위한 선교후원 : KB국민은행 079-21-0736-251

요셉 : (통역관에게 말을 한다)

통역관 : (크고 권위 있는 목소리로) 네 이놈들! 너  
는 내 눈을 뭘로 보느냐. 나를 속일 수  
있을 줄 알았는가! 네놈들은 이 나라를  
엿보러 온 첩자들이니라!

르우벤 : 아, 아니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시므온 : 저희들은 그저 가나안 땅에서 곡식을 사  
러 왔습니다요. 자, 보세요. 이게 곡식을  
사기 위해 가지고 온 돈입죠. 첩자라뇨!  
저희 같은 미천한 것들한테 무슨 다른  
뜻이 있겠습니까.

레위 : 맞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는 모두 다 한 아  
버지한테서 나온 한 형제이옵니다. 그런  
데, 첩자라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우리를 뒤져보시오. 무기 같은 것도  
없고 무슨 수상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  
사옵니다.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신단 말입  
니까?

통역관 : (요셉에게 말을 전한다)

요셉 : (통역관에게 말을 한다)

통역관 : 고안 것들. 네놈들이 어느 안전이라고 거  
짓을 꾸미느냐. 너희들은 이웃 나라에서  
이 나라 틈을 엿보러 온 첩자들이니라.  
내 일찍이 주변국들이 이 나라의 풍족한  
식량을 약탈하기 위해 호시탐탐 틈을 노  
리고 있다는 사실을 모를 줄 아느냐. 만  
약에 솔직히 털어놓는다면 이번만은 용  
서해줄 것이야. 어서 이실직고 하지 못할

까!

르우벤 : 각하! 저희는 그냥 가나안 땅에 사는 한  
가족이옵니다! 첩자라니요! 당치도 않습  
니다! 저희들은 열두 형제인데…….

통역관 : (요셉에게 말을 전한다)

요셉 : (통역관에게 말을 한다)

통역관 : 열두 형제라고 했겠나? 그런데 너희는 지  
금 열 명 밖에 없지 않느냐.

르우벤 : 그게 저……마, 막내는 지금 집에 저희 아  
버지와 함께 있고요, 그리고, 또 한 형제  
는……또 한 형제는……(고개를 숙인다)  
옛날에 없어졌사옵니다…….

통역관 : (요셉에게 말을 전한다)

요셉 : (통역관에게 말을 한다)

통역관 : 이제야 서서히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내가 너희들을 첩자라 한 것이 바로 이 때문 이니라. 네놈들의 말에 막내가 가나안 땅에 네놈들 아버와 함께 있다고 하였으니, 그 막내를 데려오거라. 만일 네 막내를 데려오면 네놈들의 말이 사실로 증명되려니와, 만에 하나 못 데려온다면 네놈들이 여기서 영원히 나가지 못할 줄 명심하라. 이제 너희 중 하나를 내가 보낼 것이니, 네놈들이 살아 돌아가고 싶다면 속히 막내를 여기로 데려오너라. 알겠느냐!

- 조명이 어두워지고 스포트라이트가 열 형제들만을 비춘다. 형제들은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면서

앉는다. 서로들 난처한 표정이 역력하다. 형제들의 대화가 시작하면 천천히 막이 내리고, 객석에서는 열 형제들만 보인다.

단 : (르우벤을 보고) 야, 이 멍청한 자식아, 네가 뭘 안다고 거기서 나서? 왜 쓸데없이 막내 얘기는 꺼내서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드냐구! 너 때문에 우리 모두 다 여기서 죽게 생겼잖아! 도대체 하는 짓마다 어떻게 그렇게 도움이 안 되냐?

납달리 : (단을 보고) 형! 재수없게 저런 놈이랑 말을 섞지도 말라니까. 저런 더러운 놈을 데려온 게 잘못이야.

- 르우벤이 비굴한 눈빛으로 단과 납달리를 쳐다본다.

납달리 : 뭘 봐 이 자식아! 저리 꺼져! 꺼지라구!

유다 : (단과 납달리에게) 이봐, 너희들! 형님한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레위 : 야, 유다야. 냅뒤라. 너도 재네들 마음을  
알지 않냐. 뭐, 그리고 재들 말에 틀린  
게 있냐.

시므온 : 그래. 단이나 납달리 말이 구구절절 옳지  
뭐.....안 그러냐, 유다야?

유다 : (시므온을 보고) 형님, 그래도 이건 도리가  
아닙니다.

르우벤 : (형제들을 일일이 돌아보며) 내, 내가 뭘

잘못했다구 그래. 아무리 우리 형제들이 어떻게 되었다 하더라도, 나는 항상 우리 형제는 열 두 명이라고 생각해 왔어. 그 아이는 눈에 안 보여도 항상 우리와 함께 있다구. 우리들의 사랑스런 동생이란 말이야.

레위 : (시므온에게 조용히) 형님, 르우벤 형님은 아직도 요셉이 구덩이 빠져서 죽은 줄 알고 있소?

시므온 : (레위에게 조용히) 그런가 보지. 그리고 보니 요셉을 노예상인한테 팔아 넘길 때 아마 형님은 거기 없었지? 뭐, 있으나마나 한 인간이니 아무도 신경을 안 썼지만 말이다.

레위 : (시므온에게 조용히) 그럼 그 동안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다는 거요?

시므온 : (레위에게 조용히) 야, 됐다. 누가 저런 인  
간을 상대하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지가 감히 빌하 어머니를 건드리다니…….

르우벤 : (시므온의 마지막 말을 듣고 시므온을 바  
라본다) 야, 시므온, 그게 아니라니까. 내  
가 그런 게 아니야……. 그건 빌하가 먼  
저 나를…….

단 : (르우벤을 향해 달려든다) 뭐 어찌구 어찌?  
이 자식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 내  
가 오늘 너를 살려두면 인간이 아니다!  
이리 와 이 자식아!

- 단과 르우벤을 제외한 형제들이 단을 말한다.

납달리 : 형, 됐어요! 그만해요!

단 : 야, 납달리. 너는 우리 어머니가 저런 놈  
한테 욕보였는데도 가만히 있을 수 있냐?  
응? 어디 말 좀 해봐 이 자식아! 넌 분  
하지도 않아?

납달리 : 저런 놈을 상대해서 뭘 하겠어요. 형이 참  
아요. 저런 더러운 놈을 건드려봤자 우리  
손만 더러워질 뿐이잖아요.

단 : (르우벤을 노려본다) 에잇, 재수없는 새끼  
같으니라구. (말리는 형제들에 의해 마지  
못해 자리에 앉는다. 자리는 본래 있던  
자리인, 르우벤한테서 떨어진 납달리 옆)



레위 : (단과 납달리에게) 내가 왜 너희들 마음을 모르겠냐. (르우벤을 보고) 아이 참. 아니, 형님은 쓸데없이 갑자기 막내 얘기는 왜 해서 일을 꼬이게 만드시오? 막내가 있고 없고가 무슨 상관인데……. 괜히 형님 때문에 우리가 다 여기서 죽게 생겼잖소.

르우벤 : 야, 그런 말 하지 마. 저 분이 우리 말을 믿어주지 않았던 것은 우리 말에 진정성이 없었기 때문인지도 몰라. 우리 형제는 여기 있는 게 다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면 믿어줄 거야. 아니, 아아……. 아니야. 이건 어찌면 그 아이의 저주……. 아니, 라헬 어머니의 저주일지도 몰라……. 얘들아 그렇

지 않니?

시므온 : 형님, 그만 좀 하쇼. 그건 또 뭘 소리랍니까.

르우벤 : (시므온을 보고 진지한 표정으로) 야, 생각해봐. 그 아이가 죽은 건 우리 때문이잖아. 우리가 죽인 거나 마찬가지라구. 이건 어찌면 그 아이의 저주…….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라구……. (머리에 손을 얹고 심각하게 생각하고는 잠시 후 새로운 사실을 깨달았다는 듯이 시므온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알았어! 그래, 그 아이가 말한 거야. 그 아이가, 그 아이가 하늘나라에 가서, 거기 있는 라헬 어머니님한테 모든 사실을 다 일러바친 거야. (시

므온에게 다가간다) 그래서 라헬 어머니  
이 그 사실을 알아버린 거라구. 우리들이  
자기를 죽였다고 말이야. 너도 기억 나지?  
원래 그게 개 특기잖아. 일러바치는 거.

시므온 : (르우벤의 손을 밀친다) 아이, 참 형님. 됐  
다고 하지 않소.

르우벤 : 아니야, 시므온, 그게 아니라니까. 잘 들어  
봐. 우린 개를 죽였어. 우리의 피붙이인  
개를 우리 손으로 죽여버렸단 말이야. 라  
헬 어머니의 아들은 개네들 뿐이잖아. 그  
래서 우리가 여기 이집트에서 이유도 모  
르고 꼼짝없이 죽게 됐잖아. 그런데 그것  
참, 신기하지? 마침 막내는 지금 아버님  
과 가나안에 있잖아. 그러니까 막내는 빼

고 우리만 죽게 된 거야. 봐봐. 그러니까  
이게 라헬의 저주가 아니고 뭐겠어? 안  
그래? 내 말이 틀렸어?

단 : (르우벤에게) 야 이 자식아! 너 그 입  
다물지 못해? 저걸 그냥 확……!

- 또다시 형제들이 단을 만류한다. (소리 cut out)  
단은 뿌리치고 르우벤에게 덤벼들고, 형제들은 단을  
붙잡기 위해 좇아간다. 르우벤은 요리조리 피해 달  
아난다.

- 갓과 아셀이 서로를 보고 말하기 시작한다.

아셀 : 갓 형, 도대체 단 형님과 납달리 형님은  
왜 르우벤 형님을 저렇게 미워해? 우리

형제 중에서 제일 큰 형 아냐?

갓 : 됐어. 넌 몰라도 돼.

아셀 : 왜 그런 거야? 형은 알아? 알면 나한테도  
좀 알려줘.

갓 : 몰라도 된다니까 그러네.

아셀 : 그런 게 어디 있어. 나도 좀 알자.

갓 : 뭐 그게 말이야. 그..... 단 형님과 납달리  
형님의 친 어머니는 빌하 어머니이지잖  
아?

아셀 : 그야 알지. 근데 그게 어쨌다는 건데?

갓 : 아이 참. 그게 그.....그러니까 말이야. 르우  
벤 형님이 빌하 어머니와 그.....말하자면  
남녀관계가 된 거야.

아셀 : 뭐야? 정말이야?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어.

그걸 아버님도 아셔?

갓 : 그래. 아마 아버님 귀에도 들어갔을 거야.  
그러니 빌하 어머니한테서 태어난 단 형  
님과 납달리 형님이 르우벤 형님한테 함  
부로 대해도 다른 형들이 뭐라고 할 수  
없는 게 바로 그 때문이지.

아셀 : 르우벤 형님은 뭐래? 빌하 어머니를 사랑  
한대?

갓 : 사랑은 무슨...... 형님은 빌하 어머니의  
자기를 먼저 유혹했다고 하지만 말이야.

아셀 : 그래? 그게 정말이야?

갓 : 글썄, 정말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모르지.

아셀 : 빌하 어머니는 뭐라고 하시는데? 자기가  
유혹했대?

갓 : 야,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시겠냐. 아버님이 뭐라고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언제부턴가 르우벤 형님이 있는 자리에는 얼굴도 안 보이셔. 그런데 설마 자기가 어떻게 했다거나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겠냐. 야, 그건 그렇고. 이거 저러다가 정말 누구 하나 죽겠다. 너도 어서 말려라.

- 소리 fade in. 형제들의 말다툼 소리가 커진다.

유다 : 이봐 단! 내가 네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다. 아닌 건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우리 형제 중에서 장자인 르우벤 형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서 사과 올려! 어서!

단 : 사과? 제가 사과를 해요? 저더러 저 르우벤인지 뭔지 하는 놈한테 사과를 하라는 말씀이에요? 유다 형님, 아무리 같은 어머니님 소생이라 감싼다고 해도 정도가 있지. 저희들한테 너무 하는 거 아니에요?

유다 : 무슨 소리야? 오해하지 말아라. 나는 어머니님이 누구시든지 간에 너희들을 차별한 적도 없고 모두 피가 섞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다만, 지켜야 할 것은 지켜야 한다는 거야. 어찌되었건 간에 르우벤 형님은 우리의 장자가 아니냐. 그것을 명심하라는 말이다.



납달리 : (유다를 보고) 형님, 장자요? 장자가 무슨 밥 먹여 줍니까? 장자면 다냐구요. 말이야 바른 말이지, 우리 아버지 야곱이 그 장자권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큰아버님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온 야곱. 평생을 둘째라는 열등감, 장자가 아니라는 열등감에 사로잡혔던 아버지 야곱. 아버지는 언제라도 틈만 나면 큰아버님한테서 장자권을 빼앗으려 했었지요. 그래서 그 날도 큰아버지가 사냥에 갔다가 허기를 느끼고 돌아오는 길에 간교하게도 그 앞에서 팔죽을 쑤어 팔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얻어냈잖아요? 그것 뿐인가요? 그것도 불안해서

인지, 이삭 할아버님이 두 아들 에서와 야곱에게 유언을 남길 때, 우리 아버지 야곱은 에서의 옷을 입고, 팔에는 눈이 어두운 할아버님한테 형처럼 보이려고 털까지 붙이고 들어가서 축복을 받아냈 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아버지가 얻은 게 뭐예요? 오랜 세월 동안 도망 다니는 신세가 된 것뿐이잖아요?

유다 : 납달리! 이제 형님만이 아니라 아버님까지도 욕보이려는 거야? 네가 지금 제정 신이냐! (벌떡 일어선다)

레위 : (일어서는 유다를 앞치면서) 유다야, 이제 됐다. 그만 하거라. (단과 납달리를 가리키며) 너도 재들 마음을 알면서 왜 그러

냐. (뒤로 물러가 앉으며) 생각해보면 그 영감도 참 대단하지. 얼마나 자기를 위하시는지 말이다. 장자가 되면 뭘 하냐. 안그러냐. 아버지가 그렇다고 이삭 할아버님한테서 물려받은 게 뭐가 있냐. 물려받기느커녕 그 동안 있던 재산도 압복강을 건너면서 에서 큰아버님한테 다 쥐버렸잖냐.

시므온 : 하하하. 정말 우리 아버지도 자기를 위하시는 것 하나만은 정말 알아줘야 해. 아버지가 가나안을 떠나서 20여 년 만에 고향땅으로 갈 때, 하하, 너 압복강을 건널 때 기억하지? 에서 큰아버님이 자기를 해칠까봐 어떻게 했냐? 염소들, 양들,

낙타들은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는 우리 가족들을 보내고 자기는 맨 마지막에 건너오셨잖아? 그게 뭐야? 큰아버님이 우리를 공격하면 자기 혼자만 도망치겠다는 거잖아? 그걸 우리가 모를 줄 아셨나? 하하하.

레위 : (시므온을 보고) 어찌 보면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만 아는 건 우리 집안 내력일지도 모르는 일이지요. 내가 들은 바로는 아브라함도 네게브 땅에 갔을 때, 사라 때문에 자기가 죽을까봐 자기 부인이라는 걸 숨겼다잖소. 그러는 바람에 하마터면 그랄 왕 아비멜렉한테 자기 부인을 빼앗길 뻔 했다지만, 이삭 할아버지도 그

랄 땅에서 똑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들었어요. 우리 집안은 어찌 된 게 이기적인 양반들만 있는 것 같지 않소? 아무튼 웃기는 집안이라니까.

유다 : 형님들, 그만 하십쇼. 애들이 듣습니다.

잇사갈 : 유다 형님, 그건 우리도 들어서 다 안다구요.

스불론 : 할머니한테 들었는데 그 때는 정말 할아버지가 미웠대요.

유다 : (잇사갈과 스불론을 보고) 너희들 조용히 못해! 흠…….

시므온 : 우리 족보에 이기적인 양반이 아브라함 뿐이겠냐. 우리 인류의 시초인 아담부터 따져봐야겠지. (형제들을 돌아보며) 하나

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에덴에서 살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던, 그 뭐냐……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인지 뭔지를 따 먹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까지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것 아냐. 그때 그런 짓만 안 했어도 지금 우리처럼 배고파할 일도 없고 아무런 걱정 없이 에덴에서 편안하게 두 다리 뻗고 잘 살았을 텐데 말이야.

레위 : 뱀인지 뭐인지한테 속아 넘어갔다잖소.

시므온 : 얼마나 미련하고 모자라면 그딴 것한테 넘어가겠냐. 그것도 얼마나 한심한 지 내 얘기를 들어봐. 하와는 그 열매를 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말을 듣

고 넘어갔다잖아? 이기적? 그것도 하나님처럼 돼? 그리고 싶어서 그걸 낼름 따 먹었던 말이야? 아니, 지가 하나님처럼 돼서 뭘 어찌겠다는 건데? 예나 지금이나 여자란 변한 게 없어. 항상 여자들이 하는 소리들은 얼마나 비현실적이고 미련한지 모르겠단 말이야.

유다 : 단순히 하와만 탓할 수는 없습니다. 아담에게는 적어도 두 가지 잘못이 있습니다. 첫째는,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그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는,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고 하는 말씀을 받았습시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와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때문에 뱀으로부터

유혹을 받았을 때 ‘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가 아닌 ‘죽을지도 모른다’고 이해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보다 정확하게 말씀을 하와에게 전했다라면 인간이 타락하는 일은 없었을 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둘째는, 하와가 말씀을 어길 때에 아담은 말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와를 아담의 관리 하에 두셨지만 아담은 그 책임을 다하지 않고 오히려 하와가 넘어질 때 같이 넘어지는 실수를 범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아담을 어찌 흠이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그토록 잘못이 있는 아담과 하와를 멸망시키지 않고 살려둔 것은 하



나님의 은혜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인간은 처음에 자신이 벌거벗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합니다만, 이는 인간이 무지해서가 아닐 것입니다. 아무리 나 스스로가 가진 것이 없더라도 말씀 안에 거할 때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보호막이 사라졌을 때 비로소 자신이 벌거벗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었던 일이라곤 기껏해야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영성한 옷을 만드는 일 정도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하나님은 가죽 옷을 두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가죽

이카호중앙교회(일본) 홍성필 목사  
[ikahochurch@gmail.com](mailto:ikahochurch@gmail.com) <http://www.ikahochurch.com>  
일본 복음화를 위한 선교후원 : KB국민은행 079-21-0736-251

옷이라고 하는 것은 피흘림의 희생을 의미합니다. 희생이 없으면 얻을 수가 없고, 희생의 결과로서 얻을 수 있는 것이 가 죽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부어주고 계십니다. 온 천하가 끔찍한 가뭄에 뒤덮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이집트까지의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레위 : 글썸다, 아우야. 네 말이 틀렸다고는 알겠지만, 최소한 지금은 그 말이 그리 옳게 들리지 않는구나. 살 길이 열렸는지 죽을 길이 열렸는지 모르지 않냐. 저 총리 나 우리가 우리를 죽이려고 환장하지 않았

냐 이 말이야.

시므온 : (레위를 보고) 잠깐 기다려봐. (유다를 다시 보며) 아담과 하와는 그렇다고 치자. 그럼 그 아들 가인을 봐. 자기 동생을 쳐죽인 가인이야말로 이기적인 인간이지 않나.

레위 : 도대체 가인은 왜 그런 짓을 한 거요?

시므온 : 넌 그것도 못 들었냐. 아담의 아들인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한테 제사를 드리는데,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자기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았기에, 동생한테 질투가 나서 아벨을 쳐죽였다고 하잖나.

레위 : 하나님 그 양반은 왜 가인이 드리는 제사를 받지 않으신 거요?

시므온 : 그야 내가 아냐? 어때, 유다야. 넌 어떻게  
생각하냐?

유다 :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왜 안 받으셨는  
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 몇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  
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  
를 받으신 이유가 있을 것이요, 마찬가지로  
가인의 제사를 거절하신 이유 또한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우선 제  
물을 비교해보겠습니다. 가인이 바친 제  
물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바쳤고, 아벨  
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바쳤다고 들  
었습니다.

레위 : 가인은 농사를 하고 아벨은 양을 쳤으니, 자

기가 거둔 것으로 제사를 드린 게 뭐 문  
제가 있었다는 건가?

유다 : 저도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세 가지에 대해서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로, 분명한 것은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예배를 드렸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들은 바에 의하면 아  
벨이 바친 제물에 대해서는 ‘양의 첫 새  
끼와 기름’이라고 명시되어 있어, 이는  
아벨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위해서  
특별히 선별했다는 아벨의 마음을 보여  
주는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이는 아벨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한편 가인이 바친 제물은 그저 ‘땅의 소산’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선별했다거나 하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가인은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아벨을 죽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벨에게 죄를 짓지 말도록 말씀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점을 보면 당시까지만 해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교제는 지금보다 가까웠는지도 모릅니다. 그토록 서로 말을 나눌 수가 있었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바친 제물을 거절하신 이유를 자기가 전혀 알지 못했다면 가인은 틀림없이 그 이유를 하나님께 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입을

다물고는 분을 내고 안색이 변하여 낮을 들지도 았았다고 하지 았습니까. 이것이 사실이라면 가인은 그 이유를 았고 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이 장면에서는 아담이 았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은 지극히 거룩하고 중요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지금은 그 때의 명확한 제사법에 대한 내용은 알 수 았습니다만, 당시는 분명히 았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아벨은 지켰고 가인은 어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인은 그 이유도 았고 았었다면, 이는 그 아버지인 아담도 알 수 았었음이 분명합니다. 만약 그들이 제사를 드리기 전에 아담이 감독을 했었다라면 가인

도 올바른 제사를 드렸을 것이기에 형제 간의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었겠지만, 불행히도 그 자리에 아담은 없었습니다. 이 점이 바로 제일 큰 원인이 아닐까 합니다. 당시 그들의 나이가 몇 살이었는데는 모르지만, 그 사건의 근본원인은 가인의 이기심 이라기보다도 아담의 관리감독소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므온 : 넌 그럼 결국 또 아담 잘못이라는 거야?  
어째 그 인간은 제대로 한 게 없냐. 그럼 노아는 어때. 방주를 짓고는 자기들 여덟 가족만 탔다면서? 많은 짐승들도 태웠다고 하는데, 짐승 같은 것보다도 한 명이 라도 더 사람을 태웠어야 하는 게 아니



야? 방주를 짓는 데 120년이나 걸렸다면  
서? 그렇게 시간이 있었다면…….

유다 :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하시려고 결심하셨던  
것은 120년 전이셨고, 홍수가 일어난 때  
가 노아의 나이 600세 였던 것은 맞습니  
다만, 그렇다고 120년 동안 배를 지은  
것 같진 않습니다.

시므온 : 그건 왜 그런거야? 난 하나님이 120년 후  
에 세상을 멸한다는 말을 했다고 들었는  
데?

유다 :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노아한테 직접 하신  
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 건설을 명하셨을 때 이미 그에게는  
셈과 함과 야벳 세 아들이 있었고, 뿐만

이카호중앙교회(일본) 홍성필 목사  
[ikahochurch@gmail.com](mailto:ikahochurch@gmail.com) <http://www.ikahochurch.com>  
일본 복음화를 위한 선교후원 : KB국민은행 079-21-0736-251

아니라 셋 모두 혼인도 한 상태였습니다.  
장남 셈은 홍수가 끝나고 2년 후에 나이가 100세였고 그 때 아르박삿을 낳았다고 합니다. 홍수 당시 노아는 600세, 장남 셈은 98세입니다. 즉, 장남 셈이 태어난 것은 노아가 502세였을 때라고 할 수 있겠지요. 502세 때 태어난 아들이 결혼해 있기 위해서는 적어도 20년은 필요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방주 건설을 명 받았을 때에는 이미 세 아들에게 아내가 있었습니다. 백 보 양보를 해서 노아의 아들 3형제 셈과 함과 야벳이 세 쌍둥이라 합시다. 그 시점, 하나님이 방주 건설을 명하신 시점을 억지로

끼워 맞춰서 세 쌍둥이 아들이 20세에 모두 결혼하고 있다 하더라도 노아는 522세입니다. 그리고 노아가 600세 때 홍수가 일어났다고 하지요?

레위 : (시므온을 보고) 흠. 아우 말이 맞는 것 같네요. 120년은커녕 80년도 안 되겠소, 형님.

시므온 : 흠……. 그래, 뭐, 그렇다고 그래. 하지만 120년이든 80년이든 말이다. 그게 어디 짧냐 이 말이야, 내 말은 그 동안 자기들 가족 말고는 아무도 배에 신지 않았다는 거 아냐. 이게 얼마나 이기적이냐 하는 말이다.

유다 : (시므온에게) 형님, 그건 형님이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노아가 오랜 기간에 걸쳐

큰 배를 지었고, 마지막에 그 배에 오른 사람은 수많은 동물들을 제외하면 그 가족밖에 없었다는 점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노아의 결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지면에 있는 생물들을 진멸하려고 하셨습니다. 물론 사람도 포함해서입니다. 다만 예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노아와 노아의 아내, 세 아들, 그리고 세 며느리인 여덟 명뿐입니다. 노아가 자신과 가족들만을 데리고 방주에 탔던 것은 이기적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지킨 결과라고 보아야 하겠지요. 하나님이 부르지 않은 사람까지도 데려갔다면, 그건 마치 아브라함과 롯처럼 되지

않았을까 합니다.

시므온 : 아브라함과 롯? 그건 무슨 소리야?

유다 :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하나님이 명하는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신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나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은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다툼이 벌어지고 둘은 결별하게 됩니다. 어디 그 뿐인가요. 소돔으로 들어간 롯은 납치를 당하게 되어, 그를 구하기 위해 아브라함이 300여 명을 데리고 가서 전쟁을 벌이는 수고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

씀대로 롯을 데려가지 않았더라면 이 모든 일을 피할 수 있었겠지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택할 권한도 있으시지만, 버릴 권한도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을 버리는 일을 불순종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버린 사람을 택하는 것도 불순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버린 사람을 택하는 불순종보다는 하나님이 버린 사람을 버린 순종을 택한 것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두고 이기적이라고 한다면 롯도 이기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므온 : 그래, 네 말이 맞아. 롯도 아주 이기적인 양반이지. 소돔이 멸망할 때에 롯이 데리

고 나온 게 누구야? 자기와 자기 아내,  
그리고 두 딸이었어. 그 두 딸한테는 약  
혼자 둘이 있었는데, 롯은 그 두 약혼자  
도 버리고 나왔잖나? 이것도 역시 그 버  
릴 권한이라고 하는 건가?

레위 : 아, 그건 나도 들은 적이 있소. 그런데 내가  
듣기로는 롯이 두 딸의 약혼자들한테도  
말을 했다고 하지만 농담으로 들었다잖  
소?

시므온 : 그래도 그렇지, 너무하지 않냐 이 말이야.  
자기 딸을 위한다면이야 그들을 두고 나  
왔겠는가?

유다 : 그렇지 않습니다. 동이 틀 때에 천사들은 롯  
한테 분명히 롯의 아내와 두 딸, 그리고

가족만이 아니라 약혼자들까지도 데리고 함께 탈출하도록 분명히 말했다고 들었습니다. 두 천사들이 소돔에 도착한 것은 저녁 무렵이었으나, 롯이 탈출한 것은 새벽 동틀 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가 아무리 태연한 사람이었다 하더라도 자신이 살고 있는 도시가 멸망한다고 하는데 잠이 들어버렸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급박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시간이 지체된 이유는, 어쩌면 약혼자들이나 다른 친족들을 설득하기 위해서인지도 모르는 일이죠. 하지만 시간은 흘러가고 약혼자들은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았기에 결국 그들을 데리고 나오지는



못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시므온 :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어? 롯의 마누라는 소금기둥이 되고, 소돔의 멸망으로 약혼자를 잃은 두 딸은 자기 아버지한테 술을 마시게 해서 그 자식을 갖게 되었잖아? 이게 정신 나간 얘기 아냐? 이게 다 그 이기적인 롯 때문이라구.

유다 : 롯의 부인은 천사들의 말을 어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을 왜 멸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소돔을 멸할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은 의인 열명을 구하기만 하더라도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멸하지 말라고 했었습니다만, 열명 조차도 없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당시

소돔에 있는 것이라고는 모두가 죄악 속에 몰들어 있었습니다. 그 곳에서 이룬 재산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 또한 죄악 속에서 얻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롯에게 모든 것을 버리고 아내와 두 딸만 데리고 탈출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죄악 가운데에서 얻은 모든 것에 대한 미련을 버리라는 의미에서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런데 롯의 부인은..... 글썄요. 미련이 남아서였는지....., 아까웠는지도 모르지요.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란 땅에서 왔지만 롯의 부인은 어찌면 소돔에서 태어나 소돔에서 자랐는지도

모르죠. 그랬기에 많은 것들에 대한 미련,  
죄악 속에 있던 미련들을 버리지 못하고  
끝내 돌아본 그녀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  
긴 결과로 소금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두 딸도 형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매우  
개탄스러운 일이 되었지요. 그 딸들로부터  
태어난 자식인 모압과 암몬의 자손들  
도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습니다만,  
그들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존재가 될 것  
임이 분명합니다.

- 레위 : 우리를 넘어뜨려? 그게 무슨 소리냐?  
유다 :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긴 했지만 롯을 부르  
시진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롯을 데리고

나오는 바람에 모든 안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간단합니다. 룯이 나오지 않았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들이 룯으로 인하여 일어났다고 한다면, 그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셨던 일들입니다. 아브라함이 룯을 데리고 나서지만 않았더라면 소돔에 가지도 않았을 것이고, 소돔에 안 갔더라면 룯의 부인을 만나지 않았을 것이고, 룯의 부인을 만나지 않았다면 두 딸을 낳지 않았을 것이고, 두 딸을 낳지 않았다면 모압과 암몬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므온 : 유다야. 그건 좀 말이 지나치구나. 모

압과 암몬의 자손도 따지고 보면 우리와 한 핏줄 아니냐. 언젠가는 같이 합쳐서 사는 게 도리라는 거야.

유다 : 인간적으로 보면 물론 그렇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아버지인 하란은 형제이고 그 아버지는 데라이니 틀림없는 한 핏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복이 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았던 롯을 데리고 떠나는 순간부터 고난은 시작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라는 말

씀 단 한 마디를 하십니다. 이게 축복의 말씀인가요? 아니요. 축복은커녕 자칫하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저주의 말씀으로도 들릴 수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가 이 땅을 네게 주리라”가 아니라, “네 자손에게 주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내가 너를 부를 때 약속한 것처럼 네 자손들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서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 그것은 이미 약속했으니 그렇게 하겠지만, 내 명을 어긴 (앞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큰 소리로) 너한테는 주지 않겠다!” 이 말씀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시므온 : 야야, 이거 너무 비약 아냐? 내가 아는 하

나님은 그렇게 매정하진 않으실텐데 말  
이야. 유다야, 네가 아까 말한 대로 소돔  
에서 롯을 구해주시기까지 하셨다면. 그  
런데 롯을 데려왔다고 해서 그러시기야  
하겠냐.

유다 : 말씀을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아까 그  
한 말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말씀 이후로는 입을 다무십니다. 벤  
엘 동쪽에 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불러도 침묵을 지키십니다. 마침내 그 땅  
에는 극심한 가뭄이 들자 아브라함은 약  
속의 땅을 헌신짝 버리듯이 포기하고 이  
집트로 갑니다. 거기서는 자신의 아내인  
사라를 황제한테 빼앗길 위기에 처하는

수치를 겪을 때에도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또다시 롯과 함께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역시 앞서 제사를 드렸던 곳에서 제단을 차리고 하나님을 불러도 대답이 없습니다. 이윽고 두 사람의 재산이 늘어감에 따라 그 땅이 비좁아지자 두 집안의 목자들이 서로 다툽니다. 어쩔 수 없이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헤어질 것을 제안하고, 그 결과 롯은 당시까지는 풍요로웠던 소돔을 선택하게 되어 아브라함의 곁을 떠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을 얼마나 기다리셨는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돌아오는 그 순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돌아오는 그 순간을 애타게 기다리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롯이 아브라함 곁을 떠나자마자, 그 동안의 침묵을 깨고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그 말씀은 예전처럼 “네 자손에게 주리라”라고 하셨던 차가웠던 말씀이 아니라, 다름 아닌 축복의 말씀, 처음 아브라함의 귀에 들려왔던 그 말씀, 그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하시면서, 보이는 이 땅을 그냥 ‘네 자손에게’가 아닌 이제는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토록!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롯과

결별하기를 바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롯을 구하신 것도 어디 의인이라서 그러셨나요? 소돔 주민들에 비하면 그야 조금은 나았을지는 모르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아브라함을 사랑하는 마음에 구해주신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롯이 같은 핏줄이라고 해서 그의 아들인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과도 함께 살아야 한다고 하면,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말과 다름이 없습니다.

단 : (유다를 바라보며) 형, 옛날 일들은 다 잊어버리고 그냥 다 같이 모여서 살면

안 되는 거야? 아브라함이다 롯이다 이  
스마엘이다 이삭이다 하고 따지지 말고  
말이야. 그렇게 되면 전쟁도 없고 서로  
사이 좋게 지낼 수 있는 거잖아.

유다 : (단 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그래. 그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니. 하지만 하나님  
의 뜻은 분명히 아니었어. 하나님께서 사  
람을 창조하시고 말씀하신 첫 명령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는 것이었어. 그런데 그 옛날  
구스의 아들 니므롯이 사람들을 총동하  
여 서로 흠어지지 말고 한 곳에 모여서  
살기 위해 세운 성읍이 바로 바벨이었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니? 서

로의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결국 하나님의 계획대로 온 지면에 흠어지게 하셨잖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모든 것을 만드시기만 하지는 않았어. 처음에 빛을 만드시고는 첫째 날에 빛과 어둠으로 나누시고, 둘째 날에 하늘과 물로 나누셨으며, 셋째 날에는 땅과 바다로 나누셨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자 선별의 하나님, 구별의 하나님이신 거야.

레위 :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도 구별하셨다는 거야?

유다 : (레위를 돌아보고) 바로 그렇습니다. 구별하려고 하신 하나님의 뜻에 대해 아브

라함은 순종함으로 응답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갈데아 우르’에 살던 데라는 그의 아들인 아브라함과 하란,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와 하란의 아들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가고자 했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 중간에 있는 ‘하란’ 땅에 머물렀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구별하기 전에 데라를 먼저 부르셨는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데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까지 갔었다면, 축복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데라가 받았을 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하지만 데라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미처 도착하기 전에, 그 도중에 있는 하란 땅에 머물

러 버리고 말았습니다. 처음에 순종함으로 신앙의 씨를 심었다고 해도, 끝까지 인내하지 않으면 무슨 열매를 거둘 수 있겠습니까. 결국 데라는 하란 땅에서 죽고, 하나님의 축복은 끝까지 순종한 아브라함에게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 때까지 아브라함이 있던 곳에서 불러내어 새로운 민족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셨던 것입니다.

시므온 : 야, 유다야. 하나님이 새 민족을 이루시는 것도 좋지만 말이야 아무래도 이대로 있다가, 새 민족은 고사하고 우리 형제들

모두 여기서 꼼짝없이 다 죽게 생겼다.  
(레위를 보고) 야, 레위야. 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레위 : 형님, 지금 내 실력 몰라서 이러슈? 내가 옛날에 비해서 나이는 먹었지만 그래도 아직 기운은 남았소이다. 여기 경비병들이 들고 있는 칼 하나를 빼앗아 가지고는 몇 놈을 베어버리고, 저기 저 총리인지 뭔지 하는 놈을 인질로 잡으면 여길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유다 : (시므온과 레위를 번갈아 보며) 허, 형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시므온 : (유다에게) 야, 왜 그래? 넌 여기서 지금 죽고 싶어서 그러냐? (요셉이 있던 곳을

가리키면서) 아까 저 양반이 하는 소리 못 들었어? 우리를 여기 끌고오더니 다 짜고짜 첩자라잖아. 이거 아주 우리를 죽이려고 작정한 거라니까. 그럼, 앉아서 그냥 죽자는 거야 뭐야?

레위 : 여기서 이대로 죽으면, 남아 있는 영감이 나 어머니는 다 어찌려고? 어차피 죽는 거라면 앉아서 죽을 바에야 싸워보기라도 하자는 거 아니냐.

유다 : 제발 진정 좀 하세요. 저 사람 말은 당장 우리를 죽이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형님은 또다시 살인을 저지르자는 것입니까. 한 번으로도 모자라서 두 번이나 그 끔찍한 죄를 범하자는 건가요?



시므온 : 아니, 이 녀석 봐라. 아버님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너까지 우리를 죄인으로 모는  
거야? 너는 디나가 그런 꼴을 당했는데  
도 그럼 가만히 보고만 있었어야 한다는  
거야? 넌 디나가 불쌍하지도 않냐?

유다 : 형님, 그런 뜻이 아니잖습니까. 히위 족속  
세겜이 한 짓은 용서받을 수 없는 악행  
중의 악행입니다. 하지만 그 심판을 우리  
손으로 한다는 것도 옳은 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겜에  
대한 복수를 명하시거나 그 성읍을 심판  
하라고 명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  
들의 잘못을 사과하면서 우리와 평화롭  
게 살자고 제안해왔습니다. 그런데도 우

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우리 판단으로 그들을 무참히 살해하고 말았습니다. 세겜이나 그의 아비 하몰 만이 아니라 거기에 거주하는 남자들까지도 모두 죽여버리지 않았습니까.

레위 : 야, 유다야! 그렇다면 내가 하나 묻겠다. 네 생각에는 그들의 요구대로 우리가 이방인들과 함께 살아야 했다고 생각하냐? 그게 지금 네가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냐 이 말이야!

유다 : 그것을 제가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손에 피를 묻히는 것은 변명의 여지 없이 악한 일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선택한 방법이 무엇이었습니다.

시므온 : 그래. 얼마나 멋진 작전이었냐. 우리는 할레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우리 딸을 줄 수 없다, 너만이 아니라 너희 성읍에 거주하는 남자 모두가 할레를 받아야지만 너희와 함께 살겠다고 했지. 난 솔직히 그렇게 말하면 녀석들이 포기할 줄 알았는데, 그 녀석, 디나한테 아주 단단히 눈이 멀었더군. 아무리 세겜이 추장 아들이라고 해도 모든 남자한테 할레를 하라고 명령할 줄 누가 알았냐? 이런 절호의 기회를 놓칠 수야 있나. 할레를 하고 제일 아플 때인 3일째에 레위와 함께 가서 세겜과 그 아비 하몰 만이 아니라 그 성읍에 있는 사내놈들을 싹 죽여버리고 디나

를 구해온 것인데, 이봐, 유다. 그게 뭐?  
죄? 오히려 오라비로서 당연한 일을 한  
것 아니니?

유다 : 형님. 아까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  
님께서 그들에 대한 심판을 우리에게 명  
하신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할례를 이용했  
습니다. 할례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께서 언약의 증거로서 우리에게 허락하  
신 징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신성  
한 징표를 우리는 사람을 죽이는 방법으  
로 사용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비단 두  
형님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형제  
모두가 그들의 피를 묻힌 것이나 다름

이카호중앙교회(일본) 홍성필 목사  
[ikahochurch@gmail.com](mailto:ikahochurch@gmail.com) <http://www.ikahochurch.com>  
일본 복음화를 위한 선교후원 : KB국민은행 079-21-0736-251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또다시 살인을 계획하십니까. 형님, 여기는 지금 이집트입니다. 강대국 이집트입니다. 그리고 이 곳은 지금 이 나라의 황제와도 같은 분이 계신 곳입니다. 저기 저 철통 같은 경비를 보십시오. 저들은 세겜과 같은 시골 변두리 촌놈들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 유다 이야기 도중부터 막이 서서히 오른다. 무대 위에는 아까와 같이 요셉과 통역관, 그리고 경비병들이 서 있다.

레위 : 유다야, 그럼 어찌자는 거냐? 그냥 여기서

죽으랴?

유다 : (레위를 보고) 저들이 만약에 애초부터 우리를 죽이려 했다면 굳이 여기까지 끌고 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막내를 데려와야 우리가 산다면 데려와야지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막내를 데려올 방법을 찾아야만 합니다.

르우벤 : (흐느끼면서) 아니야. 아버지는 절대로 막내를 안 보내실 거야. 조용없어. 내가 말했잖아. 네가 아버지를 몰라서 그러니? 그 아이가 죽은 뒤로 아버지가 어떠셨는지 몰라서 그래? 이건 라헬의 저주라니까. 그 아이를 죽인 우리들이 천벌을 받는 거야. 우리들만 여기서 죽게 될 거야.

우리들만……. (흐느낀다)

단 : (일어서서 르우벤한테 담벼른다) 야,  
이 자식아! 닥치지 못해!

납달리 : (서둘러 단을 잡는다) 아이, 참. 형, 그  
만 하라니까요.

단 : 저 자식이 쓸데없이 재수없는 헛소리  
만 지껄이잖아!

유다 : (단을 보고) 조용히 해! 너 정말 왜  
그러냐! (르우벤을 보고) 형님, 관찮을 겁  
니다. 무슨 방법이 있을 거예요. 너무 걱  
정하지 마십쇼.

르우벤 : 그, 그래? 그럴까……. 아……. 유다야…….  
우리 살아서 돌아갈 수 있을까?

요셉 : (일어서서 신하들을 향해) 무엇들 하느냐!

저 놈(르우벤을 가리킨다), 아니, 저 놈  
(시므온을 가리킨다), 저 놈을, 저 놈을  
당장 옥에 가두라!

시므온 :야, 이거 뭐 하는 짓이야! 놈! 놓으라구!

- 시므온, 저항하나 연행된다.
- 형제들, 무언가를 하려 하는 자, 쫓아가려는 자,  
“형!”, “형님!”이라 부르는 자도 있으나, 결국 아무것  
도 하지 못한 채 끌려가는 시므온을 눈으로 좇는다.

(앞에 서 있었던 경비병 1, 2, 3이 시므온을 연행  
하여 우측으로 퇴장하면서 조명이 어두워진다.)



이카호중앙교회(일본) 홍성필 목사  
[ikahochurch@gmail.com](mailto:ikahochurch@gmail.com) <http://www.ikahochurch.com>  
일본 복음화를 위한 선교후원 : KB국민은행 079-21-0736-251

제2장 막.

이카호중앙교회(일본) 홍성필 목사  
[ikahochurch@gmail.com](mailto:ikahochurch@gmail.com) <http://www.ikahochurch.com>  
일본 복음화를 위한 선교후원 : KB국민은행 079-21-0736-251

## 제3장 고뇌

### - 야곱의 고뇌

등장인물:

야곱

장소

야곱의 집

- 조명은 스포트라이트 뿐
- 조명이 밝아진다 (또는 막이 오른다)
- 중앙에는 야곱이 옆(좌우 가능)을 보고 서 있다.

(옆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야기한다)

하……. 하……. 콜록콜록……. 하……. 하……. 비가 오지를 앓는구나. 왜 비가 오지 앓는 게냐. 곡식을 수확할 수도 없지 앓는가. 저기 땅들을 보거라. 붉은 빛으로 타들어가는 저 넓은 땅들을 보거라. 하늘에서 불덩이가 쉼 없이 쏟아지는 것 같구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이처럼

시련을 주시는지 모르겠구나.

먼 옛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자손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땅이 바로 이 곳 아니냐. 가나안 땅 아니냐. 축복의 땅 아니냐. 약속의 땅이 아니냐. 그런데 어찌하여 이처럼 타 들어가는 것이냐. 어찌하여 이처럼 풀 한 포기 나지 않는 폐허가 되고 말았느냐. 말이다.

얘들아, 이제 곡식이 떨어졌구나. 어서 이집트에 다녀와야 하지 않겠느냐. 저기 잡초들처럼 우리마저도 이 땅에서 이대로 말라 죽어야 한단 말이냐. 너희도 다녀와서 알겠지만 이집트에는 식량이 넘쳐난다 하지 않았느냐. 기름진 땅에서 사람마다 배불리 먹고 기뻐 노래한다 하지 않았느냐.

모르겠구나. 난 정말로 모르겠구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우리를 속이셨는가. 어찌 하여 축복의 땅 히브리는 기근으로 썩어 들어가고, 저 이방의 땅, 하나님을 모르는 저들 이집트는 곡식으로 넘쳐난단 말이냐.

얘들아, 또다시 다녀오려무나. 돈이라면 있지 않더냐. 예전에 곡식을 사올 때에는 어찌된 영문인지 그 비용이 모두 주머니 안에 들어있었다고 하는데, 너희들이 설마 식량을 훔쳤을 리가 없겠지. 암, 믿고 말고. 지난 번에는 뭔가 착오가 있었던 게야. 이번에 갈 때는 전날 식량 값까지 모두 가지고 가거라. 이런 먹지도 못할 돈 같은 건 얼마든지 가져가라.

어서 가서 식량을 사오거라. 그리고 잡혀있는 레위……. 아니, 시므온, 시므온도 데려오려무나…….

너희들, 이번에 가면 절대 딴 짓을 하지 말거라.  
도대체 무슨 짓을 했기에 정탐꾼이라는 누명을 쓰  
게 되었느냐. 허허어. 아무 짓도 안 했을 리 있겠느  
냐. 이집트가 어떤 나라인지 너희도 잘 알지 않느냐.  
이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화가 모두 그 곳에 있는  
것만 같다 하지 않았더냐.

어서 다녀 오너라. 어서 다녀 오너라. 그래, 레위  
……, 아니, 시므온이었지? 방금 말하지 않았느냐.  
그래, 시므온도 잊지 말고 데려오려무나…….

뭐? 뭐라구? 안돼!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야! 너희  
들은 도대체 왜 그리도 말귀를 못 알아 먹는 게야.  
이 늙은이한테서 똑같은 말을 몇 번이나 하게 만드  
느냐 이 말이다. 이 녀석들아. 내 나이가 벌써 130  
이다. 이대로 여기서 죽어야 속이 시원하겠느냐. 이

노인네를 괴롭혀서 그렇게 빨리 죽어버렸으면 좋겠  
냐 이 말이다! 콜록콜록……. 하……. 하…….

(몸을 돌려 관객 쪽을 향해 말을 한다)

여기에 모인 여러분, 오늘은 한 번 이 노인네의  
푸념이나 들어 주십시오. 뭐 그리 시간은 오래 걸리  
지 않습니다.

오오. 제가 무슨 잘못을 하였습니까. 하나님은 왜  
이처럼 고난과 역경을 내리신단 말입니까. 조부 아  
브라함에게는 약속의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이  
셨습니다. 아버지 이삭에게는 채우시는 하나님, 주  
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 야곱한테서만  
은 약속한 하나님이십니까. 빼앗는 하나님이신지 모

룹니다.

아버지 이삭이 저희 형제를 얻은 것은 60세 때였습니다. 노년에 얻으셨지만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은 나이가 100세인 것을 감안하면 40년이나 이른 편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제가 태어나기 전의 이야기를 어머니 리브가로부터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쌍둥이 형님 에서와 함께 어머니 복중에 있을 때 밤낮을 안 가리고 싸웠다고 하더군요. 괴로워하는 어머니를 대신해서 아버지 이삭이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은 재미있는 말씀을 하셨다더구만요. 리브가의 뱃속에는 두 민족이 있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민족. 두 민족..... 하하하. 두 민족이라니요!

하나님이라는 분은 본래 허풍이 센 편이라서 그



런지, 아니면 본래 저희 집안 내력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무엇이든 크게 말하는 버릇이 있는 것 같아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제 나이 열 다섯에 돌아가신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민족이나 자손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지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밤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고 이 땅의 티끌처럼 많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답니다. 이와 똑같은 말씀을 아버지 이삭도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말이에요. 단 하나 확실한 것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175년을 사는 동안 이스마엘과 이삭을 얻었을 뿐이고, 10년 전에 18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아버지 이삭은 저와 에서를 얻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밤하늘의 별? 바닷가의 모래? 그것 참. 흥!

저희 형제가 태어나던 날, 저보다 간발의 차이로 먼저 나온 에서는 그 때부터 피부가 붉었다고 하지요. 거기다가 털이 많아 이름을 ‘에서’라고 하고, 제가 태어날 때에는 먼저 나오는 에서의, 발의, 여기……(자기 발꿈치를 가리킨다. 한쪽 발로 서 있기 때문에 자세가 불안정하다) 발꿈치를 잡고 나왔기 때문에 이름을 ‘야곱’이라 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왜 발꿈치를 잡았는지, 모태에서 나오기 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 길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도 가끔 꿈을 꾸지요. 너무나도 조급한 심정입니다. 태중에서의 오랜 싸움은 바로 그 순간을 위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한줄기 빛을 향해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딘가로부터, 아

니, 제 가슴 속에서부터 큰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이대로 있어서는 안 돼! 머물러 있으면 안 돼! 팔  
을 뻗어! 손으로 잡아!

항상 그러면서 잠에서 깨어납니다. 심장은 가슴을  
두드리고 온몸은 식은땀으로 젖어있지요. 그리고 오  
른손에는 있는 힘껏 무엇인가를 잡아 당긴듯한 촉  
감이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웃으실지 모르겠습니  
다만, 그것은 틀림없이 130년 전 제가 태어날 때  
기억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대로 있어서는 안 돼! 머물러 있으면 안 돼! 팔  
을 뻗어! 손으로 잡아!

이 목소리는 제 평생을 따라다녔습니다. 어찌면  
아버지의 모습을 달갑지 않게 보았던 어머니 리브  
가의 영향이 컸는지도 모르지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머니는 매사에 적극적이었습니다.

두 분의 만남은 이랬습니다.

아버지 결혼상대를 찾기 위해 조부 아브라함은 가장 신뢰하는 종을 시켜서 자신의 고향인 ‘아람 나 하라임’이라고도 불리는 메소포타미아로 보내셨지요. 그가 도착한 때는 저녁 무렵이었다는군요. 낙타들을 데리고 성 밖에 있는 우물가에 머물러있었더니 마침 여인들이 물을 길으러 나왔다고 합니다.

그 때 이 종이 기도하기를 물을 길으러 오는 여인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 때에 자신만이 아니라 낙타들한테까지 물을 마시게 하는 여인을 하나님께서 주인의 아들 이삭의 부인으로 선택한 것인 줄 알겠다고 했다는군요.

이는 참으로 무모한 기도입니다. 당시 이 종이 끝

고 간 낙타만 하더라도 열 마리나 됩니다. 여러분, 여인의 힘만으로 그렇게 많은 낙타에게 물을 마시게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상상이 가시나요? 그것도 보통 낙타가 아니에요. 몇 날 며칠 동안 광야를 걸어서 목이 바싹 마른 낙타, 그 낙타가 열 마리입니다.

이 낙타들한테 물을 먹인다는 일은 성인 남자한테도 수고로운 일이었을 겁니다. 분명 상당한 수고와 시간이 필요했겠지요. 그런 일을 해줄 여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에요. 어찌된 일인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 여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미래의 제 어머니 리브가였습니다. 어머니는 이처럼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움직이는 사람, 팔을 뻗

는 사람, 손으로 잡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낙타와 우물 사이를 몇 번이고 왔다 갔다 하면서 고군분투를 하고 있는 모습을 이 좋은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로 이 여성이 주님의 아들 이삭의 결혼상대로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인물인지 어떤지를 확인하고 싶어서였겠지요.

마침내 리브가는 끝까지 해냈습니다. 그제서야 종이 그녀에게 어디 사는 누구인지 물었더니 그 답을 듣고 놀랐습니다. 조부 아브라함의 동생인 나훔의 아들 브두엘의 딸이라는 게 아닙니까. 쉽게 말하자면 이삭의 아버지의 동생의 아들의 딸.....촌수로 하자면 5촌. 더 쉽게 말하자면 꽤나 가까운 친척이라는 말이 되지요. 여러분께서는 이해하기 힘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는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의 신부 감을 찾기 위해 저 멀리 자신의 고향까지 종을 보냈던 이유는, 이방인이 아니라 가능한 한 자신과 가까운 인물을 찾기 위해서인데, 가깝다 못해 친척을 찾아낸 것이니 이처럼 반가운 일은 없지요.

조부 아브라함의 종은 자신이 거기까지 오게 된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이를 들은 그녀의 아버지 브두엘과 지긋지긋한……. 아니, 그 때는 아직 제가 태어나기도 전이었기 때문에 아직 아무런 감정이 있지도 않습니다만, 아무튼 그녀의 오라버니 라반은 그 자리에서 승낙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럼 가겠습니다”하고 따라 나설 여성이 얼마나 될까요. 그녀는 결혼할 상대는 물론이거니와 그 부

모님조차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리브가, 참으로 멋집니다. 곧바로 다음 날에 아브라함의 종과 함께 출발하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처럼 어머니는 매사에 적극적이셨지요. 참으로 남달랐던 여인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서도요.

그런 어머니가 이삭을 진정으로 마음에 들어 했을 리 만무합니다. 이삭은 다툼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저항을 모르는 사람, 욕심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말로 하자면 온순한 양과도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도 그렇겠지요. 아버지는 태어나서 고생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조부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머물면서 나날이 번성해져 갔습니다. 그가 100세 때 얻은 외아들 이삭은 경쟁자가 없었기에 아무런 욕심



없이, 그저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생이 그리 만만한 것이던가요? 그렇게 해서 어찌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조금만 더 노력하면, 조금만 더 머리를 쓰면 아버지는 얼마든지 더욱 번창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저 가만히 있을 뿐이에요. 도무지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하루는 아버지가 우물을 팠었던 적이 있었지요. 그런데 이웃이 와서 그 우물을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싸워야지요. 다투어야지요. 지켜내야지요. 물리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지요. 그러나 아버지는 이를 양보했습니다. 그냥 내주었지

뭘니까. 그리고는 다른 곳으로 옮겨 우물을 팠습니다. 그랬더니 또다시 이웃들이 시비를 겁니다. 그 우물을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싸우겠지. 인내심도 한계에 이르렀겠지 하고 짐작했었지만, 아버지는 이 때도 역시 내주었습니다. 고생해서 땀 흘려 파낸 우물을 땡전 한 푼 받지 않고 쥐버렸지 뭘니까. 어머니는 이를 보시고서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렇게 살지 않을 것입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고 당당히 주장하며, 내가 차지해야 할 몫은 반드시 차지하면서 살아가려고 다짐을 했었지요. 이대로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가만히 머물러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팔을 뻗어 손으로 잡고야 말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잡아야 할까요. 돈? 재산? 그런 것은 이미 있습니다. 아무리 어리숙한 아버지가 여기지기 나누어주었다 하더라도 충분히 남아 있을 만큼 아브라함은 유산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돈이나 재산을 탐한다는 것은 어리석고 유치한 짓입니다. 더구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로서 너무나도 부족한 욕심입니다. 이는 마치 저 나무에 달린 과일 하나를 탐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과일 하나? 열매 하나요? 그런 것은 모두 저 무지한 에서한테나 쥐버려도 아깝지가 않겠지요. 저는 그 과일이나 열매가 달린 나무 한 그루를, 아니, 그 나무로 메워져 있는 숲을, 그 숲들로 가득 찬 저 산들을 모두 차지하고야 말겠다는 다짐을 했었습니다.

이 야곱은 집안에 굴러다니는 돈이나 가축 몇 마

이카호중앙교회(일본) 홍성필 목사  
[ikahochurch@gmail.com](mailto:ikahochurch@gmail.com) <http://www.ikahochurch.com>  
일본 복음화를 위한 선교후원 : KB국민은행 079-21-0736-251

리 정도 가지고 만족할만한 그릇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제가 차지하고자 했던 것은 그 외 모든 것!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 차지로 만들자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상속권을 얻어야 합니다. 간발의 차이로 나중에 태어났다고 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야 없지 않겠습니까. 다른 것은 용납하더라도 저 에서에게 상속권을 빼앗길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계보를 더럽힐 수는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으로 이어지는 축복의 계보는 에서의 하나님이 아닌, 무슨 일이 있더라도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기침을 한다)

오직 그것만이 내가 살아갈 길, 내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심하게 기침을 한다)

(목상태를 가라앉히기 위해 이 때를 대비해 음료 등을 준비해놓는 것도 좋다)

아아, 장손. 아아, 장자권. 제가 태어날 때부터 그토록 원했던 장자권을 저 자는, 저 붉고 털북숭이에 짐승을 쫓아다닐 줄 밖에 모르는 에서는 제가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얻을 수 없는 장자권을 아무런 노력 없이 차지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장자권은 사치입니다. 무용지물입니다. 값진 진주를 돼지 앞에 던져주는 것이나 다름 없는 노릇입니다. 저는 기회를 노렸습니다. 아아, 참으로 오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날이 온 것입니다.

여느 때와 같이 아침 식사를 마친 후에 에서는 사냥을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장손으로서의 책임을 잊지 말고, 어디를 가든지 몸조심 하도록 일렀으나 에서는 언제나 이를 경솔하게 여기며 한쪽 귀로 흘려 들었습니다.

사냥을 마치고 돌아오면 그는 항상 허기져 있었습니다. 그가 돌아오면 집에 있는 공간을 뒤져서 굶주린 짐승이 먹이를 탐하듯 먹어 치우곤 했습니다.

저는 그가 사냥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목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가장 좋아하는 색깔로 만들어진 음식을 끓여놓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붉은 팔죽입니다.

그 날 붉은 팔죽을 떡과 함께 만들어 놓고는 바람 부는 쪽에서 자리를 잡고 에서를 기다렸습니다.

멀리서부터 그의 식욕을 자극하기 위한 지혜였습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생각해도 정말 멋진 작전 아닙니까. 그의 우둔한 머리가 어찌 이 야곱을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과연 그는 뒷에 걸려들었습니다. 그날 따라 유독 피곤했는지 그는 차려놓은 음식이 무엇인지, 어떤 맛인지도 몰랐나 봅니다. 멀리서부터 냄새를 맡고는 허겁지겁 달려와 저를 보더니, 어서 그 붉은 것을 달라고 성화였습니다.

내심 저는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그래. 내가 주고 말고. 너한테 먹이기 위해 만들어 놓은 거야. 하지만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침착해야만 합니다. 저는 내색하지 않고 애써 태연한 척을 하며 조용히 에서에게 말했습니다.

형님, 물론 드리겠습니다. 누구보다도 소중한 형님의 부탁이신데 안 드릴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들어주실 수 있으신가요?

본래부터 성미가 급한 에서입니다. 조건이고 뭐건간에 어서 그 붉은 것을 내놓으라고 고함을 칩니다. 저는 동요하지 않고 하나하나 침착하게 말을 골랐습니다. 여기서 실수하면 모든 것을 그르치고 말기 때문입니다.

형님, 여기 떡과 팔죽이 있습니다. 이는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그 대신, 형님이 가지고 계신 장자의 명분을 오늘 저에게 팔아주십시오.

그러자 에서는 말합니다.

장자의 명분? 내가 지금 배가 고파 정신이 혼미한데, 먹을 수도 없는 장자의 명분이 뭐가 대수냐.



여기서 안심하면 안 됩니다. 기회는 한 번 뿐입니다. 단단히 다짐을 받아 놓아야 합니다. 저는 재차 확인했습니다.

형님, 그렇다면 장자의 명분을 이 야곱한테 파시켰다고 맹세해주세요.

예상했던 대로 그는 화를 냅니다. 알았어. 맹세해. 맹세할게. 장자의 명분 따위는 너나 다 가져라. 그러니, 어서 그걸 내놓으란 말이야

그 순간, 저는 얼마나 기뻐는지 모릅니다. 떡이고 팔죽이고 간에 모든 것을 버리고 기뻐 뛰어다니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해야 합니다. 침착하게 일을 진행시켜야 합니다. 에서가 저에게 장자권을 팔았으니 대금을 지불해야만 하지요. 그렇지 않는다면 계약 자체가 성사되지 않습니다. 제가 그에게 떡과

이카호중앙교회(일본) 홍성필 목사  
[ikahochurch@gmail.com](mailto:ikahochurch@gmail.com) <http://www.ikahochurch.com>  
일본 복음화를 위한 선교후원 : KB국민은행 079-21-0736-251

팔죽을 건네주어야 비로소 제가 장자의 명분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갓 구어 낸 떡과 붉은 팔죽을 정성껏 차려 주었습니다. 예서는 제 마음도 모르고 게걸스럽게 먹어 치우고는 고맙다는 말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아아, 야곱. 그렇습니다.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발뒤꿈치라는 뜻이지요. 예서로부터 장자의 명분,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 모태에서 나올 때 잡은 그의 발뒤꿈치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 야곱이 이제는 뜻을 이룬 것입니다. 태어날 때 갈망했던 꿈을 이제서야 이루어낸 것입니다.

그렇다고 당장 무엇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아버지는 예서를 사랑하고 그가 잡아오

는 사냥감을 즐겨 먹었습니다. 예서가 아버지를 사랑했기 때문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가 사랑했던 것은 사냥이었습니다. 그가 사랑했던 것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아하, 그러고 보니 또 사랑했던 것이 있었지요.

아버지 이삭은 예서가 장자권을 저에게 넘겨주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서가 그 사실을 아버지에게 알리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였습니다. 저도 그 정도 눈치는 있습니다. 그런 사실을 아버지에게 굳이 말할 필요는 없지요. 장자권의 양도는 아버지의 승인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서의 어리석은 선택에 의해 이미 성사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오래 전부터 예서의 결혼에 대해서 생

각했습니다. 우리는 쌍둥이 형제였기 때문에 저도 당연히 에서와 동갑이었지만, 아버지는 자신이 사랑하는 에서의 결혼을 우선시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 머리에는 어머니를 얻었던 나이인 마흔 살을 염두에 두고 있는 듯했습니다. 우리 형제가 마흔이 되는 해는 아버지 이삭이 백 세를 맞이하는 해이기도 했지요. 조부 아브라함을 사모하던 아버지는 어머니 리브가를 얻었을 때의 본을 따라 에서의 부인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하하하. 그런데 이 어리석은 에서가 한 짓을 보십시오.

그는 아버지의 바램을 무시한 채, 아브라함의 고향인 ‘아람 나하라임’,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가 아닌 헷 족속 여인을 사랑하여 결혼까지 해버렸던 것

입니다. 그것도 두 아내를 한 번에 맞이한 것입니다. 어쩌면 이리도 무지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루려고 하시는 그 뜻을 알지도 못하고, 그저 자기 눈에 좋을 대로 행동하는 저 어리석은 에서의 모습이라니요! 보십시오. 이 때문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얼마나 근심하셨는지를 말입니다. 하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에서에 게 효심이 있다는 말도 거짓이요, 장자로서의 자격이 있다는 것도 거짓이요, 하물며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어 나갈 능력이 있다는 것도 거짓입니다. 그는 어차피 세속적이고 어리석은 인간입니다. 그가 사랑한 것은 사냥, 자기 자신 그리고 이방인의 여인들. 한편으로 그가 소홀이 한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축복의 언약은 저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는 점차 몸이 허약해져 갔습니다. 매년 나이를 먹으니 당연하다면 당연한 일이었겠으나, 눈이 안 보이게 되었을 때에는 솔직히 놀라신 것 같았습니다. 먼 곳은 물론이고 요즘에는 가까운 곳도 잘 알아보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눈이 어두워지니 당신도 장래 일이 갑자기 불안해지셨나 봅니다. 그날 아침, 아버지가 에서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냥을 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요리를 만들어서 가져오라고 하셨답니다. 나는 이제부터 언제까지 살 수 있을지 모르기에 그것을 먹고 너에게 마지막 축복을 해주겠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그런 수가 있었구나” 했습니다. 마지막 축복을. 여러분께서는 마지막 축복이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그렇습니다. 이는 분명히 유언입니다. 틀림없이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 그러니까 상속자로서의 축복을 해주겠다고 하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에서는 이미 장자의 권리를 이 야곱에게 팔았습니다. 그에게는 이제 아무런 권리도 능력도 자격도 없습니다. 아버님, 잊으셨습니까. 어머니가 저희 형제를 잉태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와 같은 응답을 받았다고 아버지가 어머니께 말씀하셨다면서요. 그러나 당신은 이 일을 저희 형제에게는 숨기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자신의 마음을 앞세워서 억지로 에서를 장자로 세우시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신이 사랑한 에서를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계획을 모릅니다.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언약도 모릅니다. 하나님도 에서는 미워하실 것입니다. 그가 있는 곳은 황폐해지고 그가 가진 모든 재산들은 광야에 있는 이리떼들에게 넘겨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야곱은 에서보다 강해질 것이요, 에서는 야곱을 섬기게 되어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은 이 야곱을 사랑하십니다. 이 야곱이야말로 언약의 혈통을 이어갈 인물인줄 왜 모르십니까. 왜 인정하



려 하지 않으십니까.

당장이라도 아버지 앞으로 달려가서 제 마음을  
쏟아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러자 가슴 속에서 또다시 그 소리가 들려왔습  
니다.

“이대로 있어서는 안 돼! 머물러 있으면 안 돼!  
팔을 뻗어! 손으로 잡아!”

어머니는 제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별을 받는 한  
이 있더라도 축복은 네가 받아야 한다고.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눈이 어둡기 때  
문에 네가 대신 가서 축복을 받으라고 말입니다.

솔직히 저는 당황했습니다. 생각해보십시오. 저는  
축복 받기를 원했지 저주 받기를 원하지 않았습니  
다. 이제껏 살아오면서 득이 되는 일은 해왔지만 손

해 볼 수도 있는 일은 가급적 피해왔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번 일이 들키기라도 해보십시오.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아니 될 말씀입니다. 이 야곱이 일생을 망칠 수는 없습니다.

아아, 50년도 더 된 일이지만 지금 생각해도 식은 땀이 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눈이 어둡다고는 하나, 건장한 체구에 털이 많은 에서와, 왜소한 몸집에 매끈매끈한 피부를 가진 저는 너무나도 차이가 납니다. 더구나 저는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요리를 만들 줄 모릅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막무가내였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저주를 받게 되는 일이 생기면 그 저주는 모두 자신이 받을 테니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라고

성화입니다. 그리고는 에서의 옷을 가져와 제게 입고서 몸에서는 에서의 냄새가 나도록 하고, 손과 팔은 양가죽을 덮어서 털이 난 것처럼 꾸미자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가서 염소 두 마리를 가져오면 요리를 만들어 올 테니, 그것을 가지고 아버지한테로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보면 여성의 강인함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먼 옛날 메소포타미아 우물가에서 열 마리 낙타에게 물을 먹였을 당시의 어머니 눈빛을 본 듯했습니다.

어머니가 가져다 준 염소 요리를 들고 아버지가 계신 방으로 들어갈 때 제 손은 떨고 있었습니다. 머리와 온 몸은 땀으로 범벅이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체취와 팔에 난 털은 옷과 양 가죽으로 속일 수는

있을지언정 목소리는 어찌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아버지……라고 조용한 목소리로 부르자 조금 미심쩍은 표정을 지으십니다. 그러면서 고개를 이 쪽으로 돌리시는데 얼마나 떨렸는지 상상이 가십니까.

아버지는 물으십니다.

그래, 나를 부르는 너는 누구냐.

이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저는 결사적인 각오로 말씀 드렸습니다.

에서입니다. 아버지 장자인 에서입니다. 분부하신 대로 사냥한 염소로 요리를 만들었으니 마음껏 드십시오.

그러나 아버지는 여전히 미심쩍은 눈치입니다. 목소리도 목소리이지만 사냥하고 요리를 한 것치고는 너무나도 일찍 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알고는 있었으

나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기회는 단 한 번 뿐. 이번 기회를 놓치면 두 번 다시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제 팔을 쓰다듬었습니다. 목소리는 야곱인데 팔은 에서라면서 몇 번이고 팔을 어루만지십니다. 저는 당장이라도 에서가 들어올 것만 같아 두려움에 떨었으나 이미 어찌할 수 없는 상황까지 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대로 밀고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침내 아버지는 알았다는 듯이 음식을 가져오라고 하시고는 모두 드시고, 마지막에 드린 포도주까지도 모두 깨끗하게 잡수셨습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제게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아버지 이삭의 최후이자 최대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축복의 말씀을 지금도 토씨 하나 안 틀리고 외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하늘의 이슬을 주시고 네 땅을 기름지게 하시며 너에게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주시기 원하노라. 수많은 민족이 너를 섬기고 모든 나라가 너에게 굴복하며 네가 네 형제들의 주인이 되고 네 친척들이 너에게 굴복하기 원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 원하노라”

아아, 이 세상에서 이처럼 아름답고 이처럼 놀라운 축복이 어디에 있을까요. 장자권을 넘겨받은 이 야곱은 이제 명실상부한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의 언약을 이어갈 인물로 거듭난 것입니다. 이제 저는 축복의 사람, 이제 저는 언약의 사람, 이제 저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흥분한 가슴을 움켜잡고 아버지 앞을 물러나자 곧바로 에서가 들어왔습니다. 실로 간발의 차이였지요.

“아버지! 에서가 왔습니다! 아버지의 자랑, 아버지의 장자 에서가 왔습니다! 자, 방금 사냥한 염소로 만든 제 요리를 드십시오. 그리고 어서 제게 축복해주십시오. 마음껏 축복해 주십시오!”

저 뒤로 에서의 힘찬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여기까지 듣고 나서 정신 없이 달려나갔습니다. 이후에 벌어질 상황은 익히 짐작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는 자신의 축복을 놓쳤습니다. 빼앗겼습니다. 저는 장자라는 명분과 축복이라는 실리를 모두 얻어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에서는 패자요 야콥은 승자입니다. 이제 그 누구도 무를 수는 없습니다.

취소할 수 없습니다. 반복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소 계산착오는 있었습니다. 만약 에서가 이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팔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을 때처럼, 금새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어머니가 황급히 저를 찾아오시더니 어서 도망치라고 합니다. 왜 그러시냐고 물었더니 에서가 저를 죽이겠다며 찾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에서가 이렇게까지 화를 낼 줄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어머니도 마찬가지였겠지요. 하지만 이제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일은 이미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만난 다음 자신의 고향으로 도망치라고 합니다. 에서의 화가 풀린 후에 다시 불



러오겠다고 합니다. 제가 속인 아버지를 염치도 없이 어찌 만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사실을 알아버린 아버지가 제게 저주를 내리실지 누가 알겠습니까. 저는 그냥 이대로 나가겠다고 하자 어머니는 만류합니다. 괜찮다면서 한 번만 만나보고 가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떠나기 전 저는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불안에 떠는 저를 보는 아버지의 모습은 어딘지 모르게 모든 것을 체념한 듯했습니다. 어찌면 일이 언젠가는 이렇게 되리라는 것을 예상했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버지는 제게 당부했었지요.

너는 아브라함의 고향이자 어머니의 고향인 메소포타미아 밧단아람으로 가서, 어머니의 오라버니인 라반을 찾으라. 그리고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할 것, 절대 이곳 가나안 여인이 아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고 당부를 했지요. 그러고는 저주 대신 다시 한 번 뜨거운 축복,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큰 민족을 이루도록,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땅을 차지하는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해주셨습니다.

집을 나서는 길, 저는 아버지를 돌아보았습니다. 언제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 기약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아닌, 어머니를 다시 한번 만났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어머니를 본 마지막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노령은 아니되 제 나이 일흔 일곱. 14년 전에 세상을 떠난 이스마엘이 137년을 살았고, 아브라함이

175년을 살았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77세가 그리 적은 나이는 아닙니다. 가장으로서 한 집을 이끌어도 손색이 없는 나이인데, 야반도주처럼 자기 집을 나와 낯선 곳으로 가고 있는 제 신세가 처량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한 과정이라고 믿었습니다. 축복이 임하는 과정이라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참아야지요. 견뎌야지요.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향하는 제 발걸음은 축복으로 향하는 발걸음이라고 굳게 믿으며 한 걸음씩 내디뎠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외삼촌 라반을 찾아 갔더니 저를 반갑게 맞이해주었습니다. 참으로 반갑기도 하고 서럽기도 하여 눈물이 멈추질 않더군요. 저는 한 달 동안 그 집에 머물면서 외삼촌의 일을 도왔습니다.

그러는 저를 불쌍히 여겼는지, 아무리 친척간이라 하더라도 무보수로 일을 하도록 할 수는 없다면서 제게 월삿을 정하라고 하더군요. 그때 마침 제 머리에는 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랐지요. 아내를 맞이할진대 가나안 딸들이 아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는 말씀입니다. 그에게는 당시 두 딸이 있었습니다. 위는 레아, 동생은 라헬이었습니다. 아아, 라헬. 그녀는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밧담하람에 도착하여 처음 그녀의 얼굴을 본 순간 저는 철도 없이 반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들판에서 양을 모는 그녀의 모습은 한 폭의 그림과도 같았습니다.

가족이나 재물은 이 세상 어디를 가도 있습니다. 하지만 라헬, 저 아름다운 소녀 라헬은 바로 여기 이곳에만 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라헬을 아내

이카호중앙교회(일본) 홍성필 목사  
[ikahochurch@gmail.com](mailto:ikahochurch@gmail.com) <http://www.ikahochurch.com>  
일본 복음화를 위한 선교후원 : KB국민은행 079-21-0736-251

로 달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7년을 섬길 것을 말씀 드렸지요. 은금을 요구할 줄 알았던 외삼촌은 놀라더니, 너와 나는 피를 나눈 한 집안이기에, 내 딸을 남에게 주는 것보다 낫다고 하면서 흔쾌히 승낙하였습니다.

그 때부터 저는 하루하루가 즐거움의 나날이었습니다. 이 나이를 먹도록 마음에 둔 여인이 없었으나, 처음으로 여인을 사랑한 것입니다. 사랑이란 참으로 신기합니다. 일이 아무리 힘들고 고달프더라도 이처럼 마음에 기쁨이 넘칠 수가 있다니 말입니다. 저녁에 일을 마치고 고단한 몸을 침상 위에 눕힐 때조차도 아침을 기다리는 것이 너무나도 즐거웠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면 그만큼 라헬에게 가까워지는 일이니 어찌 즐겁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때까지만 하더라도 외삼촌 라반은 대단히 좋은 사람인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라반과의 악연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어찌 제가 알았겠습니까.

저는 하루도 빠짐없이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부지런히 일했지요. 외삼촌을 위한 일이 아닌 라헬을 위한 일이라 생각하며 헌신적으로 일하였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7년이 지났을 때, 저는 라반에게 라헬과 혼인시켜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라반은 벌써 그렇게 되었냐면서 그 지역 사람들을 다 모아 잔치를 베풀어주었습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맛보는 즐거운 날이었습니다. 본가에 있을 때를 기억하면 항상 아버지는 장자라는 이유로 에서를 내세웠습니다. 모든 잔치, 모든 행사

에 있어서 그 가운데에는 아버지와 에서가 있었지요. 어머니와 저는 그 곁을 지키면서 허드렛일을 하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잔치는 제가 주인공이었습니다. 라헬을 맞이하는 새신랑 야곱이 그 잔치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모두가 저를 축하해주었습니다. 모두가 저와 기쁨을 함께 해주었습니다.

희락과 포도주에 취했기 때문일까요. 자리에 눕자 저는 어느새 깊은 잠에 빠져들어갔습니다. 난생 처음 여인을 안은 것 같았으나 기억도 가물가물합니다. 그래도 저는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라헬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얻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게 웬 일입니까. 아침에 일어나보니 제 곁에 누워 있는 이는 라헬이 아니라 그의 언니 레

아였습니다. 그녀는 시력이 약해서 실수로 제 곁에 누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외삼촌 라반이 저를 속이고 라헬 대신 레아를 제 옆에 누인 것이었습니다.

라반은 나쁜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지나간 7년은 누구를 위한 세월이었던 말입니까. 평생 동안 다른 이들을 지혜로 이긴 적은 있었으나 이처럼 당해본 일은 처음입니다.

저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따졌지요. 이처럼 화를 낸 것은 처음이 아닐까 합니다.

한편 라반은 태연합니다. 이곳 관행상 언니보다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내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 레아를 먼저 품에 안게 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 사실을 왜 이제 와서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왜 7년 전에 미리 그 말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까.

라반은 말합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라헬도 주겠다. 그러나 일단 7일을 레아와 함께 채우라. 그 후에 라헬도 주겠으니 또 7년 동안 자신을 위해 일하라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처음 7년은 레아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라헬을 위한 7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레아도 주고 라헬도 줄 테니 7년을 더 섬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온전히 라헬 만을 사랑했습니다. 이제부터 라헬을 위해 7년을 섬기라고 한다면 지금까지의 7년은 레아를 위한 7년이었던다는 것입니까. 레아를 얻고자 하는

마음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저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라반을 향해 더욱 쏟아 부으려고 하였습니다. 당신은 거짓말쟁이요. 사기꾼이요. 내 7년을 돌려주시요. 돌려달란 말이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라반에게 험한 말을 하는 동안, 저기 구석에 앉아서는 고개를 숙인 채로 소리 없이 우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레아였습니다. 그녀에게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레아가 저를 속이자고 한 것도 아니요, 모두가 자신의 아버지 라반이 계획한 일이고, 레아는 그저 순종했을 뿐이었습니다. 이미 저와 하룻밤을 보냈으니 제가 버리면 갈 곳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라반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사실 이대로 나가게 된다 하

더라도 제게는 아무런 재산이 없습니다. 숙식 말고는 오직 라헬을 위해 보수도 없이 7년 동안 일을 해왔기에, 이대로 나가서 가정을 꾸릴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머리 속에서 라헬이 떠난 적은 한 번도 없었으나, 언니 레아를 생각하니 측은하게 여겨졌습니다. 라반은 레아를 여종 실바와 함께 주었습니다. 저는 레아를 위로하고 약속대로 7일을 그녀와 함께 보내기로 했지요.

내심 불안감을 지울 수는 없었으나 다행히 7일 후에 라반은 라헬을 여종 빌하와 함께 주었습니다. 아아, 라헬과의 결혼생활은 참으로 즐거웠습니다. 이미 나이는 여든을 넘겼으나 이처럼 아름다운 여인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저는 아이를 원했습니다. 자손을 원했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만을 믿고 그저 바라보기만 했던 아브라함과 이삭……. 그들이 조금만 더 노력을 했었더라면 보다 많은 재물과 보다 넓은 영토를 차지할 수 있었을 텐데도 그저 기다리기만 했습니다. 자손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과 이삭, 이삭은 저와 에서 둘만을 얻었을 뿐 아니겠습니까. 이래가지고 어떻게 밤하늘의 별들과 이 세상의 티끌처럼 많은 민족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그렇다고 치고, 이상도 하지요. 저는 라헬을 더욱 사랑하였으나 도리어 레아를 통해 득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연년생으로 말입니다. 첫 아들 르우เบน을 얻었을 때의 기쁨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그 이후로 시므온, 레위, 그리고 유다를 얻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조부 아브라함이나 아버지 이삭이 얻은 축복의 두 배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이 야곱이 살아가는 방법, 축복을 받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라헬이 시기를 합니다. 어찌하여 레아 만이 득남을 하냐고 역정을 냅니다. 하지만 제게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라헬의 마음을 달래기에 이 야곱은 역부족이었습니다.

여자란 참 무섭더군요. 자신을 대신하여 자신의 여종 빌하에게서 아들을 낳아달라고 청합니다.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냐고, 안 될 노릇이라고 말렸으나 도무지 듣지를 않습니다. 어디서 들었는지 아브라함도 그의 부인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언지 았았냐면서 저를 설득하려 듭니다.

분명 이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고 하였으나, 큰 민족은커녕 아이 하나 낳지도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기다렸습니다. 아니, 더욱 고대했던 것은 조모 사라였을 것입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신다. 후사를 주신다. 그녀는 인내하고 또 인내하였습니다. 그리고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요. 사라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기다릴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자기를 대신하여 자신의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득남하게 해달라고 아브라함에게 당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이가 이스마엘이니겠습니까.

그 누구도 사라를 탓할 수는 없겠지요. 어찌면 그

녀는 10년을 기다렸다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을 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일로 인하여 한 지붕 아래에서 얼마나 많은 분란이 일어났습니까. 아이를 갖게 된 하갈은 여종이라는 신분도 망각한 채 자신의 주인인 사라를 멸시하고 모욕하였습니다. 어리석은 여인이지요.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던 해에 성취됩니다. 하란을 떠난 지 25년만의 일이었지요. 그러자 14살이나 더 먹은 이스마엘이 이삭과 잘 지냈었다면 좋았겠지만 그가 이삭을 괴롭혔다고 하지요. 가만 두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어머니라면 아들도 아들입니다. 이 일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근심이 되어 결국 이스마엘과 그의 어머니인 하갈은 광야로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낳은 이스마엘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낳은 이삭은 함께 할래야 함께 할 수 없는, 그야말로 물과 기름이었습니다. 함께 할 수 없었던 것은 단순히 이스마엘과 이삭 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 없이 사람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서로 함께 할 수 없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역지를 부리는 라헬의 태도에 대해 처음에는 화도 냈습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에 대해서 몇 번이고 자세히 라헬에게 설명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타일러도 라헬은 막무가내입니다. 저는 그 마음 속에 타오르는 시기를 잠재울 수 없었던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저는 그녀의 여종 빌하와 하룻밤을 지냈습니다. 이것을 여자의 집념 때문이라고 할까요. 놀랍게도 여종 빌하가 아이를 갖더니 놀랍게도 아



들을 얻었던 것입니다. 이름을 ‘단’이라 불렀지요. 이를 두고 기뻐한 나머지, 라헬은 둘째 아들을 원했습니다. 저는 적지 않게 불만이었습니다. 저는 라헬을 이처럼 사랑하는데 그녀는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이만을 바라보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나 이미 저는 여성의 시기와 집념을 이기기는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빌하를 통해서 두 번째 아들 ‘납달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니 레아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시다. 레아도 자신의 여종 실바를 통해서 득남을 하겠다고 나섭니다.

본래 자손에 대한 욕심은 제가 강하다고 생각했으나, 그녀들의 집착에 비할 수는 없었습니다. 끝내

이카호중앙교회(일본) 홍성필 목사  
[ikahochurch@gmail.com](mailto:ikahochurch@gmail.com) <http://www.ikahochurch.com>  
일본 복음화를 위한 선교후원 : KB국민은행 079-21-0736-251

는 레아에게서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가, 라헬의 여종 빌하에게서 단과 납달리가, 레아의 여종 실바에게서 갓, 아셀이, 또다시 레아에게서 잇사갈, 스불론이 태어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들어주십시오. 드디어 사랑하는 라헬에게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들이 태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기뻐해주세요. (관객을 돌아보면서) 여러분은 벼로 기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만……. 너무 그러지 마시고, 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드디어 라헬에게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뻐해주세요! (관객들의 박수를 재촉한다)

하하하. 감사합니다. 이야, 정말로 기뻐어요. 그녀

가 기뻐하는 얼굴이 지금도 눈을 감으면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그 아이 이름이 바로 요셉이지요. 요셉. 요셉……. 아아, 요셉……. 요셉…….

요셉을 얻은 해는 외삼촌 라반과 약정을 맺은 또 한 번의 7년 기한이 차는 해였습니다. 저는 라반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의 요구대로 7년을 섬겼습니다. 애초에 저는 7년을 섬기고 라헬을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당신은 나를 속이고 14년을 부려먹었습니다. 이제 그만하면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나를 내보내시오. 나를 놓아주시오. 나에게 자유를 주시오.

이 말을 들은 라반은 당황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도 그렇겠지요. 자신의 딸을 핑계 삼아 14년 동안 을 거의 무보수와 다름 없게 혹사시킨 제가 갑자기

떠난다고 했으니깐요. 어디 그 뿐인가요. 지금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제가 섬기기 전과 비교하면 천지 차이입니다. 처음 소유는 초라하기 짝이 없었지만, 지금 저 가족 떼를 보십시오. 제가 섬기고 난 다음부터 얼마나 번성하였습니까.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뭇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나를 가게 해주세요. 나도 내 가정을 지키고 번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라반은 새로운 제안을 하지요. 그렇다면 새로운 보수를 저더러 정하라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주겠다고 하는군요. 저도 간교하다는 말을 들어왔지만 이 인간도 보통이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는 저보다도 한 수 위입니다. 제가 자기 자신을 위해 얼마

나 헌신적으로 일하고 얼마나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존재인지를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속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기를 철저히 거부하는 사람, 아무리 피를 나눈 저라 하더라도 자신의 것은 단 한 푼이라도 절대로 주지 않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쉬운 마음에 저렇게 말을 하고 있기는 하나, 결국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저를 또다시 도구로 쓸 셈입니다. 이제 더 이상 그 수에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저는 라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제 청을 들어주신다면 품삯을 지금 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 대신 앞으로 새롭게 태어날

이카호중앙교회(일본) 홍성필 목사  
[ikahochurch@gmail.com](mailto:ikahochurch@gmail.com) <http://www.ikahochurch.com>  
일본 복음화를 위한 선교후원 : KB국민은행 079-21-0736-251

가축들 중에서 얼룩무늬, 줄무늬나 검은 색 양들, 그리고 점박이와 얼룩무늬 있는 염소들이 나오면 제 품삯으로 쳐주십시오. 이런 것들은 제 우리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언제든지 제 우리를 돌아보시고 얼룩무늬, 줄무늬나 검은 색이 아닌 양들이 있다거나, 아니면 점박이나 얼룩무늬 외의 염소가 있다면 이는 모두 도둑질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욕심 많은 라반이 이 제안을 물리칠 이유가 없지요.

그는 말합니다.

그래, 좋다. 그리고 나서 라반은 어지간하게 부지런히도 움직이더군요. 우선 자신이 가진 가축들 중에서 무늬가 있는 염소와 검은 양들, 조금이라도 줄

무늬가 있거나 검은 색을 띠는 것만 같은 놈들을 가려내어 모두 자기 아들들한테 나누어주었습니다.

남은 흰색 양들과 무늬가 없는 염소들을 라반의 것으로 삼고, 이들을 제 손에 맡겼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텅 빈 제 우리로부터 사흘길이나 떨어진 곳에 자신의 새로운 우리를 만들었더군요. 이제 절대로 서로의 가족들이 섞이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한 것입니다. 도대체 이 인간은 얼마나 지독한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자기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다니까요.

자, 이제부터 드디어 이 야곱의 힘을 발휘할 때가 왔습니다. 무늬가 없는 염소들을 교배시켜 무늬가 있는 염소들로 만들어 내야 합니다. 흰 양들을 교배시켜 무늬 있는 양들과 검은 양들을 만들어내야 합

니다. 하하하. 여러분은 이게 쉽게 들리나요? 이견 말이죠. 좀 과장되게 말하자면, 물과 물을 섞어서 술을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상식적으로 본다면 잘 될 리가 전혀 없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성공시키지 않으면 제 뭉, 제 보수를 챙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누구입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야곱입니다.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아버지의 마지막 축복도 빼앗은 제가 이 정도로 포기를 하겠습니까. 라반이 그렇게 나온다면 저는 물러설 수 없지요. 라반이 라반이라면 야곱도 야곱입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움직일 차례입니다. 우선 버드나무와 살구나무, 그리고 플라타너스의 푸른 나뭇가지들을 모아와서는 껍질을 벗겼습니다. 이를 양들이



물 마시는 곳에 꽃아두면 얼룩무늬가 생깁니다. 왜 이렇게 했냐 하면, 가축들은 이 물 마시는 곳에 와서 짹짹기를 하거든요. 얼룩무늬 나뭇가지들 보고 짹짹기를 한 가축들은 얼룩무늬 새끼들을 낳고, 이를 보지 않고 짹짹기를 한 가축들은 무늬 없는 새끼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튼튼한 가축들이 짹짹기를 할 때에는 이 얼룩무늬 나뭇가지들이 보이게 하고, 허약한 가축들이 짹짹기를 할 때에는 이 나뭇가지들이 안 보이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허약한 양과 염소들, 무늬 없는 가축들은 모두 라반의 것이요, 튼튼한 가축들, 얼룩무늬 가축들과 검은 색 양들은 모두 이 야곱의 차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야곱의 실력입니다! 천재적이지 않습

니까? (손짓으로 박수를 재촉한다)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야곱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한낱 라반이 어떻게 저를 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6년이 지나자 제 가정은 흥하고 라반의 가정은 쇠하여 갔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을 라반과 그의 아들들이 달갑게 여길 리가 없습니다. 라반의 아들들을 보면 그 아버지에 그 자식들입니다. 처음에 자기 아버지로부터 무늬 있는 가죽들을 물려받은 그들은, 제 뭇이 늘어가는 것을 보고, 자신들의 뭇을 제가 가로채고 있는 듯한 착각을 했는지 저를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가죽들도 제 손에 걸리면 건강하고 튼튼한 얼룩무늬 가죽들이 나오는 것을 보고, 마치 자신들 것을 제가 빼앗아가는 것처럼 보였나 봅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지요. 딱한 녀석들입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들의 아버지한테 일러바칩니다. 그래도 자존심이 쥐꼬리 만큼은 있었는지, 자신들 몫을 빼앗긴다고는 하지 않고, 제가 라반의 것을 빼앗는다고 한 것입니다. 어차피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도 유분수 아닙니까. 한심하기 짝이 없지요. 하지만 자기 새끼들이 귀여워서였을까요. 아니면 자기도 시기가 있어서였을까요. 라반은 저를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직감한 저는 이제 이곳을 떠나 제 고향 가나안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지요. 언제까지 저 악랄한 라반 집에서 눈치밥을 먹으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제 때는 무르익었습니다. 요셉, 그리고 레아로부터 얻은 사랑하는 딸 디나도 장거리

여행에 견딜만한 나이가 되었습니다.

저는 라헬과 레아를 설득해야만 했습니다.

이보시오. 내가 당신 아버지 밑에서 20년 동안이나 섬겨왔소. 그런데 당신들 아버지가 나한테 한 일을 생각해보시오. 당신들도 직접 봤으니 알지 않겠소. 내가 이렇게 해서 소출이 늘어나면 계약 조건을 바꾸어서 저렇게 하자고 하고, 저렇게 해서 또 내 소출이 늘어나면 이제 또 이렇게 바꾸자고 한 게 열 번은 될 것ियो.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신 덕분에 이처럼 야곱의 집은 번창할 수가 있었소. 마침 얼마 전, 내 꿈 속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나더러 여기를 떠나 내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라 하시지 않겠소. 지금까지 나는 당신들 아버지 밑에서 할만큼 했소

이다. 이제 내 고향으로 떠납시다.

그러자 다행스럽게도,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라헬과 레아 두 아내는 선뜻 따르겠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주저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서둘러 채비를 하고는 재빨리 아이들과 아내들을 낙타에 태우고서 가축들을 이끌고 길을 떠났습니다.

짐작은 했었지만 역시 라반은 우리를 추격해왔더군요. 저희가 길을 떠난 지 일주일이 되던 날입니다. 그 모습이란 살기가 등등하여, 마치 당장이라도 저희를 때려잡을 기세였습니다.

저는 당당했습니다. 라반이 도착하자마자 저는 그에게 항의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당신을 위해 얼마나 희생하고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성실히 임

했는지 온 천하가 다 아는 일입니다. 무엇보다 결과가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맹수들에 의해 양이나 염소들이 피해를 입게 되면, 당신은 저에게 물어내라고 하셨지요. 낮에는 더위와 싸우고 밤에는 추위와 싸워가며 당신을 위해 지금껏 일해왔습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대답에 궁해지자 라반은 뜬금없이 자신의 집에서 우상을 도둑질해갔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이어지는 언약의 계보를 이어갈 이 장자 야곱이 왜 그 따위 우상 같은 것을, 그것도 라반의 집에서 훔칠 이유가 어디 있다는 말입니까. 온 집안을 뒤지고 돌아간 라반을 이제 볼 날도 없겠지요. 참으로 지긋지긋한 세월이었습니다.

라반이 돌아간 후 저는 이제 더 큰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란 땅, 그리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데에 가장 마음에 걸렸던 부분은 아무래도 예서였습니다. 20년이나 지났습니다. 예서를 피해 집을 나섰을 때가 77세였으나 지금은 97세, 이제 조금 있으면 100세입니다. 서로 나이도 먹을 만큼 먹고 철도 들을 만큼 들었으니 과거 일을 좀 잊어주었으면, 그리고 나를 받아주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예서의 화가 가라앉으면 연락을 주겠다고 했던 어머니 리브가로부터 소식이 오는 일은 없었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불안해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관문 압복 나루에 다다랐습니다. 너무나도 초조한 마음에 우선 하

인을 하나 보내어 형님의 동생 야곱이 왔다고, 아니, 아니지. 형님의 ‘종’ 야곱이 왔다고 알리도록 전하고는 상황을 보고 오도록 했습니다. 아주 부드럽게 공손한 말투로 해야 한다고 단단히 일렀지요.

그런데 이 하인이 급히 돌아와서 하는 말이, 에서가 장정 400여명을 이끌고 이 쪽으로 출발했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냥 계시지 왜 오십니까. 그것도 장정 400여명이나 데리고 온다니 심상치가 않습니다. 틀림없습니다. 형님은 아직 과거를 잊지 않고 계십니다. 분명합니다. 이 야곱이 형님의 장자권을 빼앗고 그것도 모자라서 아버지의 마지막 축복까지도 가로챘다는 사실에 대해 여전히 앙금이 있는 것입니다. 큰 일났습니다. 난리 났습니다. 이걸 어찌하면 좋습니



까.

저는 불안하고 초조하고 답답한 마음에 기도를 드렸지요. 하나님, 당신이 가라고 해서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저를 인도해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 에서 형님께서 장정 400명이나 데리고 온다면 꼼짝없이 저는 죽고 맙니다. 어디 저 뿐인가요? 여기 있는 재산들은 모두 빼앗기고 라헬과 아이 엄마들까지 무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제 자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알처럼 번성하게 하신다면서요. 그런데 여기서 모두 다 죽으면 어쩌시려 하십니까.

아무리 기도를 해도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밤새도록 형님께 바칠 예물

들을 정리했습니다. 염소 220마리, 양 220마리, 낙타와 암소와 황소 등등 제게 필요한 최소한만 제외하고 모두 다 바치기로 했습니다. 지금 저와 우리 가족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는데 이런 가축들이 문제겠습니까.

하인들을 시켜서 가축들을 몇몇 무리로 나눈 다음 차례대로 형님한테 바치게 해서 노여움을 조금씩 풀고서는 마지막에 제가 만나려고 했지요. 이 방법, 괜찮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작전이 성공해서 형님은 저를 받아주셨습니다.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저는 남은 모든 재산을 이끌고 가나안 땅 세겜에 무사히 당도했습니다. 이제서야 저는 진정으로 독립하여 훌륭한 가정을 꾸릴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평

화롭고 풍요로운 생활을 보낼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언약을 성취하는 민족으로 성장해 나아갈 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너무하지 않으십니까. 어찌하여 이런 꼴을 당해야 한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레아를 통해 주신 사랑하는 딸 디나가 가나안 땅 세겜 젊은 추장이라는 놈으로부터 강압적으로 수치를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자 젊은 추장의 아버지 하몰은 제게 와서는 디나와 자신의 아들을 혼인시켜 달라고 당부를 합니다. 예전 같았으면 제가 알아서 처리했겠으나 이제 아들들도 장성하였기에 저 혼자 결론을 내릴 수

가 없었습니다. 저는 일단 들판에 나가있는 아들들을 불러모으고는 의견들을 듣기로 했지요. 사랑하는 딸 디나가 그런 꼴을 당했으니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은 당연합니다만, 그렇다고 이렇게 찾아온 그의 아버지를 어떻게 할 수도 없는 노릇 아닙니까.

그의 아버지 하몰은 우리 아들들한테도 똑같이 부탁을 합니다. 자신의 아들에게 디나를 달라고 당부를 하더군요. 그러자 문득 둘째 아들 시므온이 말 합니다. 우리 동생을 데려가기 위해서는 당신 땅에 사는 남자들이 모두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지요. 이 말을 들은 셋째 레위도 맞장구를 칩니다. 그렇게 한다면 디나를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비록 장자는 르우벤이지만 그는 좀 모자란 구석이 있습니다. 말주변도 없고 장남 노릇을 감당하기

에는 부족한 점이 있지요. 그런데 둘째와 셋째가 이처럼 강하게 말하니 저도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래, 그것도 일리 있는 말이구나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아, 설마 그런 끔찍한 생각을 하고 있을 줄이야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다)

하몰이 그의 아들과 함께 그곳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전했더니 과연 추장과 그의 아버지입니다. 모든 남성들이 함께 할례를 받겠다고 했다는군요. 솔직히 놀랐습니다. 어찌면 저희 집안 재물을 탐했는지도 모르죠. 그들과 함께 살게 되면 우리와 거래도 하게 될 텐데, 우리에게 재물이 없다면 그들이 반길 이유도 없었겠지요. 아이들이 선택했으니 늙은 저는 따를 수밖에요. 이제 혼인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나

하다가도, 마음에 상처를 입은 디나를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들이 할례를 시행하고 사흘째 되던 날, 충격적인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땅으로 쳐들어가서, 할례 때문에 아직 아파하고 있는 남자들, 하몰과 그의 아들인 젊은 추장을 포함하여 모두를 칼로 죽이고 디나를 데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잇사갈과 스불론까지 가세하여 그곳 가축들과 재물들을 약탈하고 노략했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아아, 저는 절망했습니다. 도대체 일이 왜 이 지경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시므온과 레위를 책망했지요. 어찌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당당했습니다. 아직도 살기

어린 눈빛이 반짝입니다. 자신들의 동생을 그 지경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어찌 잠잠할 수 있냐고 말합니다.

아아, 우리는 여기에 머물 수 없습니다. 아들들이 한 일을 듣고 다른 민족들이 공격해올지도 모르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빨리 피해야 합니다. 저는 곧바로 아버지와 형님이 계신 곳 가나안 헤브론 골짜기로 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불행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지요. 베들레헴 근방을 지나고 있을 때 라헬에게 진통이 있기 시작하더니 아들 베냐민을 낳았습니다.

아아……. 기뻐요? 예, 기쁜 일이지요. 하지만 라헬은 베냐민을 낳고는, 베냐민을 낳고는…… 죽고 말았습니다. 아아, 라헬, 라헬, 사랑하는 라헬아…….

내가 그대에게 해주고 싶은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는데, 그대를 얻기 위해 7년을 일하고, 함께 한지 아직 14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헤어지다니요. 이렇게 허망하게……. 이렇게……. 아아, 라헬아……, 라헬아…….

-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소리 내어 운다.

라헬을 잃은 슬픔을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처럼 사랑스러운 베냐민을 얻게 되기에, 라헬을 잃은 슬픔으로부터 조금씩이지만 회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이라고는 요셉과 베냐민 밖에 없습니다. 이 나이에 자손을 얻게 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요셉과 베냐민은 제게



있어서 이제 라헬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라헬보다도 더욱 소중한 존재인 것입니다. 요셉과 베냐민을 보면 라헬을 보는 것이요, 요셉과 베냐민이 웃으면 라헬이 웃는 것이요, 요셉과 베냐민이 말하면 라헬이 말하는 것이요, 요셉과 베냐민이 먹고 마시면 라헬이 먹고 마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요셉과 베냐민은 제 기쁨이자 희망 그 자체였습니다. 이토록 험한 삶을 살아온 제게 있어서 한 가닥 소망이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요셉마저! 요셉마저!

아아,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은 이러시지 않았습니까. 주시는 하나님, 채우시는 하나님, 풍족하게 하시는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의 하나님도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야곱의 하나님은 무엇이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빼앗아가는 하나님이십니다! 잔인한 하나님이십니다! 비웃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노력했습니다. 아브라함보다, 이삭보다 더 잘 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가만히 있었을지언정 저는 제 힘으로 노력하면 더욱 잘 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에서 형님을 만나기 전, 압복강을 건너기 전에, 가족들은 먼저 배를 태워 보내고, 밤이 되어 아내들과 아이들을 보내고 나서 저는 홀로 남아 잠시 동안 제 살아온 인생을 돌이켜봤습니다.

이대로 있어서는 안 돼! 머물러 있으면 안 돼! 팔을 뻗어! 손으로 잡아!

저는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기를 쓰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말이죠…….

여러 가지 생각해보았습니다.

무엇을 위해 열심히 살아왔나…… 하고 말이죠.

지금까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왔던가. 무엇을 위해 아등바등 살아왔던가 하고 말이죠.

아름다운 아내? 물론 라헬은 아름답고 사랑스럽습니다. 라헬을 얻기 위해 7년, 아니, 14년을 그 지독한 외삼촌 라반 밑에서 일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요셉도 얻을 수가 있었지요. 물론 레아나 실바, 빌하를 통해 얻은 아이들이 소중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 아니지요.

그래도 어찌겠습니까. 눈만 감으면 레아 보다는 실바나 빌하 보다는 라헬이 먼저 떠오르는 것을,

르우벤이나 시므온이나 레위나 유다나……그 다음이 누구였더라……(축스럽다는 뜻이 웃는다) 뭐, 아무튼, 그 녀석들보다도 요셉이나 베냐민이 먼저 떠오르는 것을 말합니다. 하하하 (씹쓸하게 웃는다)

재산도 많이 모았지요. 그토록 야박하게 구는 라반 밑에 있으면서도 6년 동안에 이처럼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었다니 그야말로 기적입니다. 무늬 없는 양이나 염소한테서 무늬 있는 놈들을 낳게 만드느라고 제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하나님도 보고 알고 계시죠? 참으로 뼈를 깎는 고통의 나날이었습시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목숨을 걸고 장자권과 아버지의 축복을 빼앗았건만, 그 결과 형님으로부터 도망치는 신세가 되고 말

왔습니다.

라헬을 얻기 위해 14년간, 라반 밑에서 돈도 못 받고 혹사 당했습니다.

사악한 라반 밑에서 재산을 모으기 위해 6년 동안 피땀을 흘렸습니다.

사랑하는 딸인 디나는 이방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되었지요.

이 때문에 시므온과 레위는 살인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 동안 모아왔던 재산의 상당부분을 에서 형님한테 바쳤습니다.

얍복강을 건너기 전 부상을 입어, 지금은, 자, 보세요. (다리를 절면서 걸어 보인다) 다리까지 절게 되었지요.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고생을 감수하면서 얻은 라헬은 너무나도 일찍 저의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사랑스러운 요셉은..... 사랑스러운 요셉은 맹수에 의해 그만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아, 요셉아, 요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는 흐느껴 운다)

(얼굴을 가린 채로) 라헬아, 미안합니다. 당신을 위해서라도 요셉을 지켰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구만. 내가 장차 당신을 만날 면목이 없구려. 요셉이 살아있었다라면 이제 나이 서른도 넘었을 텐데, 꿈도 펼쳐보지 못하고 열 일곱이라는 어린 나이에 죽고 말다니..... 라헬아, 정말 미안하네. 정말 미안해.....

(얼굴을 가리던 손을 내리고는 갑자기 옆을 돌아  
보며)

그런데 네 이 놈들! 기껏 이집트에 보내서 식량  
을 사오라고 했건만 시므온을 인질로 붙잡히고 온  
주제에, 이제 나한테서 요셉만도 부족하여 이번에는  
베냐민까지 빼앗아 가려는 게냐! 이 나쁜 놈들아.  
너희들이 이 늙은이를 위해서 해준 게 뭐냐 이 나  
쁜 놈들아. 이 나쁜 불효자식들아!

(털썩 주저 앉고는 기침을 한다.....)

(허기가 진 목소리로)

하..... 하..... 콜록콜록..... 하..... 하..... 비가  
오지를 앓는구나. 곡물이 나지도 앓는구나. 저기 땅  
들을 보거라. 붉은 빛으로 타들어가는 저 넓은 땅들  
을 보거라. 하늘에서 불덩이가 쉼 없이 쏟아지는 것

같구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이와 같은 시련을 주시는지 모르겠구나.

목숨을 걸고 지혜를 짜내어서 얻어낸 것이 이것이란 말이더냐..... . 이게 전부라는 말이더냐..... . 그토록 노력해서 얻어낸 결과가 고작 이게 전부라는 말이더냐..... .

하..... . 하..... . 콜록콜록..... . 그래, 이제 마음대로 해라. 데려가. 그래, 베냐민을 데려가거라. 이래 죽어도 저래 죽어도 매한가지 아니냐. 만약에 잃게 되면, 잃게 된다면..... . 콜록콜록..... . 하..... . 하..... . 그래..... . 어여 다녀 오너라..... . 어여..... . 어여..... .

제3장 막.



이카호중앙교회(일본) 홍성필 목사  
[ikahochurch@gmail.com](mailto:ikahochurch@gmail.com) <http://www.ikahochurch.com>  
일본 복음화를 위한 선교후원 : KB국민은행 079-21-0736-251

## 제4장 의문

### - 열 한 형제들의 의문

등장인물 :

요셉의 형제들 : 시므온, 레위, 유다, 르우벤, 단,  
납달리, 갓, 아셀, 잇사갈, 스불  
론, 베냐민

사브낫·바네아(요셉)의 청지기

병사 1, 2, 3

장소 :

이집트를 출발하여 가나안으로 향하는 길

- 우측에서 시므온과 형제들 일행 등장. 시므온이 등장하고 조금 뒤에 레위, 유다, 르우벤, 단, 납달리, 갓, 아셀, 잇사갈, 스불론,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거리를 두고 고개를 숙인 채로 베냐민이 뒤따라온다.

- 시므온과 레위는 짐을 지고 있지 않고, 다른 이들은 지고 있던 짐들을 내려놓는다.

레위 : (앞서가는 시므온을 향해) 형님! 형님!  
아이 참, 시므온 형님!

시므온 : 됐다, 레위야! 듣기 싫다! (걸음을 멈춘다)

- 레위 : 아, 참, 형님. 그만 하시라니까요.
- 시므온 : (뒤를 돌아보며) 그만 하라구? 대체 뭘  
그만 하라는 거야?
- 레위 : 아이 참, 그만 화 좀 푸시라니까요. 다  
알면서 왜 그러신대요?
- 시므온 : 다 알아? 내가 뭘 다 안다는 거야?
- 레위 : 아니, 형님. 우리가 그 총리인지 뭔지  
하는 양반한테 아무리 사정사정을 해봐  
도 저기, 저 놈(맨 뒤에 있는 베냐민을  
가리키며)을 데려오지 않으면 우리를 잡  
아 죽이겠다고 하니…….
- 베냐민 : (이 말을 듣고 죄송하다는 듯 고개를  
숙인 채 뒤로 돌아선다)
- 시므온 : 야 임마, 그러면 빨리 데려오면 될 거

아냐. 뭘 그렇게 꾸물거렸단 말이야.

레위 : 그것 참, 당연히 우리도 당장 데려오고 싶었죠. 형님이 여기 이렇게 인질로 잡혀 있는데 우리 마음이 편했겠냐구요. (뒤를 돌아보며) 잇사갈, 스블론아. 안 그러냐, 애들아

잇사갈 · 스블론 : (고개를 끄덕이며 목소리를 합쳐서) 그럼요. 물론이죠.

시므온 : 됐다. 듣기 싫다. 야, 니네가 돌아간 게 언제냐? 벌써 두 번은 더 왔다 갔겠다. 그런데 내가 여기 내가 여기 붙잡혀 있다는 걸 뻔히 알면서 이제 오냐? 니네들이 그래도 피를 나누는 형제들이냐 이 말이야!

레위 : 아이 참, 형님도 답답한 소리 하지 좀  
마세요. 다 아는 사실을 뭘 그리 따져요.  
그 노인네가 (베냐민을 가리킨다) 저 녀  
석을 놔줘야 말이죠.

시므온 : 그래서 내가 하는 소리 아니냐. 그 영  
감이 저 놈 말고 자식들은 자식이라 생  
각하지 않는다니까 그러네. 그 영감이 우  
리한테 언제 한 번이라도 다정한 적이  
있었냐구.

레위 : 에이, 그야 뭐 어쩔 수 없죠. 그 일이  
.....

시므온 : 그 일 전에도 마찬가지로. 우리 어머니  
가 라헬 어머님 때문에 얼마나 찬밥 신  
세였는지 몰라서 그러냐? 어머니가 아무

리 아버지를 위해서 헌신을 해도, 아버지는 그저 라헬 어머님만을 사랑하셨지. 우리 어머니는 한평생 아버지 뒷모습만 보고 살아갔던 거야. 그게 얼마나 서러운 일인지 넌 알거나 하나?

레위 : (목소리를 낮추며) 형님, 베냐민이 있는 자리에서 라헬 어머님 얘기는 안 하기로 했잖아요.

시므온 : (헛기침을 한다) 흠. 하도 답답해서 하는 소리 아니겠냐. 내가 그 동안 여기 갇혀 있으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세상에, 죄수들 중에서도 흉악한 살인범들을 가둬놓는 감옥에 있었다구. 창문이 라고 있는 것도 요만한 손바닥만 해서

대낮에도 어두컴컴해. 그리고 냄새는 또 얼마나 고약한지, 무슨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한다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아침부터 밤까지 고단한 노역에 시달렸단 말이야. 정말 죽는 줄 알았다니까.

레위 : 그게 정말이에요?

시므온 : 야, 그게 단 줄 알아? 그 지독한 놈들이 뺨 하면 서로 싸우고 해서, 허구헌 날 송장이 실려 나갔다구. 미칠 지경이었다구. 아니, 내가 왜 그런 살인범들이 있는 곳에 갇혀 있어야 하냐 말이야.

단 : (납달리에게) 흥, 지도 살인범이나 마찬가지로 뭐. 세겔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무참하게 죽여놓고 살인범이 아니

야?

납달리 : (단 입을 손으로 막는다) 췌! 너 들릴  
라!

단 : (입을 막은 손을 뿌리치며) 야, 납달리.  
내가 뭐 틀린 말 했냐? 어디 그 뿐이야?  
같이 피를 나눈 요셉한테까지도 그렇게  
모진 짓을 했는데, 그게 인간이 할 짓이  
냐구.

레위 : (먼 하늘을 보며) 이봐 납달리, 니 형  
입 간수 잘 해라. 그러다가 큰 일 나는  
수가 있다……. (마지막에 차가운 눈빛으  
로 단과 납달리 쪽을 돌아보며 노려본  
다).

납달리 : (서둘러 단을 데리고 오른쪽 구석으로



끌고 간다)

단 : 왜 이래? 놔 이 자식아!

유다 : 시므온 형님, 이제서야 오게 되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시므온 : 됐다, 유다야. 난들 너희 사정을 모르겠냐. 아무리 오려고 해도 그 영감이 막 내를 보냈겠냐 말이다.

잇사갈 : 그래도 유다 형님이 사정사정해서 간신히 올 수 있었던 거라구요.

스불론 : 그래요. 정말 힘들었다구요. 유다 형님이 아니었다면 몇 년 동안이나 못 왔을 지도 몰라요.

유다 : (뒤를 돌아보며) 너희들, 조용히 해.

레위 : 아니야. 그건 맞는 말이지. 사실 유다가 몇 날 며칠 동안 저 노인네를 설득해서 간신히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유다 : (레위를 보며) 형님, 아닙니다.

시므온 : 역시, 그랬었군. 그래, 유다야. 고맙구나. 니가 나이는 어려도 우리 집안의 대들보야. 믿음직스럽구나. 애써줘서 고맙다.

유다 : 형님도 별 말씀이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좀 몇 가지가 마음에 걸립니다. 아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시므온 : 뭐가? 무슨 일이 있었냐?

유다 :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가 처음에 이

곳 이집트로 왔을 때부터 수상했습니다.  
외국에서 온 다른 사람들은 일정한 비용  
만 지불하면 그에 상응하는 식량을 얻을  
수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르우벤 : 그, 그렇지. 그래서 우리도 전에 돈을  
가져온 거였잖아.

레위 : 아이, 참. 르우벤 형님은 좀 가만히  
계쇼. 유다야, 어디, 계속해봐.

유다 : 예. 르우벤 형님 말씀대로 그래서 우  
리도 식량을 얻을만한 돈을 가지고 왔었  
던 거죠. 그런데 갑자기 군인들이 닥쳐오  
더니 변명할 틈도 없이 여행해가지 않았  
습니까.

르우벤 : 그래. 맞아……. 그 때 얼마나 무서웠다

구.

- 레위 : (르우벤을 짜려보면서) 아이 거 참. 좃!
- 유다 : 예, 저도 경황이 없어서 제대로 생각할 틈도 없었습니다만, 지금 와서 돌이켜 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 시므온 : 이해가 안 갈 수밖에. 아니, 우리가 간첩으로 오해를 받을 만한 짓을 하지도 않았는데 왜 잡혀가난 말이야.
- 유다 : 예, 형님. 물론 그 점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지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 시므온 : 더 이상한 점?
- 레위 : 그게 뭔데?

유다 : 형님들도 기억하시겠지만, 여행당할 그 때 우리는 혼잡한 시장 거리 한복판에 있었지요. 사람들도 많고 우리도 서로 따로따로 흩어져서 구경을 하며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집트 군인들이 닥치더니 순식간에 우리 열 형제를 체포해갔습니다.

레위 : 어……. 맞아. 그리고 보니 그러네.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어떻게 딱 우리 형제 열 명만을 잡아갈 수 있었을까.

르우벤 : 그, 그야, 우리는 다 형제니까, 우, 우리 얼굴이 서, 서로 닮아서 그런 거 아닐까? 하하…….

레위 : 아이, 참, 형님! 그게 지금 말이 되  
고 생각하쇼?

유다 : 우리는 모두 형제이니까 물론 닮았을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우리 열 형제는,  
아버지는 한 분이시지만 어머니는 네 분  
입니다. 물론 그 때는 베냐민이 없었기  
때문에 세 분이라고는 하나, 같은 아버지  
와 레아 어머니한테서 태어난 우리 7남  
매도 얼굴이 아주 똑같지는 않잖아요. 하  
물며 어머니까지 다른 단이나 납달리, 갓  
과 아셀까지도 초면인 사람들이 단번에  
알아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  
다.

시므온 : 우리 외모가 이집트 사람들과는 조금

달라서 알아보기 쉬웠던 것은 아닐까?

유다 : 하지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가뭄은 가나안 땅만의 일이 아닙니다. 이집트 주변국 그 넓은 지역 모두가 흠이 타 들어가고 있습니다. 곡식이 나질 않아요. 사실 이곳 이집트도 극심한 가뭄을 앓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몇 년 전까지 있었던 대풍년 기간 동안 식량을 비축해놓은 덕분에 이집트만은 식량난을 겪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레위 : 나는 그게 참 신기하단 말이야. 아니, 어떻게 이집트만 풍요롭단 말이야.

유다 : 제가 들은 소문에 의하면 그것을 진두지휘 한 것이 바로 지금 총리라는 거

예요. 그래서 이집트 황제도 지금 총리한테  
꼼짝도 못한다고 합니다.

시므온 : 흠. 그렇군.

유다 :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이나  
여기 이집트, 그리고 주변국 일대에 온통  
가뭄이 들었지만, 지금 총리 덕분에 이곳  
이집트만은 식량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님들도 봐서 아시겠지만, 어딜  
가나 외국인들로 북적거립니다. 한적한  
시간에 인적도 드문 곳이라면 모를까, 외  
국인들 이집트인들 할 것 없이 봄비던  
시장 한복판에서 우리 형제 열 명만을  
정확하게 선별하여 체포한다는 것은 상  
식적으로 불가능합니다.



- 시므온 : 음……. 넌 그 점이 이상하다는 거야?
- 유다 : 아니요. 납득하기 어려운 점은 그것만  
이 아닙니다.
- 레위 : 뭐? 이상한 게 더 있어?
- 유다 : 예. 레위 형님. (뒤에 있는 동생들도  
돌아본다) 그리고 너희들. 내가 문제 하  
나 내 보겠습니다. 우리를 체포한 군인들  
이 총 몇 명이었는지 기억하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 놀라면서 형제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가우똥  
거린다.

르우벤 : 예, 에이……. 그럴 정신이 어딴어…….

얼마나 무서웠는데…….

레위 : 유다야, 넌 그 때 그 군인들이 몇 명이었는지 세고 있었던단 말이야?

유다 : 아니요. 사실 저도 처음에는 당황해서 경황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끌려가고 있는 동안에 저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레위 : 그 때 봤다니, 난 도무지 모르겠네. 그럼 넌 그 때 뭘 봤다는 거야?

유다 : 우리 열 형제들을 연행해 가는데, 정확히 한 사람 앞에 두 명씩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당시 군인들은 스무 명이었던다는 것이 되지요.

레위 : 아니, 그래……. 뭐, 우리가 저항할 수

도 있으니까 그랬던 거 아니야? 그게 이상한 거야?

유다 : 그들은 시장에서의 우리 행동이 수상해서 체포한 것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우리 열 형제를 연행하기로 작정하고, 그 수에 맞춰서 스무 명이 출동했다는 것이에요.

시므온 : 그 말은 그러니까, 계획적으로 우리를 체포했다는 거군?

유다 : 예, 형님. 아마도 우리는 이집트에 들어온 이후, 아니, 어찌면 들어오기 전부터 그들에게 감시 당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레위 : 야, 야, 그건 좀 지나친 추측 같은데

그래. 아니,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뭘데?  
그냥 가나안 땅에 사는 평민들이잖아. 이  
니 근데, 우리가 무슨 대단한 사람들이라  
고 감시할 필요가 있는데 그래?

시므온 : 그래. 그건 좀 비약이 심한 것 같은데.  
우리는 그저 가나안 땅에 살다가 식량을  
얻기 위해서 여기 이집트에 왔을 뿐이잖  
아?

유다 : 물론 그렇습니다. 저도 오늘까지만 하  
더라도 제 추측이 비약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두 번째로  
총리를 만나고 난 다음에 제 추측은 확  
신으로 바뀌었습니다.

레위 : 오늘? 뭐, 별것 없던데. 그 양반이 너

한테 뭐라고 하디?

유다 : 아니요. 제가 발견한 것은 바로 오늘  
총리를 만났을 때 그를 경호하고 있는  
군인들입니다. 그들의 모습을 기억하시나  
요?

- 다들 고개를 갸우뚱거린다.

유다 : 그들이 입고 있던 군복은 일반 군인  
들이 입고 있는 것과는 다릅니다. 더욱  
화려하고 권위가 있는 차림새를 하고 있  
더군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바로 우리  
를 연행했던 군인들이 그것과 똑같은 그  
군복을 입고 있었다는 거예요.

시므온 : 뭐야? 그럼 우리를 여행해간 건 누구  
란 말이야.

유다 : 제 생각이 맞는다면, 우리를 여행해간  
건 틀림없이 이집트 총리 직속 친위대일  
것입니다.

- 유다 외 형제들 모두 큰 소리를 내며 놀란다.

레위 : 야, 야……. 이거 얘기가 자꾸 커지는  
것 같지 않냐? 우리들이야 뭐 시시한 양  
치기들 아니야. 우리가 간첩이야? 첩자야?  
가나안 땅 특수부대야? 폭동이라도 일으  
키려 왔냐 말이야. 그냥 우리는 배고파서  
식량을 사러 왔을 뿐이잖아?

유다 : 예, 맞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을 종합해본다면, 저들은 우리가 처음에 이곳 이집트 땅을 밟기 전부터 감시하고 있었고, 계획적으로 우리를 체포했다는 점, 그리고 이를 위해서 움직인 것은 그냥 군인들이 아니라 이집트 최고 간부가 연관되어 있는 조직일지도 모른다는 점입니다.

레위 : 유다야 자, 잠깐 좀 있어봐라. (시므온을 보고) 형님, 이리 좀 와보쇼. (시므온을 끌고 왼쪽으로 간다)

- 조명은 어두워지고 왼쪽 시므온과 레위 만을 비춘다.

시므온 : 음? 왜 그런데? (시므온에 이끌려 함께 간다)

레위 : 형님. 솔직히 말해보쇼.

시므온 : 야, 갑자기 무슨 소리야?

레위 : 아이, 참. 형님 생각을 솔직히 말해 보라니까요.

시므온 : 아니, 도대체 뭘 말해보라는 거야.

레위 : 허허어. 형님과 나 사이에 이러기요? 맨 처음에 잡혀갔을 때, 그리고 그 총리 양반이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했을 때, 형 무슨 생각을 했소?

시므온 : 흠…….

레위 : 가만히 있지 말고 말을 해보라니까요.



시므온 : 흠……. 그야, 뭐, 그 녀석 생각을…….

레위 : 그렇죠? 나도 마찬가지요. 그 녀석을  
생각했죠. 지금으로부터 13년인지 14년  
인지 전에, 우리는 그 녀석을 구덩이에  
던져 넣었지요.

시므온 : 음……. 휴……. 그 때는 우리도 아직 이  
십대 철부지였지. (먼 곳을 바라본다) 지  
금 돌이켜보면 그 때 왜 그런 짓을 했는  
지 모르겠구나.

레위 : 아이 참, 왜긴요. 그 녀석이 무슨 꿈  
을 꿨느니 어쨌느니 하고, 그 꿈이 뭐?  
가족들이 다 밭에서 곡식 단을 묶고 있  
는데, 자기 단은 일어서고 우리들 단은  
자기 단을 둘러서서 절을 했단나?

시므온 : 흠…….

레위 : 그리고 그 뿐이 아니잖아요? 뭐?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자기한테 절을 했나? 아니,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이 말이에요. 우리를 우습게 봐도 유분수지…….

시므온 : (헛기침을 한다) 흠……. 옛날 일은 됐다. (몸을 반대쪽으로 돌린다)

레위 : 형님. 그렇게 쉽게 접어버릴 수는 있을지 모르겠구만요.

시므온 : (레위 쪽을 돌아본다) 뭐야? 갑자기 무슨 소리야?

레위 : 형님. 우리가 요셉을 노예상한테 은이십을 받고 팔아버렸잖아요.

시므온 : 아, 글썄. 옛날 얘기를 지금 또 끄집어  
내서 뭘 어찌겠다고 그러냐.

레위 : 허허……. 참, 형님도 답답하십니다. 그  
요셉이 팔려간 곳이 어디일 것 같소?

시므온 : 그걸 내가 어떻게 알어? 그 노예상이  
어디로 간다는 말은 안 했잖아?

레위 : 말이야 안 했죠. 하지만 지금 노예상  
들이 가장 많이 몰리는 곳이라면 어디겠  
소?

시므온 : 야, 너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는 거야?

레위 : 아이, 참. 제일 노예들이 많은 곳이  
다름아닌 바로 이곳. 이집트잖소. 그걸  
꼭 내가 말로 해야 알아요?

시므온 : 뭐라구? 그게 무슨 소리야?

레위 : 유다 말 못 들으셨소? 가뭄은 가나안 땅이나 여기 이집트 만이 아니에요. 이 주변국 전부라 하지 않소. 그렇다면 다른 나라에 노예가 있겠냐 말이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 자유인이라 하더라도 먹을 게 없는 판에 노예까지 있다면 밥도둑 아니겠소. 그러니까 만약에 노예가 남아 있다고 하면, 처음부터 여기로 왔든 다른 나라에서 팔려왔든 결국 모두 여기에 모여 있을 거다 이 말입니다.

시므온 : 음? 뭐? 그럼 그 때 우리가 노예로 팔아버린 요셉이 지금 여기 이집트에 있다는 거야?

레위 : 그야 나도 모르죠……. 하지만 아까

유다가 하는 말 못 들었소? 그 녀석이 하는 말을 가만히 듣고 있자 하니 전혀 엉뚱한 말이 아니에요. 엉뚱하기는커녕 앞뒤가 정확히 맞아 떨어집니다. 우리는 감시 당하고 있었고, 계획적으로 체포되었지요. 여기까지를 본다면 세겜 놈들의 짓처럼 보이겠지만, 놈들은 어차피 시골 부족들. 도저히 이집트를 움직일 힘이 있을 리 만무하죠. 더구나 그 놈들 짓이라고 한다면, 느닷없이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난리를 칠 리가 없지 않냐 이 말이라구요. 시므온 형님. 틀림없소. 그 놈이요. 그 놈이라니까요. 웬지 나 지금 되게 일이 꼬이고 있는 것 같단 말입니다. (소름

이 끼치는 듯이 온몸을 부르르 떠다)

시므온 : 음. 이봐, 레위야. 진정하라니까. 왜 그  
래? 너 답지 않게. 좋아. 네 가정대로 그  
녀석이 이곳 이집트로 팔려왔다고 치자.  
그리고 지금도 살아 있다고 치자. 더 나  
아가서 어린 나이에 노예로 팔아버린 우  
리 형들을 여전히 미워하고 있다고 치자  
이거야. 하지만, 아무리 그 녀석이 살아  
있고 우리를 미워한다 하더라도, 녀석은  
천상 노예야. 노예가 자유인이 될 수 있  
다고 생각하나? 더구나 이집트로 팔려왔  
다면 외국인, 이방인 노예야. 이집트인이  
라면 또 모를까, 이방인 노예가 이집트  
땅에서 그리 쉽게 자유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애? 그것만이 아니야. 자유인이 됐다고 해도 지가 어쩔 건데? 이방인 주제에 이집트를 움직여서 우리에게 자기 복수라도 시키겠다는 거야? 터무니 없는 소리야.

레위 : 휴……. 그래요. 나도 이것저것 생각하다가 결국 거기서 막혀버렸지요. 녀석이 만에 하나 이곳 이집트로 팔려와서 지금까지 살아있다 한들, 그리고 이 또한 만에 하나라도 우리가 이곳에 왔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한들, 자기는 노예, 그것도 이방인 노예인 주제에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소.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구만요…….

시므온 : 흠……. (생각에 잠긴다) 이봐, 레위야.  
니가 한 번 유다한테 슬쩍 물어보지 그러냐?

레위 : 뭘요? 요셉이 어디 있는지요?

시므온 : 아무리 유다라고 해도 거기까지는 알지 못하겠지. 하지만 유다는 우리들과 달라. 뭔가 생각이 있을지도 모르니 한 번 물어보자 이 말이야.

레위 : (팔짱을 끼고 혼잣말로) 이거 만약에 요셉이 끼어있다고 하면 골치 아픈데……. 쫓, 아니야. 살아 있어봤자 노예인 지가 우리에게 어쩔 거야? (시므온을 보고) 그럼 형님도 같이 좀 와 보쇼.



- 시므온과 레위가 무대 중앙으로 함께 이동. 조명이 밝아지고 유다와 그 형제들이 다시 보인다. 유다는 시므온과 레위를 제외한 형제들 가운데 서 있다.

- 시므온과 레위가 다가간다.

레위 : (베냐민 쪽을 힐끗 보고는 조용한 목소리로) 유다야. 하나 물어보자.

유다 : (진지한 표정으로 조용하게) 요셉에 대해선가요?

- 시므온, 레위, 놀라다.

- 다른 형제들, 반사적으로 유다를 본다.

시므온 : 뭐? 아니, 그걸 어떻게…….

레위 : 역시 너도 그 생각을 했었군.

유다 : 예,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종합해서 생각해볼 때, 앞뒤가 하나도 맞아떨어지지 않습니다. 모두 제 각각 이에요. 하지만 여기에 <요셉>이라는 열쇠를 끼워 넣게 된다면 논리가 명확해집니다.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이 다 <요셉>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레위 : (살짝 커진 유다 목소리를 듣고 황급히 검지 손가락을 자기 입에 갖다 대면서 조용히) 야, 쏘! 목소리가 커!

- 다른 형제들. <요셉>이라는 말에 반응한다.

아셀 : 요셉? (유다 쪽을 본다)

갓 : 요셉? (유다 쪽을 보고는 아셀과 얼굴을 마주본다)

아셀 : (갓을 보며) 갓 형. 지금 유다 형님이 <요셉>이라고 했어?

갓 : (아셀을 보며) 나도 그렇게 들렸는데.....

아셀 : (갓을 보며) 왜 지금 요셉 이름이 나오는데? 응? 왜?

- 갓과 아셀 목소리 cut out. 몸짓, 손짓과 입만 움

직인다.

납달리 : (단을 보며) 단 형, 지금 유다 형님이  
.....

단 : 아, 알고 있어.

납달리 : 요셉이 어쨌다는 거지?

단 : 이거 보통 일이 아닐지도 모르겠네.

납달리 : 보통 일이 아니야? 뭐가?

단 : 지금 봤어? 레위와 유다 형님 말이야.

납달리 : 응? 뭘 말이야?

단 : 너도 참 둔하구나. 레위 형님이 저렇  
게 겁에 질린 모습을 본 적 있냐?

납달리 : 그, 그런가?

단 : 그리고 말이야, 레위 형님이 무슨 말

을 하기 전에 유다 형님 입에서 <요셉>  
이름이 튀어나왔잖아?

납달리 : 응. 그랬어.

단 : 저 둘, 뭔가 알고 있을지도 몰라.

납달리 : 뭘 말이야?

단 : 그야 나도 모르지. 하지만 지금 이 상  
황에서 요셉 이름이 나왔다고 한다면.....  
잠깐 나도 좀 물어볼까?

납달리 : 응? 뭘 물어보려구?

단 : (납달리를 한 번 본 다음 유다 쪽을  
본다) 유다 형님, 지금 <요셉>..... <요셉  
>이라고 했어요?

유다 : (조금 고개를 숙이고 있다)

베냐민 : (오른쪽 구석에 있었으나 단의 말을 듣

고 놀라 고개를 들고 유다 쪽을 향해 천천히 걸어온다)

레위 : (베냐민의 이 모습을 보고 몸을 반대쪽으로 돌려서 왼쪽으로 걸어간다) 아이, 참..... 쫓.

시므온 : (고개를 조금 숙이고 좌측으로 조금 걸어와서 멈춘다)

- 조명이 어두워지고 중앙에 있는 유다와 베냐민을 비춘다. 좌측 유다. 우측 베냐민.

베냐민 : (조심스럽게 유다에게 다가가서 말을 건다) 형님..... 유다 형님..... 지금 <요.....셈.....>이라고 하셨나요.....?

- 유다 : (말 없이 가만히 고개를 숙이고 있다.)
- 베냐민 : 형님……. 형님……. 대답해주세요. 지금 <요셉>……이라고 말씀하셨죠? 네? 그렇죠? 그런 거죠?
- 유다 : 음……. 그게 그러니까……. (살짝 베냐민을 보고 다시 몸을 돌려 고개를 숙인다)
- 베냐민 : 형님……. 유다 형님……. 아니라고 해도 소용없어요. 지금 저는 분명히 들었어요. 형님 입에서……. 형님 입에서 <요셉>이라는 두 글자가 새어 나오는 것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제게는 들렸습니다. 똑똑히 들렸습니다. 요셉……. 요셉……. 요셉……. 요셉……. 저는 형님들이 있는 데에

서 이 이름을 감히 말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한테도 말할 수 없었어요. 웬지 알아요? 제가 <요셉>이라는 두 글자를 말하지 못한 이유를 아세요?

- 베냐민, 소리 없이 흐느낀다.

베냐민 : 저도 그렇게 될까요…….

유다 : 야야 베냐민…….

베냐민 : 저도 그렇게 될 까봐, 그렇게 될 까봐서요……. 옷이 벗겨진 채로 구덩이에 내 던져지고, 그리고 이름도 모르는 먼 나라로 팔려갈까봐서요…….

유다 : 다 알고 있었구나…….



베냐민 : 형들은 모르셨겠지만, 저는 그들에 숨어서 다 보고 있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달려가서 큰 소리로 외치고 싶었지요. 이러지 마시라고. 형 좀 살려달라고. 제발 살려달라고 말이에요.

- 조용히 흐느낀다.

베냐민 : 하지만 저는 너무나 무서웠어요……. 형들이 저희 형제들을 죽일까봐서요. 먼 옛날 아담과 하와의 아들 아벨이 가인에 의해 살해당한 것처럼 우리 형제들도 죽을까봐서요. 무서워서 못했어요. 무서워서, 무서워서, 무서워서, 무서워서…무서

워서요. (갑자기 큰 소리로 유다를 보며)  
정말로! 정말로 무서웠어요!

- 조용히 흐느낀다.

베냐민 : 그 때부터 저는 변했습니다. 아무 것도 안 봤다. 아무 것도 안 들었다. 하지만 어떻게 <요셉> 그 이름을 잊을 수가 있겠어요. 저는 형님들이 정말 부러웠어요. 어머니도 계시고 형제들도 있잖아요. 단 형님과 납달리 형님을 볼 때도 부러웠어요. 갓 형님과 아셀 형님을 볼 때도 부러웠어요.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와 형제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르니

다. 하지만 저는 없었어요. 저를 낳아준  
라헬 어머니는 낳자마자 돌아가셔서 얼  
굴도 모릅니다. 그리고 요셉 형은 그렇게  
처참한 모습으로 제 곁을 떠나갔습니다  
.....

유다 : 베냐민..... 그건.....

베냐민 : 아니에요. 관찮습니다. 형님들도 그 때  
는 젊었죠. 하지만 제 외로움은 그 때부  
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얼굴도 모르는  
저를 항상 지켜주던 요셉 형이 그렇게  
떠나가고 난 다음, 저는 우리 가족 중에  
서 죄인처럼 살았어요. 숨도 죽이고 살았  
어요. 유다 형님은 그날 이후 아마도 제  
입에서 <요셉>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을

못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저는 무서워서 요셉 형 이름을 입에 올리지도 못했어요……. 무서워서……. 정말 무서워서요……. 그래서 외로울 때, 힘들 때는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이름을 불러보았습니다. 요셉……. 요셉……. 누가 들을지도 몰라서 한 번 말할 때마다 흑시나 하고 주위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불러봅니다. 요셉……. 요셉……. 그리고는 항상 얼굴을 깨끗하게 씻고 집으로 돌아갔지요. 여름에도 겨울에도 몇 번이나 얼굴을 씻었습니다. 눈물 자국이 보이면 형님들한테 혼날 것만 같아서요…….

- 베냐민, 긴 한숨을 쉰다.

베냐민 : 그 동안 참 길었습니다. 13년~14년이라는 세월이 제게는 얼마나 길었는지 모릅니다. 이제 저도 나이를 먹고 가족을 얻게 되었어요. 아이도 열 명이나 얻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외롭지가 않아요. 가족이 있기에 이겨낼 수 있어요. 가족들로부터 힘을 얻어 하루하루 살아왔습니다.

- 베냐민, 유다한테 다시 다가간다.

베냐민 : 유다 형님……. 형은……, 요셉 형은 살아 있는 건가요? 그런가요?

유다 : 그건 나도 아직…….

베냐민 : 형님……, 형님……. 제발 알려주세요.  
말 좀 해주세요. 사실대로 말해주세요.  
(유다한테 매달린다) 형님! 유다 형님!  
우리 형을! 요셉 형을! …… (그 자리에  
주저앉는다)

- 납달리가 황급히 앞으로 나와 다독이면서 베냐민을 뒤로 데려간다. 단이 자신과 납달리 사이에 앉히고 위로한다.

- 유다, 고개를 숙인 채로 가만히 서 있다.

- 시므온, 레위 왼쪽 구석에 시므온과 같이 있다가, 다소 어색하다는 듯이 함께 유다에게로 다가선다.

레위 : 그러니까, 유다야…….

유다 : 예…….

시므온 : 그러니까, 네 생각에도 <요셉>이 마음에 걸린단 말이지?

유다 :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를 둘러싼 일련의 일들에서 요셉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시므온 : 음……. 그래……. 그렇다고 치자. 요셉이 이번 일에 관여하고 있다고 치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역시 요셉에 의한 것이라는 게 네 생각이냐?

유다 : 솔직히 지금 현재 요셉이 어디에 있고, 이번 일에 어떻게 연관되고 있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전혀 무관하다고 하면 오히려 그 쪽이 더 부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시므온 : 그래……. 그렇다면 요셉은……. 그러니까, 그……. 요셉의 우리에게 대한 감정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레위 : (시므온을 보고) 아따, 참 형님, 답답해서 못 봐주겠소. (유다를 보고) 야, 유다야. 네 말대로 만일 요셉이 배후에 있다고 치자. 그렇다면 말이다. 이는 결국 우리를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겠지? 그러니까 우리더러 간첩이라



고 했다가, 시므온 형님을 잡아놓기도 했다가 그러는 거 아냐……. 야, 이거 그러면 흑시…….

르우벤 : 야, 유다야. 시므온, 레위야. 무슨 소리야? 요셉은 죽은 게 아니야? 요셉이 살아 있어? 그런 거야? 그 때 짐승한테 물려 죽은 게 아니야? 난 봤다구. 피에 물든 옷을, 붉은 피에 물든 요셉의 채색 옷을 봤단 말이야. 그런데도 요셉은, 요셉은 살아 있다는 거야? 이봐, 유다야, 말 좀 해봐. 시므온, 레위야, 너, 너희들은 알고 있는 거지? 요셉은 살아있고, 살아있는 요셉이 우리를 죽이는 거야? 라헬 어머님이 우리를 죽이는 거야? 거봐. 이

이카호중앙교회(일본) 홍성필 목사  
[ikahochurch@gmail.com](mailto:ikahochurch@gmail.com) <http://www.ikahochurch.com>  
일본 복음화를 위한 선교후원 : KB국민은행 079-21-0736-251

건 라헬 어머니의 저주! 요셉의 저주라  
니까! 우리는 이제 죽는 거야. 두고 보라  
니까. 우리는 이제 다 죽을 거라구! (통곡  
한다)

레위 : 아이, 참, 르우벤 형님! (잇사갈을 보  
고) 야, 잇사갈! 뭐 하냐! 어서 르우벤  
형님 좀 모시고 가라!

(잇사갈, 스불론과 함께 나와서 서둘러 르우벤을  
다독거리며 있던 곳으로 데려간다)

레위 : (돌아가는 르우벤을 보고 있다가, 이윽  
고 고개를 숙이며 한숨을 쉬고, 잠시 후  
유다를 보며) 유다야. 사실 말이다. 나도

그게 궁금하다. 까놓고 말해서 우리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 같냐.

유다 : 요셉이 이 일에 어떻게 관여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선부른 추측은 할 수 없겠지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만약에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고, 이번에 일어난 여러 사건에 대해서 요셉이 배후에 있었다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시므온 : 그래. 만약에 우리를 죽이려고 했다면 처음에 잡았을 때 죽이면 됐었지. 하지만 나만 인질로 잡아두고 너희들을 다시 보냈지.

유다 : 그렇습니다. 이상한 점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 곳으로 식량을 사러 왔을 때 우리는 분명히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하지만 식량을 나귀에 싣고 돌아가는 길에 숙소에서 확인을 해 보니 돈이 그대로 짐 속에 들어있지 않았습니까.

레위 : 그래. 맞아. 그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우리 중에서 설마 누군가가 훔쳐서 거기 넣었을까?

유다 : 설마 그럴 리가요. 우리 형제 중에서 누군가가 이집트의 금고를 열어서 돈을 빼낸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 형편은 비록 식량은 없지만 재물이 부족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더구

나 우리들은 항상 함께 있었습니다.

레위 : 음……. 모르겠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된 거야?

유다 : 이상한 점은 또 있지요. 이번에 다시 이집트에 왔을 때에는 총리가 우리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시므온 : 음……. 그건 참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워. 우리더러 정탐꾼이다, 간첩이다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자기 집에 불러서 식사 대접까지 하다니 말이야. 우리도 맨 처음에는 여기에 몰아놓고 무슨 일을 당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잖아? 그런데 그렇게 푸짐한 식사를 차려주다니 말이야. 자기가 생각해도 우리에게 좀 너무했다

싶었던 건가?

유다 : 모르겠습니다. 이해하지 못할 점들은 그 외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 식사 자리에서 형제들을 앉혀놓을 때, 우리가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미리 나이 순서로 자리가 지정된 것을 기억하시나요?

레위 : 어, 그러고 보니 그랬었나? 하지만 그런 건 우연 아니야? 뭐 우리들을 보고 대충 짐작을 했거나 말이야.

유다 : 아무리 초면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우리 열 한 형제 순서를 하나도 틀리지 않고 맞춘다는 것을 단순한 우연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이 차이도 별로 없잖아요?

시므온 : 흠……. 그런가? 음……. 그건 너의 좀 지나친 생각 아니야?

- 유다를 제외한 형제들, 잡담하며 또다시 짐을 정리하기 시작한다. 유다만 가만히 서서 생각에 잠긴다.

유다 : 과연 그럴까요. (고개를 숙이고 혼잣말) 계획적인 여행, 친위대 병사들, 첩자 취급, 베냐민의 요구, 시므온 형님의 인질, 짐 속에 숨겨진 돈, 형제들의 순서……. (갑자기 고개를 든다) 뭐? 아니! 설마!

레위 : (짐 정리를 하면서 가벼운 느낌으로) 음?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유다 : 아, 아니요. 좀 황당한 생각이 들어서  
요.

시므온 : 황당한 생각? 뭐야, 그게? 궁금한데 그  
래?

유다 : 아닙니다. 아무리 그래도 설마. (손을  
흔들어 보인다) 정말로 아무 것도 아닙  
니다. (짐 정리를 시작한다)

레위 : 뭐야? 너 답지 않게 말이야. (웃는다)  
그래도 어떠냐. 식량도 넉넉히 샀고, 이  
렇게 시므온 형님이나 베냐민도 무사히  
데려갈 수 있으면 된 거 아니겠냐?

시므온 : 뭘 소리야? 사람을 그렇게 기다리게  
만들어놓고는 무슨……. 흥!

레위 : 아이고, 형님도 너무 그러지 마쇼. 그



래도 다 잘 됐으니 좋은 거 아니겠소.

시므온 : 어찌구 어찌? 야, 이 놈아. 너 남 얘기  
라고 함부로 말하는 거 아냐! 내가 임마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말하고 레위를  
보며 웃는다)

유다 : (굳은 표정으로) 잘된 건 물론입니다  
만, (짐 정리하는 손을 멈춘다) 왠지 불길  
한 예감이 듭니다.

레위 : 불길한 예감? 왜 그래? 재수 없게.

유다 : 안 풀린 수수께끼가 너무나도 많습니  
다. 아무래도 이대로는 안 끝날 것만 같  
아요. 이대로는 그냥 안 끝날 것 같습니  
다.

레위 : 야, 유다야.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어서 가자. 꾸물거리다가는 해 지겠다.

- 유다는 가만히 고개를 숙이고 생각에 잠긴다.
- 다른 형제들은 유다 뒤쪽에서 바닥에 놓은 짐들을 챙기고는 출발 준비를 하려고 한다.

- 갑자기 말발굽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진다.

목소리 (요셉 청지기) : 게 섰거라! 거기 서지 못할까! 걸음을 멈추어라!

(오른쪽에서 요셉 청지기와 병사 1, 2, 3 등장)

청지기 : 네 이 놈들! 거기 서지 못할까!

레위 : 야, 유다야. 니가 이상한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되잖아.

르우벤 : 유다야! 저 사람, 아까 우리를 총리 집으로 안내해준 사람이야!

유다 : (청지기를 보고) 나으리, 무슨 일이십니까.

청지기 : 고양이 놈들 같으니라고. 총리 각하께서 그토록 후한 대접을 해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은혜를 원수로 갚는단 말이냐!

유다 : 저, 나으리, 저희들은 도무지 무슨 말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청지기 : 닥치거라! 이 도둑 고양이 같은 놈들! 총리 각하께서 하해와 같은 은혜로 너희들을 용납해주셨거늘, 감히 이집트 총리

각하의 물건을 훔치다니! 네놈들이 우리 이집트를 우습게 보지 않았다면 어찌 이런 간교한 짓을 할 수 있겠느냐!

유다 : 아니, 저, 나으리, 아뢰옵기 황공하오나, 저희들은 도무지 무슨 말씀인지 짐작할 수도 없습니다. 감히 저희들이 총리 각하의 물건을 훔치다니요. 당치도 않사옵니다.

레위 : 뭐, 잘못 알고 오신 게 아니십니까. 대체 우리가 뭘 훔쳤다고…….

청지기 : 이런 고얀 놈들을 보았나. 아직도 잡아떼다니, 대담한 놈들이로구나!

유다 : 나으리, 뭔가 오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돈은

오히려 저희가 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오지 않았사옵니까. 그런데 어찌 감히 각하의 물건에 손을 댈 리가 있겠사옵니까.

청지기 : 좋아. 그러면 지금 당장 너희 짐을 수색한 다음, 총리 각하의 물건이 발견된다면 어찌할 셈이냐. 그래도 잡아떨 텐가?

유다 : 알겠습니다. 그럴 리야 없겠습니다만, 만약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짐을 뒤져 보시고, 그 중에서 각하의 것이 나온다면, 그 짐의 주인은 분명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요, 우리 모두는 총리 각하의 영원한 종이 될 것이옵니다.

청지기 : 그것 참 대단한 자신감이로구나. 그렇다면 이렇게 하도록 하지. 만약 총독 각

이카호중앙교회(일본) 홍성필 목사  
[ikahochurch@gmail.com](mailto:ikahochurch@gmail.com) <http://www.ikahochurch.com>  
일본 복음화를 위한 선교후원 : KB국민은행 079-21-0736-251

하의 물건이 나온다면, 그 짐의 주인은 영원히 각하의 종이 될 것이고, 나머지는 편히 돌려보내주도록 하겠다. 알겠나? 자, 그럼 당장 수색을 시작하도록 하지. (뒤에 있는 형제들을 향해) 지금부터 자기 짐을 이리로 가지고 나오너라. 자, 너부터!(르우벤을 가리킨다) 어서 네 짐을 가지고 와! 꾸물대지 말고 빨리빨리 움직여!

- 세 명의 병사들이 각각 자신의 짐을 가지고 온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등을 차례대로 수색한다.

청지기 : (베냐민을 가리킨다) 네가 마지막인가?  
자, 어서 짐을 가지고 와!

- 형제들은 각각 수군수군 하기도 하고, 고개를 갸우뚱 하기도 하면서 수색하는 모습을 지켜본다.
- 유다는 수색하는 모습을 보다가 고개를 숙이고 생각에 빠진다.

병사 1 : 대장님! 찾았습니다!

- 형제들 모두 놀라서 병사 1 쪽을 본다.

청지기 : 오오. 역시 있었군! 어서 이리 가지고 와!

병사 1 : (베냐민 짐을 가지고 청지기에게로 간다)

납달리 : (단에게) 형, 저거 베냐민 짐이잖아?

베냐민 : (놀라서 어쩔 줄을 몰라 멍하니 서 있다)

단 : 뭐야? 그럴 리가 없잖아. 총리 물건이 왜 베냐민 짐 속에서 나오냐구!

시므온 : 아아……. (머리를 움켜잡고 주저앉는다)

레위 : 잠깐만 기다려 보쇼. 왜 하필이면 베냐민 짐 속에서 나오냐구. (베냐민을 보고) 야! 베냐민, 너 무슨 짓을 한 거야!

베냐민 : (레위, 그리고 주변을 돌아보며 고개를 흔들다) 전, 몰라요. 전 아무 것도 모른다구요!



- 병사 2, 3, 베냐민을 쪽에서 팔짱을 낀다.

르우벤 : 대, 대장님, 이거 아니야. 아니에요. 이  
럴 수가 없어요. 뭔가 이상해요. 제발.....  
제발 우리 베냐민 좀 용서해주세요. 네?  
대장님, 우리 베냐민을 용서해 달란 말이  
예요! (청지기에게 매달리며 애원한다)

청지기 : (르우벤을 물리친다. 그러나 심하게 내  
치지는 않는다) 이거 놓지 못할까! (병사  
를 보고) 여봐라. 그 찾아낸 것을 이리  
가져오거라.

- 병사 1이 찾아낸 은잔을 가지고 온다.

청지기 : (병사 1로부터 은잔을 건네 받고는 유다에게 내보인다) 자, 이걸 보라. 이래도 계속 아니라고 우기겠느냐.

유다 : 자,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곤혹스러워한다) (베냐민을 보고) 베냐민. 이게,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이냐. 네가 이런 것을 훔쳤을 리가 없지 않냐.

베냐민 : (유다를 보고 고개를 가로젓는다. 울먹이며) 저, 저는 정말, 정말 몰라요. 정말 이에요. 저게 왜 제 자루에 들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청지기 : 자, 너희들 눈으로 똑바로 봤으니 이제 아무도 부인할 수 없지 않겠나. 총리 각

하께서 점을 치셔서 금방 범인을 찾을 수 있었기에 망정이지, 하마터면 고약한 도둑들한테 빼앗길 뻔 하지 않았는가. (유다를 보고) 네 이놈. 아까 한 말을 잊었다고는 말 못하겠지? 이 안에서 총리 각하의 것이 나온다면, 그 짐의 주인은 총리 각하의 영원한 종이 될 것이라 하지 않았는가. 이제 범인도 밝혀졌다. 너희들은 죄가 없으니 네 고향으로 편히 돌아가도록 하라. (베냐민을 가리키며) 이 놈은 이집트로 연행해서 철저히 조사할 것이다. (병사들을 향하여) 얘들아, 뭇들 하느냐. 어서 저 고양이 놈을 연행하지 못할까.

- 병사 2, 3 : 예! (두 병사가 베냐민의 좌우 팔짱을 끼고는 여행하려 한다)

유다 : 나, 나으리.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게 어찌 된 일인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청지기 : 네가 알든지 모르든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자 너도 봤듯이 이 놈 (베냐민을 가리킨다) 짐 속에서 총리 각하의 은잔이 나오지 않았는가. 그러니 이 놈만을 데려가서 조사할 테니 너희들은 돌아가도 된다고 한 것이야. 어서 가거라!

유다 : 나으리, 지금 이렇게 된 상황에서 제

가 무슨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저희 마음 속을 열어 보여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유야 어떻든 간에 저희 짐 속에서 총리 각하의 물건이 발견되었으니, 저희들 모두 각하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청지기 : 아니야. 그럴 것 없다고 하지 않았는가. 각하의 물건을 훔친 자만 연행하라는 각하의 명령이야. 너희들은 어서 고향으로 돌아가라!

유다 : 나으리, 잠시만……. 잠시만 제 말씀을 들어주십시오. 예전에 각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희 가족에 대해서 상세하게 물으시기에, 아버지가 있고 막내가 있는데,

그를 낳은 어머니와 형은 일찍 세상을 떠나고 노년에 얻은 막내이기에 아버지가 그 막내를 극진히 사랑한다고 아뢰었습니다.

- 조명이 조금씩 어두워지고. 유다 만을 비춘다
- 유다, 관객석 쪽을 바라보고 말을 계속한다.

유다 : 그러자 각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막내를 데려오라고 하지 않으십니까. 왜 그런 명령을 하셨는지 알 수는 없습시다만, 그러나 나으리,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막내를 각별하게 사랑하셨지요. 어디를 가나 데리고 다니셨

이카호중앙교회(일본) 홍성필 목사  
[ikahochurch@gmail.com](mailto:ikahochurch@gmail.com) <http://www.ikahochurch.com>  
일본 복음화를 위한 선교후원 : KB국민은행 079-21-0736-251

습니다. 말 그대로 한 순간도 혼자 두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토록 사랑하셨기 때문에 만약 그 막내를 데려간다고 한다면, 만약 그렇게 한다면, 어찌면 아버지는 상심하셔서 앓아 누우실지도 모르는 노릇입니다. 그래서 제가 각하께 몇 번이고 간곡히 말씀을 드렸지 않았습니까. 식량을 위해 돈을 더 내놓으라고 하시면 더 가지고 오겠습니다. 저희가 가져온 돈이 부족하다면, 주시는 대로 만족하고 감사하며 가져가겠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막내만은 저희 아버지 품에 있게 해달라고 재차 당부 드렸습니다. 그런데 각하께서는 무슨 영문인지 막내를 반드시 데려

이카호중앙교회(일본) 홍성필 목사  
[ikahochurch@gmail.com](mailto:ikahochurch@gmail.com) <http://www.ikahochurch.com>  
일본 복음화를 위한 선교후원 : KB국민은행 079-21-0736-251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못하겠으면 다시는 애굽에 들어올 수 없다고 엄히 말씀하셨습니다.

유다 : 나으리도 아실 것입니다. 지금 이 지역에 2년 전부터 계속되는 가뭄은 전무후무한 재난입니다. 저희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도 모든 곡식들이 마르고 땅은 타 들어가서 한줌의 식량조차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이 지역에서 식량이 있는 나라는 유일하게 이집트 뿐입니다. 이집트만이 저희들의 생명줄인 것입니다. 만약 이집트에서 식량을 얻을 수가 없다면, 저희들은 광야 한 복판에서 마른 풀이 시들어가듯 죽어갈 수밖에 없



습니다.

유다 : 각하께서는 저희 형제 중 시므온을  
인질로 잡아두시고는 막내를 데려오도록  
엄히 말씀하시고 나머지 아홉 명을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주셨습니다. 하오나, 그  
럼에도 불구하고 늙은 아버지는 막내 보  
내기를 오랫동안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토록 막내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하지  
만 시간은 흐르고, 예전에 가지고 간 식  
량은 또다시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저희  
는 아버지께 또다시 간청을 드렸지요. 우  
리에게는 식량이 필요합니다. 식량을 얻  
기 위해서는 이집트로 가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집트 총리 각하께오

서 막내를 데려오지 않으면 식량을 얻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막내를 데려갔다가, 만약 저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나는 이제 살아갈 수가 없다,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저 막내의 생명은 하나로 묶여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나이 이제 130세입니다. 이번에 막내를 데려가지 않는다면 아버지는 분명 살아있지 못할 것입니다. 죽고 말 것입니다.

- 조명이 조금씩 밝아진다.

- 유다, 조명이 완전히 밝아지면 다시 사자 쪽으로 몸을 돌린다.

유다 : 이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설령 저희들만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들로써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나오리, 부탁이옵니다. 간곡히 부탁 드리옵니다. 꼭 막내를 연행하셔야 한다면 저희들도 함께 데려가 주십시오.

청지기 : (짐시 고민을 한다) 그래. 정 그렇다면 내가 들어주도록 하지. (병사들을 보고) 여봐라. 이 놈들도 모두 연행하라!

병사 1, 2, 3 : 예! (연행하기 위해 형제들에게 다가

이카호중앙교회(일본) 홍성필 목사  
[ikahochurch@gmail.com](mailto:ikahochurch@gmail.com) <http://www.ikahochurch.com>  
일본 복음화를 위한 선교후원 : KB국민은행 079-21-0736-251

가며 조명 어두워짐)

제4장 막

이카호중앙교회(일본) 홍성필 목사  
[ikahochurch@gmail.com](mailto:ikahochurch@gmail.com) <http://www.ikahochurch.com>  
일본 복음화를 위한 선교후원 : KB국민은행 079-21-0736-251

## 제5장 추궁

### - 추궁 당하는 요셉

등장인물 :

아스낫 (요셉 - 사브낫·바네아 - 의 아내)

장소 :

이집트 총리 집무실 또는 방

안 됩니다. 그러실 수 없습니다. 제 눈을 속이려고 하십니까. 당신의 하나님을 속일 수 있을지언정 제 눈은 못 속입니다. 만약 제 말이 틀렸다면 당신의 하나님께서 제게 벌을 내리고 또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사브낏·바네아 각하. 지금 당신은 이집트의 황제와도 같습니다. 괜찮아요. 지금 제 말을 들을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물러가 있도록 명해놓았습니다. 하지만 누가 듣는다 하더라도 이를 부인할 사람은 없겠지요. 이 나라에서 사브낏·바네아를 능가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는 폐하께서 직접 당신의 권위를 황제에 버금가는 반열로 올려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니, 오히려 폐하께서도 당신의 말씀에 모두 순종하고 계십니다. 그 증거가 바로

당신 손 안에 있습니다. 손가락에 반짝이는 그 반지는 다름 아닌 폐하께서 친히 하사하신 폐하 자신의 반지입니다. 9년 전에 그 반지와 더불어 부여 받은 폐하의 권위는 지금도 퇴색하지 않고 빛나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난 7년 동안 있었던 대풍년 동안 철저히 대비를 하셨습니다. 이는 당신이 폐하의 꿈을 해석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지요. 처음에는 의심했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당신의 예언은 적중했습니다. 이집트 건국 이래 것처럼 놀라운 풍년은 없었습니다. 식량과 가축들이 넘쳐나서 통계를 하려 해도 걸잡을 수 없이 늘어나는 수확량을 따라잡을 수가 없을 정도였지요. 온 나라 사람들은 그와 같은 풍년이 영원히 지속되리라 믿었습니다. 그 누

이카호중앙교회(일본) 홍성필 목사  
[ikahochurch@gmail.com](mailto:ikahochurch@gmail.com) <http://www.ikahochurch.com>  
일본 복음화를 위한 선교후원 : KB국민은행 079-21-0736-251

구도 7년 후에 흉년이 닥치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할 만큼 놀라운 풍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돈에 취했습니다. 술에 취했습니다. 향락에 취했습니다. 환희에 정신을 잃었습니다. 노동은 사라지고 나태가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윤택함이 가져다 주는 기쁨은 어느새 권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어찌 보면 행복이란 사람들에게는 과분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행복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를 알지 못합니다. 만약에 당신이 없었더라면 이 나라는 흉년도 오기 전에 풍년 때문에 망하고 말았을지도 모르겠더군요.

하지만 이집트의 신들께서는 놀라운 선물을 예비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 사브낫·바네아 각하입니다. 오랜 풍년이 주는 쾌락에 빠져 타락하기 직



전이었던 이집트 국민들을 당신은 엄히 경계했지요. 이 풍년은 오래가지 않는다. 7년이면 끝이 난다. 그 다음에는 끔찍한 7년 흉년이 닥칠 것이다. 흉년이 시작되면 지금의 풍년에 얻은 것이 모두 사라지고 말 것이다.

그 때는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폐하의 신하들 모두가 비웃었지요. 하물며 당신의 아내인 저도 믿어지지 않았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나 아무도 당신의 권위에 도전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폐하 덕분이었습니다. 당신을 부정하는 것은 당신이 해석한 폐하의 꿈을 부정하는 것이요, 이는 곧 폐하를 부정하는 반역이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곳곳에 창고를 세우고 넘쳐나는 곡물들을 철저하게 저장했습니다. 누구는 이 때를 이용하여

병력을 늘려서 강한 군사력을 기르자고 주장하기도 했지요. 그 동안 한결같이 당신을 지지해왔던 폐하께서도 이 때만은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럴 만도 하지요. 폐하의 야망은 너무나도 큼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삼킨다 하더라도 채워지지 않겠지요. 그런 폐하께서는 당연히 강한 군사력을 원하셨습니다. 이처럼 재물이 넘쳐나고 가축이 넘쳐나고, 그리고 곡물이 넘쳐나는 지금이야말로 군사력 증강을 위한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셨겠지요. 하지만 당신의 방침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망설이시는 폐하 앞에 선 당신은 단호했습니다.

지금 군사력을 키우게 되면 향후 분명히 다가올 흉년이 닥쳤을 때 병력 유지를 위하여 더 많은 식량이 소모된다. 장차 올 흉년은 이집트만이 아니라

이카호중앙교회(일본) 홍성필 목사  
[ikahochurch@gmail.com](mailto:ikahochurch@gmail.com) <http://www.ikahochurch.com>  
일본 복음화를 위한 선교후원 : KB국민은행 079-21-0736-251

이 세상 전체를 뒤덮을 것이며, 그 때를 대비하여 식량을 저장해놓는다면, 화살 하나 쏘지 않고도, 말한 필 쏘지 않고도 천하를 수중에 넣으실 수가 있을 것이다.

아무리 폐하라 하여도 흔들림 없는 당신을 반대하실 수는 없으셨나 봅니다. 폐하께서는 이후 사브낫·바네아의 명을 거역하는 자는 극형으로 다스릴 것이라는 칙령을 내리셔서 그 누구도 당신의 정책을 반대하지 못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저는 너무도 자랑스러웠습니다. 제가 사브낫·바네아의 아내라는 사실이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불안한 마음에 사로잡혔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이집트 신하들의 시기심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 아버지 제사

장 보디베라도 항상 그 점을 걱정하셨습니다.

아무리 폐하께서 칙령을 내리셨다 하더라도 그들의 모략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기다렸지요. 대풍년이 끝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예언한 7년이 지나 흉년이 오지 않을 경우, 그들은 당신을 폐하께 고발할 속셈이었습니다. 이집트의 부흥을 가로막는 거짓 선지자라는 낙인을 찍고 권좌에서 끌어내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저는 제 처지가 너무나도 슬펐습니다. 풍년 기간 동안 이집트에는 황금이 넘쳐났기에 모든 백성들이 은을 귀하지 않게 여겼습니다. 땅에 떨어진 돈도 줍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집트 백성의 한 사람으로서 이 놀라운 풍년이 영원토록 이어지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저는 흉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흉년이 오지 않으면 당신이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아니요. 당신만이 아닙니다. 권력을 탐하는 그들은 당신을 끌어내리는 것만으로도 부족하여 어찌면 당신을 세우신 폐하까지도 위기로 몰고 갈지 모릅니다. 아아, 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요.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찢어질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이를 아는지 모르는지 7년 동안 일관되게 정책을 펼쳐나갔습니다. 실세 없이 전국을 순회하여 저장량을 확인하고 창고를 증축시켰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이나 명령을 내리고 인장을 찍었기에, 인장 반지는 이제 많이 낡아 보일 정도가 되었습니다.

머지 않아 말씀하셨던 7년이 지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불만을 품은 이들은 그 동안 넉넉

이카호중앙교회(일본) 홍성필 목사  
[ikahochurch@gmail.com](mailto:ikahochurch@gmail.com) <http://www.ikahochurch.com>  
일본 복음화를 위한 선교후원 : KB국민은행 079-21-0736-251

한 재물을 바탕으로 비밀리에 군사력을 모으고 반역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일이 찻음에도 불구하고 흉년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들은 당장이라도 움직일 태세였습니다.

오오. 그런데 어찌된 일인가요. 당신이 예언한 그 해 그 달부터 수확이 끊기기 시작합니다. 땅이 마르기 시작합니다. 하늘 문이 닫혀버린 듯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수확철이 되면 분주하게 움직였던 일손들이 멈춰서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땅을 경작하려 하여도 돌과 바위들이 넘쳐나서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간사합니다. 당신의 예측이 적중하자 반역세력 안에서 분열이 일어났지요. 결국 그들의 밀고로 인하여 모든 반역자들뿐만 아니라 그

가족과 일가친척들까지도 황제 폐하 앞에서 무참히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집트 제사장의 딸, 저 하늘 높이 떠오르는 태양을 숭배하는 제사장의 딸입니다. 그러나 저는 당신이 틈만 나면 말하는 당신의 하나님도 사랑합니다. 여호와, 라고 했던가요? 흥미로웠던 것은 당신의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 분의 나이 75세 때 갑자기 어디선가 들려온 부름의 소리에 순종해서 그 동안 살고 있던 고향을 버리고 가나안 땅으로 갔다고 했지요? 그 분을 인도해낸 신은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고, 그 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을 하늘의 별들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고 했으면서 오랫동안 아들 하나 안 주셨다고 했지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

래도 회임 할 수 있는 나이였다면 희망도 가질 수 있었겠지만 그 분의 아들이자 당신의 할아버지인 이삭을 얻었을 때가 100세 때였다고 했지요?

저는 예전에 큰할아버지 이스마엘에 대해서 말해 주셨던 것을 기억해요. 하란 땅을 출발한지 10년이 되어도 아들이 없자 증조모님이신 사라께서 증조부님께 부탁하기를 자신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게 해달라고 해서 얻은 분이 이스마엘이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당신은 그 분들의 판단이 옳지 않았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려야 한다고,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사람의 생각으로 인한 행동은 훗날에 큰 우환으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지요. 하지만 저는 같은 여자로서 당신의 증조모님의 심정이 너무나도 이해가 되요. 1년~2년도 아닌 10년



이나 지나기까지 아무런 요구도 안 하신 편이 오히려 존경스러울 따름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약속은 25년 뒤에나 이루어지게 되었다지요.

당신이 들려준 말씀 중에서 가장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당신의 하나님은 25년이나 기다리게 한 후에 주신 아들을 자신한테 희생제물로 바치게 했거든요. 그런 일은 이곳 이집트에서도 있었어요. 가장 순결하고 가장 고귀한 사람을 위대한 신에게 바치는 신성한 제사지요. 아브라함을 하란 땅에서 불러낸 하나님은 사흘 길을 떨어져 있는 모리아 산에 까지 가서는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는데, 아들을 결박하고 잡으려고 하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를 막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들 대신 번제로 바칠 숫양을 예비해주셨다고 했지요? 그래

서 증조부 아브라함께서는 그 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 여호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는 이름을 남겼다는 말씀이 참으로 인상적이었어요.

가끔 당신이 믿는 신을 생각하면 여러 가지 의미로 웃음이 납니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해주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으면서, 결국 증조부님이 동안 얻은 아들은 이스마엘과 이삭 두 명이었다면서요. 더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증조모님 사라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은 이삭이 전부였습니다. 다행히 그 분이 돌아가시기 15년 전에 당신의 아버님이신 야곱과 큰아버님 에서를 보셨지요. 얼마나 안도하셨을까요. 얼굴도 모르는 증조부님의 웃으시는 얼굴을 짐작할 수 있을 것만 같군요.

증조부님 아브라함은 끝까지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감사했다고 하니 참 대단한 분이세요. 저는 그러지 못할 것 같습니다. 당신의 조부님이신 이삭께서는 아버님 천성을 꼭 닮으신 것 같더군요. 제법 컸었음에도 아버님이 자신을 장작 위에 올려 놓고 칼로 내리치려는 데도 저항하지 않았던 조부님. 호호호. 웃어서 죄송해요. 그것이 믿음인지 순종인지, 아니면.....후훗

당신 말씀에 의하면 조부님의 삶은 평탄했지요. 욕심도 없고 다투지도 않고 그저 주는 대로 감사하는 삶이었습니다. 당신이 가끔 말씀하시는 이삭 할아버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그 분은 준비하신 모든 것을 누리기만 했던 삶, 그렇기 때문에 평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는지도 모르겠군요.

예비하시는 하나님. 저는 이 말이 참 좋았습니다. 물론 우리를 시험하시는 신을 좋아할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믿고 기다리면 예비해주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매력을 느낍니다.

당신의 하나님은 이집트를 위해서 무엇보다 당신과 같은 뛰어난 지도자를 예비해주셨습니다. 풍년이 끝나고 끔찍한 흉년이 시작한지 2년째가 됩니다. 그토록 나무들이 울창했던 저 주변국 들판에는 먼지만이 날리고 있을 뿐입니다. 오직 이집트만이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어요. 윤택함이 넘쳐납니다. 크고 작은 나라들은 이미 굶주림에 허덕입니다. 이집트를 위협하던 모든 왕들은 이제 사신을 보내어 금은보화와 향료와 그리고 노예들까지도 실어오며 조금이나마 식량을 더 얻으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나라들은 황제 폐하께 국토를 상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으로 당신이 예언하신 것처럼 화살 하나 쏘지 않고, 말 하나 잃지 않고 주변국 모두를 손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모두 당신의 지혜와 폐하의 신임이 이루어낸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라 하겠습니까.

폐하가 그 꿈을 꾸셨을 때 많은 이들은 긴장했습니다. 폐하께서는 너무나도 염려하여 식사도 제대로 드시지 못했을 정도였다고 했으니깐요. 하지만 이를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제아무리 능숙한 점술가라 하더라도 폐하의 꿈 이야기를 듣고 나면 마치 입술을 꿰매놓은 듯이 다물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때 마침 아버님과 함께 멀리서 폐하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기에 잘 기억합니다. 만일 그

때 술 담당관님이 안 계셨더라면 폐하의 심기가 상하여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 때, 2년 전 술 담당관님이 감옥에 갇혔을 당시 만났던 청년 이야기를 폐하께 하시더군요. 그분의 말씀에 의하면 그는 가나안 땅에 살던 히브리인으로서 형제들한테 버림을 받아 노예로 팔려와서는 보디발 장군 집에서 섬기고 있던 중에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힌 인물인데, 자신이 감옥에 있을 때 꾸 꾸 꿈을 그 청년이 해석해주었다고 했습니다.

결국 그 해석대로 자신은 풀려나고 함께 있던 요리 담당관님은 처형 당했다고 하시더군요. 평소 같았더라면 그런 이야기를 곧이 들으실 리 없는 폐하였습니다만, 워낙 답답하셨는지 그 청년을 불러오

라는 명을 내리셨습니다.

억울한 인생, 억울한 누명, 억울한 죄값……. 이 얼마나 진부하고 구차한 말들일까요. 지금 이 순간도 감옥에 갇힌 이들을 아무나 하나라도 끌어와 보세요. 모두가 하나 같이 억울하다는 말만 늘어놓을 것입니다. 누구 하나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을 상상했는지 아시겠지요? 치사하고 간교하게 생긴 젊은이를 떠올렸습니다. 세상 풍파에 닳고 닳은 청년을 생각했습니다.

얼마 있자 한 청년이 왕실 안으로 이끌려 왔습니다. 당신을 처음 본 것은 바로 그 때였습니다. 처음으로 당신을 보았을 때의 인상은 놀라웠습니다. 치사함이라뇨. 간교함이라뇨. 당신의 눈빛은 실로 맑았습니다. 투명했습니다. 그리고 어디를 보더라도

마치 당신이 바라보는 그 곳이 새카맣게 타 들어갈 것만 같이 강렬했습니다.

폐하도 같은 생각이셨을 것입니다. 당신을 보신 후 잠시 말씀을 하지 못하셨지요. 무언가에 대단히 놀란 듯한 모습이셨습니다. 술 담당관이 독려한 다음에야 꿈에 대한 말씀을 시작하셨지요. 그러자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당신의 입이 한 번 열리더니 마치 붓물이 터지듯 쉴새 없이 놀라운 해석이 쏟아졌습니다. 그와 같은 말씀은 제가 지금까지 들어본 적도 없는 신비로운 것들이었습니다. 생각조차 하지 못한 해석이었습니다.

당신은 그토록 놀라운 말을 단 한 번도 막힘 없이 말씀하셨지요. 당신이 말을 마치자 폐하를 비롯하여 다른 모든 신하들이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다. 아무리 학식이 높고 자존심이 강한 그들이라 한  
들 그 누가 당신의 해석에 토시 하나라도 붙일 수  
가 있었겠습니까. 당신의 표정은 말씀을 시작할 때  
와 똑같았습니다. 얼굴에서는 천사와도 같은 광채가  
나는 듯했습니다. 그 광채는 왕실 안 전체를 비추고  
도 남음이 있었습니다.

폐하는 즉시 그 자리에서 당신에게 이집트의 총  
리라고 하는 높은 관직과 모든 권한을 하사하셨지  
요. 그리고 며칠 후 저희 아버님을 통해 폐하께서  
직접 훈담을 제안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  
님께서는 즉석에서 폐하의 명을 받들겠다고 하셨다  
고 하니, 제게는 이를 거절할 권한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 드리자면 불안했습니다. 첫째도 둘째  
도 당신이 고위 관직에 오른 인물이었기 때문입니

다.

이곳 왕궁은 질투와 시기가 난무하는 세계. 아무리 권모술수에 능한 이라 하더라도 하루아침에 먼지가 되어 날아가버리는 세계입니다. 당신이 보디발 장군 댁 감옥에 갇혔을 때 만났던 술 담당관님과 요리 담당관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처럼 무소불위의 권세를 가진 자라도 모함과 모략의 덫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었습니다. 지혜로운 술 담당관님은 풀려났으나 요리 담당관님은 결국 나무에 달리고 말았잖아요. 황제 폐하의 총애를 받는 당신도 언제 그 무서운 덫에 걸려 희생될 지 모르는 것이 이곳 왕궁입니다.

당신이 이방인이었다는 것이요? 아니요. 그런 것 따위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그날 폐하 앞

에 당당히 섰던 모습, 청정한 폭포수처럼 흘러나오  
듯 꿈 해석을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았다면, 이 이집  
트 어디를 찾아보아도 당신에게 마음을 주지 않을  
여인은 없었을 것입니다. 저도 여자로서 마찬가지로  
요. 당신이 총리가 아니라 또다시 노예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저는 당신의 마음을 얻기 위해 제 인생의  
모든 것을 바쳤을 것입니다.

달이 밝던 날, 제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지요. 미  
디안 상인들에 의해 이집트로 끌려올 때의 일 말입  
니다. 그 때도 달이 밝은 밤에 하늘을 바라보았더니  
당장이라도 떨어질 듯이 큰 보름달과 수많은 별들  
이 보였다고 했지요. 그 달과 별들을 보시며 당신은  
얼마 전 꾸었던 꿈 생각을 했다고 하셨습니다.

“꿈속에서는 해와 달과 열한 별들이 내게 공손히

절을 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해주셨던 말씀, 자손을 하늘의 별들과 같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셨다. 내가 꾸 꿈은 분명 소망이었고, 아브라함도 보았을 저 밤하늘에 빛나는 수많은 별들 역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소망이었다. 그러나 당시 밤하늘에 떠있던 달과 별들은 하나같이 나를 비웃고 있었다. 미래도 소망도 없이 그저 차갑게 비웃고 있을 뿐이었다.”

당신은 바닥을 보았다는 말씀도 하셨지요. 삶의 바닥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형제들로부터 모진 일을 당하고 은 이십에 팔려서 이곳 이집트까지 끌려왔을 때의 일 말입니다. 당신은 그 때 지옥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 말씀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향유처럼 온유한 당신의 어디에서 그런

끔찍한 기운을 느낄 수가 있었겠습니까.

저는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풍족한 삶에 길들여져서 그랬을까요.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 말을 할 때 당신은 매우 쓸쓸해 보였습니다. 평소에 저를 바라보는 눈빛은 온유했지만 과거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에는 항상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열일곱의 나이에 노예로 끌려온 당신, 얼마나 힘들고 고된 일을 감당해야 했을까요. 노예살이 만이 아니라 감옥에서도 오랫동안 지내셨을 때의 그 마음의 상처는 제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겠지요. 그런 모습을 보면 정말 당신은 말 못할 어려운 과거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당신은 역경을 힘으로 만드실 줄 아는 분

입니다. 보디발 장군 댁에 머물면서 당신은 이집트를 배웠습니다. 언어와 문화를 배워가셨죠. 왕의 감옥, 권력의 희생양으로 내몰린 자들이 들어가는 감옥에 갇혀있을 때에는 왕실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다고 제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덕분에 폐하 앞에 선 이후 높은 관직을 하사 받은 후에도 아무런 문제 없이 업무를 수행해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누가 당신더러 이방인이라 하겠습니까. 누가 당신더러 노예였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디를 보더라도 명실상부한 이집트인 중의 이집트인이요 폐하의 유능한 신하 중의 신하입니다. 당신의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을 위한 예비하심은 잘 알지 못하더라도, 위대한 이집트를 위해 당신을 예

비해주셨습니다. 본인에게는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의 기간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질투와 시기로 뭉친 당신의 형님들, 당신을 샀던 미디안 상인들, 보디발 장군 댁에서의 노예생활, 그리고 감옥생활까지 어찌면 당신의 하나님께서 모두 예비해 주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저는 가끔 당신 눈빛을 보며 많은 생각을 합니다. 당신의 두 눈에는 총명함이 살아있었습니다. 두 눈의 투명함은 예전과 변함 없습니다. 오히려 해를 거듭할수록 빛을 더해갔습니다. 그 눈빛을 볼 때마다, 당신이 내 곁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넘쳐 나왔습니다. 당신의 그런 눈빛이 저를 얼마나 위로해주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랬던 당신은……. 그랬던 당신은! 그 날 이후 변하셨습니다. 당신의 형제들이 이곳 이집트까지 식량을 얻으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부터, 당신은 변했습니다. 당신의 얼굴도 당신의 눈빛도, 그리고 당신의 마음도 변해가는 것이 저한테는 보았습니다.

당신은 기다렸지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곳까지 식량을 얻으러 올 것이라는 사실을 당신은 알았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당신의 힘을 이용하여 그들이 언제 오는지를 비밀리에 감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왔을 때 재빨리 그들을 체포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아무리 당신이라 해도 아무런 죄 없이 그들을 벌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생각난 것이 첩자. 간첩, 정탐꾼이라는 죄목이었지요. 언짢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실 권력을 가



진 자가 가장 다루기 쉬운 죄목이 바로 이 간첩이라는 혐의였겠지요.

혹독한 흥년 속에도 2년 동안을 버티신 것을 보면 당신의 아버님이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계셨는지 짐작이 갑니다. 그러나 더 이상은 어려우셨나 보더군요.

당신은 누구보다도 그들을 만나고 싶어하셨습니 다만, 아무리 기다려도 그들이 움직이려는 기색이 안 보입니다. 당신은 속이 탔겠지요. 아마도 그들이 온다는 소식을 지난 2년 동안을 밤낮없이 기다리셨을 것입니다.

그들이 이 쪽으로 출발했다는 소식을 듣고 당신은 대단히 기뻐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갑자기 안 만나겠다고 하셨습니다. 절대

로 만나지 않겠다고 호통을 치셨지요. 저는 처음에 그 이유를 알지 못했으나 곧 알게 되었지요. 이유는 단 하나. 그들 무리 속에는 당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베냐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아, 베냐민, 베냐민, 베냐민……. 당신은 그들이 오면 당연히 베냐민도 함께 올 줄 아셨겠지요. 그런데 보이지 않아요. 몇 번을 확인해도 그들은 10명이었습니다. 당신은 긴장했지요. 초조해했습니다. 베냐민이 살았는지 죽었는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당신은 계책을 생각해냈습니다.

먼저 당신은 시므온을 인질로 삼았습니다. 르우벤도 아닌 시므온을 결박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 같았으면 장자인 르우벤을 결박하거나, 비열한 인간이라면 그 중에서 제일 어린 이를 선택했

겠지요. 당신도 그런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르우벤을 결박하라고 하셨으나, 곧바로 당신은 생각을 바꾸어 시므온을 결박하라고 했을 때 저는 의아했습니다. 왜 당신은 장자인 르우벤도, 나이 어린 스불론도 아닌 둘째인 시므온을 택하셨을까.

이유는 간단하죠. 가나안 땅에서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장남인 르우벤은 다른 형님들과 달리 당신을 살려주려고 했던 그 은혜를 여전히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르우벤이 아닌 시므온을 인질로 잡아놓았던 것입니다. 저는 그 순간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무엇을 깨달았는지 궁금하신가요? 그것은 진실입니다. 당신의 본심입니다. 당신은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피를 나

는 당신의 형제들을 용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형님들한테 요구했던 것이 무엇이죠? 당신은 시므온을 인질로 삼고서 막내인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명하셨습니다. 당연하지요. 처음부터 그것이 당신 목적이었으니깐요. 그리고 그들로부터 받은 돈을 양식과 함께 몰래 그들의 집 속에 감추어 두셨지요? 설마 이것이 자비로운 당신의 배려? 아니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당신은 그들로부터 돈 한 푼 받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더러운 그 돈을 그대로 돌려주었지요.

당신 아버님도 대단하시더군요. 둘째 아들이 사로 잡혀 있는데도 아버님은 막내이자 당신의 유일한 친동생을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그 때 가져간 식량이 바닥난 후에야 베냐민을

보내셨습니다. 당신은 하루를 천 년 같이 그들을 기다리셨죠.

처음에는 그들을 만나지 않겠다고 했었지만, 이제 입장이 역전되었지요. 당신은 그들을 애타게 기다리는 입장이 되고 만 것입니다.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죠? 오랫동안 보지 않았기에 얼굴을 알아볼 수 있을지나 모르겠다는 말씀어요.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얼굴 윤곽, 이목구비나 피부나 머리카락. 어찌 몰라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를 처음 본 저도, 당신의 동생 베냐민을 처음 본 저도, 그가 당신과 한 핏줄임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닮았더군요. 베냐민의 얼굴을 확인한 뒤에야 비로소 아버지의 안부를 물으실 정도로 당신은 베냐민한테만 빠져있었습니

다.

당신은 다음으로 그들에게 잔치를 베풀었지요. 그들은 자기들이 말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당신이 그들을 나이 순서대로 앉히는 것을 보고 놀라워하더군요. 모르셨나요? 그도 그럴 것이 당신은 베냐민만을 보고 있었기 때문이겠지요. 그리고 당신은 베냐민에게만 음식을 다섯 배나 되는 양을 덜어주었습니다. 호호호. 어떻게 혼자서 다 먹으라고요. 당신은 당신 나름대로 베냐민에게 무엇이든지 해주고 싶었겠지요. 그러나 무엇을 해주면 좋은지를 그 정도로 모르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유야 어떻든, 당신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저도 좋았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어린 아이처럼 즐거워하는 모습을 오랫동안 보지 못했었거든요.

당신은 지금 취했습니다. 아니요. 포도주보다도 훨씬 독한 베냐민이라는 술에 취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니라 당신은 권력이라는 술에도 취했을지도 모르겠군요.

폐하께서 당신에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너는 내 집을 다스려라. 이집트에 있는 나의 모든 백성이 네 명령에 복종할 것이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보좌뿐이다”라고 하실 정도로 당신은 실질적인 이집트의 지배자입니다.

당신은 위대하십니다. 당신의 말 한 마디로 저들의 목숨을 순식간에 날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만한 힘을 당신은 가지고 계십니다. 당신의 명철함과 당신의 순결함, 당신의 충성심을 본다면 그만한 힘을 가져 마땅합니다. 지금까지 그 힘을 함부로 쓰신

이카호중앙교회(일본) 홍성필 목사  
[ikahochurch@gmail.com](mailto:ikahochurch@gmail.com) <http://www.ikahochurch.com>  
일본 복음화를 위한 선교후원 : KB국민은행 079-21-0736-251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과거의 어떤 위대한 군주보다도 당신은 현명하고 지식과 지혜로 넘치십니다. 당신은 이 몇 년 동안 폐하는 물론이고 저 또한 실망시키신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형제 분들을 만나고서 변했습니다.

당신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아브라함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삭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야곱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디 그뿐인가요?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당신의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예가 바로 저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저들을 아직도 살려 두었기 때문이죠. 아닌가요?

당신은 언젠가 제게 이런 말씀도 해주셨지요? 하나님은 침묵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이에요. 아브라함



과 이삭에게는 많은 말씀을 하셨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는 침묵을 지키고 계신다는 말씀어요.

하지만 제가 감히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침묵한 것은 당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이었습니다.

당신은 세 가지 침묵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사랑에 침묵했고, 둘째는 자비에 침묵했고, 셋째는 용서에 침묵하셨습니다.

저는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제 몸과 마음을 다하여 사랑했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제 사랑에 침묵하셨습니다. 아니라고 하지 마세요. 저도 알아요. 당신도 저를 사랑해주셨다는 것어요. 하지만 그 사랑은 <사브낫·바네아>로서, 이집트 총리로서 저를 사랑해주셨을

뿐입니다. 그러나 사브낫·바네아는 당신의 반쪽에 지나지 않아요. 당신의 나머지 반쪽. 그것은 요셉으로서의 당신입니다. 당신은 저를 요셉으로서는 사랑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요셉으로서의 사랑은 저를 향한 것이 아닌, 당신이 가나안 땅에 두고 온 베냐민을 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모든 것을 다 바쳐 사랑하였건만 당신으로부터 받은 것은 반쪽짜리 사랑뿐이었습니다. 저는 당신의 모두를 사랑하고자 했습니다. 총리로서의 높은 관직에 있는 당신만이 아니라, 당신 아버님의 열한 번째 태어난 아들로써,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갔던 동생으로서, 무고하게 오랫동안 죄수가 되었던 노예 요셉으로서도 당신을 사랑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제 마음을 받아주지는 않았습니다. 요셉으로서의 당신은 오

직 베냐민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늘을 바라볼 때도, 산을 바라볼 때도, 하물며 저를 바라볼 때도 그 눈 속에는 저 외에 베냐민이 있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여인의 하찮은 질투나 시기심으로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얇은 유리 구슬처럼 건드리기만 해도 깨져버릴 것만 같아 보였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사브낫·바네아와 살았을 뿐, 요셉에 대해서는 짝사랑만을 해온 세월이었습니다. 당신은 저를 향한 사랑에 침묵하셨습니다.

당신은 자비에 침묵하셨습니다. 저는 기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신에게 와서 식량을 구할 때의 당신 눈빛을 기억합니다. 돈이 떨어졌다고 하면 가축을 내라 하고, 가축도 떨어졌다고 하면 토지를 내라

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토지를 잃고 노예 신세가 된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것도 당신 하나님이 시키셨나요? 그들의 토지를 몰수하고 그들을 소작농으로 전락시켜 비싼 세금을 바치게 하라고 당신의 하나님이 시키시던가요? 당신은 온유한 사람입니다. 고난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당신이야말로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당신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에게는 자비와 은혜 베풀기를 아끼지 않으면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매정하신 분입니다. 당신에게 땅을 팔러 온 사람들이 타국민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들은 이집트 백성입니다. 자유인이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토지를 몰수하여 폐하 소유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당신한테는 폐하의 웃음만 보일 뿐, 그들의

눈물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당신은 가난한 사람들을 향한 자비에 침묵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제 용서에 침묵하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당신 형님들에 대한 용서에 대하여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것이 베냐민입니다. 당신의 베냐민에 대한 마음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베냐민은 당신 형님들의 죽음을 원하고 있을까요? 같은 라헬 어머니의 아들인 당신 손이 피로 물들기를 기뻐할까요? 그렇게도 형님들을 죽이고 싶다면 좋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 누가 당신을 처벌할 수 있겠습니까. 그 누가 당신을 또다시 옥에 가둘 수가 있겠습니까. 이 나라 국민들의 절반을 학살한다 하더라도 폐하는 용납하실 것입니다. 하물며 이방인 몇 명을 죽인다고 해서 제아무리 넓은 이집

트라 하더라도 그 누가 당신을 정죄하겠습니까. 제게 말씀하세요. 어떤 칼을 대령할까요. 폐하께서 하사하신 보검을 쓰시겠습니까. 아니면 당신이 토지를 빼앗고 노예로 만들어버린 소작농들이 쓰는 저 낫을 가져오라 명하시겠습니까.

각하. 부탁드립니다. 제발 부탁 드리웁니다. 반 쪽짜리 사랑으로도 만족하겠습니다. 아니, 그 반쪽 사랑마저 거두어가셔도 좋습니다. 부디 그 원망을 거두어주세요. 부디 그 증오의 불을 꺼주길 바랍니다.

노여워 말고 제 말을 들어주세요. 제 눈에는 당신 자신이 활활 타오르는 분노의 불길로 인해 점점 더 시커멓게 타 들어가는, 당신 자신이 점점 더 가늘게 시들어져 가는 심지처럼 보일 따름입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왜 그들을 이곳 이집트에까지

보내셨겠습니까. 당신에게 복수할 기회를 주기 위해  
서라고 믿으시나요? 당신을 가나안 땅에서 노예상  
인에게 팔아 넘긴 저들의 목숨을 빼앗도록 하기 위  
해서 당신 앞에 무릎을 꿇리셨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들의 죽음이 목적이었다면 벌써 옛날에 가나안  
땅에서 죽이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당신의 하나님  
은 저들의 목숨을 거둘 만큼도 힘이 없어서, 저들의  
피를 이 땅 위에 쏟게 하기 위해서는 당신의 힘을  
빌려야 할 정도로 무력한 신인가요? 어서 대답해보  
세요.

아니, 제가 굳이 이렇게 말씀 드릴 필요도 없겠지  
요. 당신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왜 저들을 당신에게 보냈는지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을 만나고 두 번의 눈물을 보였습니

다.

첫 번째는 그들을 처음 만났을 때였죠. 이는 분노의 눈물입니다. 증오의 눈물입니다. 원망의 눈물입니다. 복수의 눈물입니다. 제가 만약 그 눈물 앞에 있었더라면 저는 두려움 때문에 서 있을 수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데려온 베냐민을 만났을 때였습니다. 이는 기쁨의 눈물, 사랑의 눈물이었지요. 당신은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베냐민을 껴안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당신은 당장이라도 칼을 뽑아 형님들의 목을 치고 싶으셨겠지요. 그 마음 안에 가득 찬 원한을 단숨에 풀어버리고 싶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 그들을 만났을 때에는 베냐민이 없었지요. 하



지만 베냐민을 데려오게끔 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어땠을까요? 저는 그들이 베냐민을 데려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그들의 목숨도 끝이 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왔다고 해서 당신이 형님들을 용서할 리 만무했기 때문입니다. 용서는커녕 당신은 지금 그들 모두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들을 죽이고 베냐민만을 살려놓으실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베냐민을 사랑한 당신은 그가 보는 앞에서 피 흘리기를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든 그들로부터 베냐민을 떼어놓고 싶어 하셨지요.

제 걱정은 현실로 드러났습니다. 저들의 집 속에

곡식을 채우고 역시 돈을 돌려 놓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베냐민의 짐 속에만 은잔을 숨겨 넣으셨지요.

그 이유가 뭐죠? 당신의 신하들을 시켜서 그들의 짐 속을 수색하게 하고 난 다음, 베냐민의 짐 속에서 당신이 숨기도록 한 은잔이 발견되면 다른 형제들은 돌려보내고 베냐민만을 데려오게 하시려고 한 게 아닌가요?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말씀을 안 해주실 건가요?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은 베냐민을 데려오게 한 후 그들을 보내놓고서는, 나중에 추격해서 그들을 모두 죽여버릴 작정이셨습니다. 제 말이 틀렸나요? 그렇게 놀라실 것까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를 어찌죠? 지금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이카호중앙교회(일본) 홍성필 목사  
[ikahochurch@gmail.com](mailto:ikahochurch@gmail.com) <http://www.ikahochurch.com>  
일본 복음화를 위한 선교후원 : KB국민은행 079-21-0736-251

베냐민만이 아닌 모든 형제들이 따라오고 있다고  
하지요? 이제 기회는 없습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베  
냐민 앞에서 그들의 목을 치지 않는 한, 더 이상 그  
들의 목숨을 빼앗을 방법이 없게 된 셈이지요.

이제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저런. 벌써 청지기  
가 도착했나 보군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올리겠습  
니다. 제발 부디 당신 마음 속에서 지혜의 샘이 마  
르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제5장 막.

이카호중앙교회(일본) 홍성필 목사  
[ikahochurch@gmail.com](mailto:ikahochurch@gmail.com) <http://www.ikahochurch.com>  
일본 복음화를 위한 선교후원 : KB국민은행 079-21-0736-251

## 제6장 순종

### - 요셉의 순종

등장인물 :

사브낫·바네아(요셉) : 이집트 총리

장소 :

이집트 총리 집무실

아아,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  
의 하나님이시여!

(큰 소리로 웃는다)

참으로 한심합니다. 너무나도 한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시여,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들은 분  
명 저와 피를 나눈 형제들입니다. 하지만 저들을 보  
셨습니까. 그 간교한 언변들을 들으셨습니까.

기억하십니까. 제가 형제에 대해서 물었더니, 그  
들은 뭐라 말하였습니까. 막내는 아버지와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없어져요? 없어졌다니  
너무나도 뻔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더러운 말을 서슴지 않는 입을 어찌하여 내버려두  
신다는 말입니까. 저들의 더러운 손으로 저를 구덩

이 속으로 떨어뜨렸고, 노예로 팔아버린 것입니다. 그것을……. 그것을……. 없어졌다?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옵니다. 제가 제 발로 걸어나가기라도 했다는 것입니까?

오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당신은 어찌하여 저들을 살려놓으셨습니까. 어찌하여 저들에게서 생명을 거두지 아니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이삭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야곱을 사랑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여, 어찌하여 저들에게까지도 자비를 허락하시옵니까. 저들이 과연 하나님께서 친히 축복하신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당치 않습니다. 그들의 누추한 몰골을 보십시오. 광야를 떠돌며 먹을 것을 구걸하는 거렁뱅이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카호중앙교회(일본) 홍성필 목사  
[ikahochurch@gmail.com](mailto:ikahochurch@gmail.com) <http://www.ikahochurch.com>  
일본 복음화를 위한 선교후원 : KB국민은행 079-21-0736-251

참으로 보기도 흥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시공창  
에 던져 넣은 저들을 어느 때까지 용납하시려고 하  
십니까. 저들의 죄를 잊으셨습니까. 저의 이 억울함  
을 하나님은 어찌 돌아보지 않으시옵니까. 공의로우  
신 하나님이지요, 귀가 둔하여 제 부르짖음을 듣지  
못하시나이까. 눈이 어두워서 제가 당하는 환난을  
보지 못하시나이까. 지금까지 제게 이토록 고난을,  
이토록 시련을 허락하셨으니 이제는 제 간구를 들  
으소서. 제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제가 바라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베냐민입니다. 베냐민이옵니다. 다른  
것은 그 무엇도 필요 없사옵니다.

아아, 하나님. 저들은 어쩌면 그렇게도 누추한지  
요. 아마 지금 이 순간도 저들은 서로의 탓만 하고  
있겠지요. 자기 자신들의 추악함을 뒤로한 채, 자신

들이 저지른 끔찍한 죄악들을 회개하지도 않고, 궤변과 핑계만을 늘어놓고 악한 계획들만을 즐겨 하는 자들이옵니다. 저들의 죄악이 소돔과 고모라 족속들이 저지른 죄악보다 가볍겠습니까.

오오,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 유황불이 왜 저들 머리 위에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오늘 저들을 보면, 참으로 사람은 안 변하는 것 같습니다.

르우벤을 보셨습니까.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그는 여전히 형제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것 같습니다. 딱한 인간입니다. 다만 그 때 저들이 제 목숨을 빼앗으려 할 때 저를 지켜준 것만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어떻습니까. 저들한테서는 살기



가 넘칩니다. 무참히 살인을 저지른 그들의 손에는 아무리 씻어도 씻기지 못할 피가 흠뻑 젖어 있습니다. 그 피들이 소리칩니다. 세겜인들의 원한 맺힌 피, 원한에 찬 외침입니다. 증오의 외침입니다. 원통함을 호소하는 피의 외침입니다. 한탄입니다. 아아, 그들의 두 눈을 보셨습니까. 그 눈초리는 사람을 살리는 눈이 아니라 죽이는 눈입니다. 저들의 눈과 귀는 막히고 저들의 정수리에서 발끝까지 모두가 죄에 물들어 있습니다.

베냐민만 없었다면, 그 자리에 베냐민만 없었더라면 단번에! 아아, 하나님!

저들이 회개를 했다면 저는 용서했을 것입니다. 저들이 잘못을 뉘우쳤다면 저는 그 자리에서 저들을 끌어안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들은 회개하

지도 않고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스스로 저지른 일에 대해 조금이라도 죄책감을 느꼈다면, 조금이라도 저에게 미안한 마음이라도 남아 있었다면 저를 찾지 않았겠습니까. 저들은 저를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 넘겼습니다. 저들은 분명 그 상인이 이곳 이집트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저에게 조금이라도 미안한 마음이 있다면 제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정도는 궁금해하지 않았겠습니까. 자신들의 눈앞에 있는 자는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총리입니다. 그 정도로 다그쳤다면 과거에 저지른 잘못을 회개하고 저에게 과거의 동생을 찾아 달라는 말을 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 나라는 내 손바닥과도 다름이 없습니다. 저는 폐하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허락 받았습니다. 이집트에서 누군가를 찾아낸다는 것은 너무나도 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저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요셉에 대해서는 끝까지 입을 다물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아, 왜 다들 이처럼 입을 다물고 있는지요. 그 중에서도 하나님, 저는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도 야속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서는 증조부 아브라함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늘의 못 별처럼 자손을 허락하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

동서남북 보이는 땅을 모두 그와 그의 자손에게

허락하시겠다고 한 하나님.

죄악의 땅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실 계획도 아  
브라함에게 숨기지 않으셨던 하나님.

이삭에게 있어야 할 땅을 말씀하신 하나님.

이삭과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하신 하나님.

이삭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축복을 내리시겠다고 약속  
하신 하나님.

어디를 가든 야곱과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신 하  
나님

야곱을 지키겠다고 하신 하나님

야곱을 인도하시겠다고 한 하나님

야곱을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지요!

그런데 어찌하여 이 요셉에게는 침묵하십니까!

형님들이 저를 미워할 때에도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형님들이 내 채색옷을 벗길 때에도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형님들이 나를 구덩이 속으로 던져 넣을 때에도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은 이십에 이집트로 팔려갈 때에도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친위대장 보디발 장군 댁에서 종살이를 할 때에도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의 부인이 나를 유혹할 때에도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부인을 뿌리치고 나올 때에도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저에게 누명을 씌울 때에도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 결과 무고하게 옥에 갇힐 때에도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찌하여 이 요셉에게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의 입을 이 요셉의 귀에서 멀리하시는 것입니까. 주여 말씀하소서. 이 종이 듣겠나이다.

(웃기 시작한다. 조용한 웃음소리가 점점 커져간다)

후후후..... 후후후.....

하하하..... 하하하.....

예, 알고 있지요. 알고 있습니다.

이 요셉, 잠시 농을 부려보았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약하심은 만인보다 강하고, 하나님의 침묵은 만인의 달변보다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침묵이 아니요, 침묵이야말로 하늘이 울리고 땅이 울릴 정도로 말씀해주신 하나님의 음성인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 자신이 좋은 증거입니다. 어린 양치기를 높이 올려 이집트 총리로까지 세워 주셨습니다. 함께해주시는 하나님을 어찌 안 믿을 수 있겠습니까.

시련은 인내를, 연단은 겸손을, 침묵은 순종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드립니다.

이스라엘의 말은 지당합니다. 침묵은 제가 했는지도 모르지요.

그렇다면 저도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입을 다물

지 않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스나이가 말한 대로입니다.

저는 저들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할 이유도 근거도 없습니다.

저는 그저 베냐민만을 되찾을 수만 있다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형제들이야…….

하지만 이상하군요. 하나님께서는 어찌하여 막으십니까. 제가 잘못을 저지르기라도 했다는 말씀입니까. 저런 끔찍한 죄인들의 쓰레기더미에서 베냐민을 살려내려고 하는 제 행동이 악하다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이여. 무엇을 망설이십니까. 당신의 언약, 아브라함과의 언약은 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시면 되지 않습니까. 당신께서 주신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부터 하늘의 별만



큼이든 바닷가의 모래만큼이든, 이 풍요로운 이집트 땅에서 자손을 늘려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 풍요로운 이집트에서……. 이 풍요로운, 이집트에서…….

이 풍요로운?

이집트에서?

하나님이시여, 당신은 설마……. 당신께서는 설마……!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런 것이었군요.

당신은 처음부터 이 풍요로운 땅을 예비해두신 것이었군요.

참으로 놀라운 분이십니다.

가나안 땅이 아니라 이집트였습니까.

당신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지

요.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사백 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 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렇군요. 그랬었군요.

이제야 모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방’이란 여기 이집트였습니까. 모든 것이 말라 버린 지금 유일하게 풍요로움이 남아 있는 이 이집트에 야곱 자손을 불러들이고자 하시는 당신의 계획.

400년이 이집트였습니까.

저는 크나큰 착각을 하고 있었나 봅니다.

당신은 저를 위해 이 이집트를 예비해놓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제가 사랑하는 가족이나 베냐민을 위해 이 이집트를 예비해 놓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저 죄 많은 야곱의 아들들을 위해 ‘저’를 예비해두신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본다)

당신은 참으로 너무하십니다.

당신은 참으로 모진 분이십니다.

(침묵)

알겠습니다. 당신의 뜻이 정 그러하시다면 따르리이다. 따라야지요.

가나안 땅에서 이 곳 이집트로 팔려올 때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

보디발 장군 댁에서 노예살이를 할 때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

왕들의 감옥에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

나이 서른에 이집트 총리로 세워주신 하나님.

제가 어찌 당신 뜻을 저버릴 수 있사오리이까.

오오, 하나님.

내가 죽고 400년 동안 야곱의 자손이 고난 받을  
때, 당신을 거역하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이 백성들을 당신이 저버리지 않도록.

이 백성들이 당신을 저버리지 않도록.

당신을 잊지 않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민  
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통곡)

제가 죽어 비록 이 땅에 묻힐 지라도,

제가 머물 곳은 이 곳 이집트가 아닙니다.

제 뼈가 있을 곳은 하나님 당신께서, 약속하신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옵니다.

400년 뒤에 이 민족이 하나님의 인도로 이 곳을  
나갈 때,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행군해 나아갈 때,

제 뼈도 이 민족과 함께 가겠사옵니다.

제 영혼도 그들과 함께 가겠사옵나이다.

아아, 하나님

아아, 하나님이시여!

(통곡)

(하늘을 바라본다)

하나님이시여, 이제야 알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이제야 당신의 뜻을 알겠습니다.

내가 순종하리이다. 받아들이리이다. 감사함으로  
따르리이다.

아아, 하나님이지여, 당신은 얼마나 죄인들에게  
자비로우신지요.

아아, 하나님이지여, 당신은 얼마나 의인들에게  
잔혹하신지요.

(바깥을 향해)

이 보시오, 들으소서!

내가 요셉이니이다.

형님들이시여,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요셉, 내가 요셉이니이다!

당신들이, 당신들이 이집트에 팔아 넘긴 당신들의  
아우.

내가 바로 요셉이니이다!

이카호중앙교회(일본) 홍성필 목사  
[ikahochurch@gmail.com](mailto:ikahochurch@gmail.com) <http://www.ikahochurch.com>  
일본 복음화를 위한 선교후원 : KB국민은행 079-21-0736-251

(바깥을 향해 퇴장)

(음악)

제6장 막.

요셉의 재회 끝.